

2025년 제3호

# 부천과 박물관

특집 논문 : 필 벽과 전후 한국 사회

필 벽과 냉전의 사생아들 박진영

필 벽과 냉전 아시아: 냉전기 필 벽의 방한과 문학을 중심으로 박연희

필 벽과 한국계 아메라시안 권은혜

일반 논문

부천 문학의 변천과 현재 강미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천 문화정책의 전개와 향후 방향 이준일

일제강점기 소사 지역의 과수 재배와 복숭아의 특산물화 전현정

부천시박물관



# 부천과 박물관

2025년 제3호

부천시박물관



## 목차

---

### 특집 논문 : 펄 벅과 전후 한국 사회

---

펄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	박진영	6
펄 벅과 냉전 아시아: 냉전기 펄 벅의 방한과 문학을 중심으로	박연희	30
펄 벅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권은혜	60

---

### 일반논문

---

부천 문학의 변천과 현재	강미선	86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천 문화정책의 전개와 향후 방향	이준일	122
일제강점기 소사 지역의 과수 재배와 복숭아의 특산물화	전현정	158

---

### 『부천과 박물관』 원고 규정

---

『부천과 박물관』 원고 규정		179
-----------------	--	-----

---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 특집논문

### 필 벽과 전후 한국 사회

필 벽과 냉전의 사생아들

박진영

필 벽과 냉전 아시아:

냉전기 필 벽의 방한과 문학을 중심으로

박연희

필 벽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권은혜

## 목차

---

- I. 펼 벽이 드러낸 한국, 한국이 숨긴 펼 벽
- II. 기지촌의 아메라시안, 이름 없는 존재들
- III. 사라진 어머니, 지워진 여성들
- IV. 오직 아버지에게만 속히는 사생아
- V. 미국의 가부장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 펄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

박진영<sup>1)</sup>

## 1. 펄 벅이 드러낸 한국, 한국이 숨긴 펄 벅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인기를 끌었으나 평단이나 학계에서 외면당한 작가는 흔하다. 노벨문학상이나 풀리처상의 영예를 누리고도 문학사에서 오래 기억되지 못한 작가 역시 적지 않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는 물론 후대까지 유난히 인색한 평가에 시달린 경우가 펄 벅이다. 펄 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학의 계보에서 뒤쳐졌으며, 미국 문학의 전통에서도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sup>2)</sup> 펄 벅은 자신이 엄연히 속하면서도 늘 경계를 넘나든 “여러 세계” 사이에서 침묵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되살렸지만 그중 어느 세계에서도 환대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기록되지 않았다.<sup>3)</sup>

펄 벅에게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보낸 한국은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펄 벅의 소설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번역되면서 광범위한 독서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1960년 펄 벅의 첫 번째 방한에 발맞추어 기

---

1)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펄 벅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날 선 반응은 문학적인 평가 말고도 서로 다른 여러 이유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뒤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345~347쪽.

3) “여러 세계”는 펄 벅이 자서전 제명으로 붙인 말이다. Pearl Buck,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Y: The John Day Company, 1954.

넘 문집이 상재되고, 곧이어 대표작과 자서전을 망라한 전 15권의 선집이 1962년에 완간된 것은 한국에서 펄 벅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매듭짓 다시피 했다. 펄 벅은 1950~196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일 뿐 아니라 단일 작가 선집이 출간된 최초의 여성 작가다. 또 1980년대까지 총 8종의 선집이 잇달아 유통되어 펄 벅을 향한 한국인의 관심과 애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sup>4)</sup>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펄 벅의 성취와 역사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다루거나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펄 벅의 문학적 명성을 대변하는 『대지』(1931)는 물론 전후(戰後)의 몇몇 문제작은 근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조명되기 시작했다.<sup>5)</sup> 펄 벅의 사회적 실천이나 사상적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남긴 공과에 관해서도 매한가지 형편이다.<sup>6)</sup> 심지어 한국인의 삶과 한국의 운명을 그린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1963)와 『새해』(1968)조차 과장되거나 편향적인 찬사 말고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sup>7)</sup>

- 
- 4) 박진영, 「펄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 『여성문학연구』 6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73~277쪽, 297~306쪽.
  - 5) 특히 『대지』 번역을 둘러싼 논점에 관해서는 朴珍英, 「家族史の東アジア的想像と翻譯: パール・バックと林語堂の小説の韓国語への翻譯経緯」 『朝鮮學報』 239, 天理: 朝鮮學會, 2016, 1~31쪽; 박진영, 「동아시아 가족사의 상상과 세계문학 번역」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507~537쪽; 김종욱, 「번역된 토착주의: 1930년대 동아시아 지평에서의 펄 벅」 김재용·이해영 편,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소명출판, 2016, 297~323쪽; 김미연, 「『대지』와 식민지 조선의 문학 장: 번역, 비평, 독서의 교차」 『사이間SAI』 3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 333~383쪽.
  - 6) 해방기와 전후에 수용된 펄 벅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과 평가는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35~457쪽; 김양선, 「한국 전후 여성의 문학-교양과 펄 벅의 위치」 『여성문학연구』 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95~116쪽.
  - 7) 한국과 관련된 펄 벅 소설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의는 임선애, 「서구 작가의 한국 쓰기: 펄 벅의 『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 『한국사상과 문화』 4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81~106쪽; 허정애, 「펄 벅과 혼종 우월성: 『숨은 꽃』과 『새해』에 재현된 ‘아메리시안’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38, 한국영미어문학회, 2020, 85~110쪽; 박진영, 앞의 글, 2024, 270~308쪽.

필 벽의 아동문학으로 눈길을 돌려보더라도 사정이 별다르지 않다. 필 벽은 중국에서 작가로 나설 때부터 미국에서 타계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20여 편의 아동문학 작품을 꾸준히 창작했다.<sup>8)</sup> 『동풍 서풍』(1930)과 『대지』에 바로 뒤이어 발표한 『젊은 혁명가』(1932)는 중국 청년이 겪은 혁명과 변혁의 소용돌이를 그렸다. 그런데 아동문학이라 보기에 다소 모호할뿐더러 선교 목적으로 원고료를 받아 창작했기 때문인지 필 벽 스스로 작품 목록에서 뺄 만큼 미련을 보이지 않았다.<sup>9)</sup> 전후의 빼어난 수작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는 『해일』(1948)은 필 벽이 “여러 세계” 가운데 세 번째 세계로 꼽은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매력적인 동화다. 에도 시대의 유명한 우키요에(浮世繪)를 삽화로 곁들인 이 작품은 그해 아동연구협회 아동도서상을 수상했으며, 1960년 미일 합작 영화로 제작할 때 필 벽이 많은 공을 들였으나 아쉽게도 상영이 무산되었다.<sup>10)</sup>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매슈, 마크, 루크, 존(Matthew, Mark, Luke and John)』(1967)은 한국의 아메라시안(Amerasian) 어린이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필 벽이 줄곧 심혈을 기울인 혼혈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유일한 아동문학 작품이다.<sup>11)</sup> 또 만년의 필 벽이 한

8) 단행본으로 출간된 필 벽의 아동문학 작품 목록을 <표1>에 제시한다. 이 목록에는 아동용 전기 1종과 필 벽이 글을 붙인 사진집 2종을 포함했다. 그중에서 Welcome Child(1963)는 한국인 혼혈아 “Kim”이 미국에 입양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고 필 벽이 글을 썼는데,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듬해 출간된 The Joy of Children(1964)은 1960년 백악관에서 열린 혼혈아 사진전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모으고 필 벽이 글을 쓴 사진집이다.

9) 피터 쿤, 앞의 책, 243쪽.

10) 鈴木紀子, 「‘幻の映畫’をめぐって: 『大津波』日米合同映畫製作とパールバック』 『大妻レヴュー』 48, 東京: 大妻女子大學英文學會, 2015, 39~49쪽; 鈴木紀子,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東京: 大妻女子大學 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2~96쪽; 양아람, 「1960년대 필 벽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필 벽 수용: 『대지』의 작가, 혼혈아의 어머니」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41~445쪽.

11)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와 혼혈아 입양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은 노영순, 「아메라시안의 존재 양태와 국제 입양(1945~1975): 베트남-미국 혼혈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7, 역사교육연구회, 2021, 1~31쪽.

국을 직접적인 무대로 삼아 창작한 소수의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p>12)</sup> 그런데 이 작품은 한국에서 곧바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당하다시피 했고, 뜻밖일 정도로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았다. 동맹국 주둔군으로 인해 빚어진 혼혈 고아라는 지극히 불편한 이슈를 다룬 탓이라 치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인에게 펄 벅이 혼혈 고아의 어머니로서 각인되고 신화적으로 예찬해 마지않은 바로 그 주제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매슈, 마크, 루크, 존』을 확대한 그간의 사정은 한국에서 펄 벅을 우호적인 동시에 매우 편향적으로 이해해 왔음을 뜻한다. 또 펄 벅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란 기실 민중적이고 여성주의적인 펄 벅의 진면목을 가린 채 “휴머니즘”과 “모성애”라는 한정된 울타리에 가두어 온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내력을 통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sup>13)</sup> 어찌면 펄 벅이 “어머니 대지”라는 구시대적이고 진부한 여성 상징으로 박제되고 만 것은 펄 벅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지 모른다. 무엇보다 펄 벅의 문학적 행보와 사회적 실천 양자가 냉전 시기 분단국가라는 침예한 역사성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의심할 필요를 제기한다. 기묘할 정도의 펄 벅 열풍 속에서도 묻힐 수밖에 없었던 『매슈, 마크, 루크, 존』은 전후 펄 벅의 소설을 오늘날 다시 읽으면서 정치적 맥락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 II. 기지촌의 아메라시안, 이름 없는 존재들

펄 벅의 『매슈, 마크, 루크, 존』은 1960년대 여덟 차례에 걸친 방한, 펄

12) 한국과 관련된 펄 벅의 작품과 번역 목록을 <표2>에 제시한다.

13) 박진영, 앞의 책, 507~537쪽; 박진영, 앞의 글, 2024, 270~308쪽.

벽재단 한국지부(1965)와 소사회망원(1967) 설립, 그리고 장편소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 사이에 발표되었다. 펄 벅의 행보에서 우연한 일이 아닐뿐더러 한국에서도 펄 벅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 이 작품은 유명 여성 월간지 1966년 12월호의 “Special Fiction Feature” 코너에 단독으로 선보인 뒤 이듬해 초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sup>14)</sup> 원작이 뉴욕의 월간지에 처음 실리자마자 그달에 곧장 한국에서 줄거리가 소개되었고,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전에 표제를 달리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다.<sup>15)</sup> 조선일보 문화부 이규태 기자가 번역한 펄 벅의 최신작은 펄 벅의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자선 소설”로 명명되었다. 이규태는 여원사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성사시킨 펄 벅의 첫 번째 방한 때 대구와 부산 강연 및 경주 관광에 동행하며 보도한 인연이 있다.<sup>16)</sup>

미국에서 출간된 단행본은 하와이 태생인 마모루 푸나이의 삽화를 곁들였는데, 2년여 만에 6쇄, 25,000부를 돌파했으니 눈에 펄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적잖은 반향을 얻은 편이다.<sup>17)</sup> 정작 한국에서는 이규태에 의해 거의 동시적이라 할 만큼 발 빠르게 번역된 데 반해 단행본 출간 소식을 애써 외면했으며, 더 이상 이 작품을 언급하는 일조차 꺼리며 끝내 망각되었다. 펄 벅의 최신 동향을 관통하면서 홍보에도 매우 효과적인 법한데, 방한 기사나 대담, 소사회망원이나 『새해』에 관한 소식 어디에서도 이 책의 존재는 시사되지 않았다.

『매슈, 마크, 루크, 존』이라는 표제는 부산의 다리 밑 골숙에서 생활하

14) Pearl S. Buck, “Matthew, Mark, Luke and John,” *Good Housekeeping* 163(6), NY: Hearst, 1966.12; Pearl S. Buck, *Matthew, Mark, Luke and John*, NY: John Day, 1967.

15) 「펄 벅 여사의 '자선 소설」, 『조선일보』, 1966. 12. 15, 5면; 이규태 역, 「너희가 잠자는 곳에」, 『여원』, 138, 여원사, 1967.2, 302~315쪽. 필자는 그동안 이 작품이 한국에서 아예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이규태 번역의 존재를 알려 준 고려대학교 배상미 연구교수에게 감사드린다.

16) 이규태, 「펄 벅 여사 수행기」(전 3회) 『조선일보』, 1960. 11. 8. ~ 11. 10., 4면.

17) 피터 콘, 앞의 책, 565~566쪽, 700쪽.

는 혼혈 소년 4명을 가리키는데, 4대 복음서 저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기도 하다. 또 이 표제는 어린이의 취침 기도문 가운데 하나인 “Black Paternoster”나 전래 동요(nursery rhyme)를 일컫는다. 기실 이규태가 「너희가 잠자는 곳에」라고 옮긴 제명 역시 “Matthew, Mark, Luke and John, Bless the bed that I lie on”에서 따온 말이니 절묘한 번역이다. 다만 미군 병사가 혼혈 소년들에게 “너희가 잠든 곳에 축복 있으라(God bless the beds that you lie on)”며 내뱉는 말에는 깊은 한숨과 탄식이 섞여 있을 뿐이다.<sup>18)</sup>

고작 11세인 매슈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더 어린 아메라시안 소년들을 이끌며 아버지 역할을 떠맡는다. 그러다 미군 샘이 매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매슈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 생활에 곧바로 적응하지만 세 아이를 잊지 못한다. 샘 부부는 이웃을 설득해서 세 소년의 입양을 주선하여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도모한다. 동화다운 낭만적 결말이요 계몽적인 약점도 크지만 자기를 증언할 수 없는 아메라시안 소년에게 시선과 목소리를 부여하고 이웃의 공감과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점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작품이 겨냥한 독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특히 혼혈아 국제 입양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중산층이거나 혹은 그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빨강 머리 매슈는 네 명의 소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물려받은 아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산 시내에서 매슈를 버렸고, 그 뒤로 1년여 동안 다리 밑 굴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마크, 루크, 존은 애초에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다. 밝은 갈색 눈과 금빛 갈색 머리를 가진 예닐곱 살 정도의 마크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서울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으나 아버지가

18) Pearl S. Buck, op. cit., 1967, p.22; 이규태 역, 앞의 글, 305쪽.

미국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 궁지에 몰렸다. 마크의 어머니는 새로 만났다가 떠난 미군 병사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결국 미군 기지 앞 에다 한국어를 말할 줄 모르는 마크를 남겨 두고 사라진다. 마크라는 이름은 때마침 미군 기지 앞에서 동정과 적선을 기다리고 있던 매슈의 이름을 들은 미군 병사가 아무렇게나 붙여 주었을 따름이다. 일고여덟 살 정도인 파란 눈과 갈색 머리의 부랑아 루크는 시내에서 도둑질로 살아가다 매슈에게 떠넘겨졌다. 다섯 살도 안 된 회색 눈과 갈색 피부의 꼬마 준은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쓰레기통에서 먹을거리를 뒤지다가 찾아낸 새로운 형제다. 루크와 준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은 어느새 가족의 리더이자 보호자이며 실질적인 아버지가 된 매슈다.

네 명의 소년이 어머니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속할 뿐 ‘우리’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이방인(foreigner)이기 때문이다.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나 어머니의 가족에게도 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피를 타고난 아이들은 대문자 ‘Them, Those’, 단지 ‘그들(그것들)’이라는 대명사로만 불린다. 예컨대 ‘또 ‘그들(그것들)’ 중 하나’라거나 ‘우리는 ‘그들(그것들)’이야’라는 식으로만 발화될 뿐이다. 이규태는 이 말을 ‘튀기나 튀기 녀석’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대부분 “그렇구나”라거나 “너희와 같은 놈”, “저희네와 같은 족속” 등처럼 돌려 말했는데, 문맥상 자연스럽기는 해도 충분하지는 않다. 아이들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내던져진 것은 일차적으로 미군 아버지가 버린 탓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어머니가 버렸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우리’에 속하지 않는 ‘그들(그것들)’이기 때문이다.

펼 벉은 ‘그들(그것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을 냉정하지만 생생하게 그렸다. 실제로 매슈를 비롯한 ‘그들(그것들)’은 결코 고아가 아니며, 단지 고아가 되기 위해 버려졌을 뿐이다. 시내나 미군 기지 앞

에서 유기된 소년들은 전쟁고아나 길 잃은 미아가 아니라 한국인 어머니가 있는 혼혈의 혼외자 혹은 사생아다. 따라서 ‘그들(그것들)’이 미국인 아버지에게 속하거나 속해야만 한다는 전제야말로 명백히 모순이거나 동어반복이 아닐 수 없다. ‘그들(그것들)’이 애당초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혼혈이기 때문이다.

### III. 사라진 어머니, 지워진 여성들

『매슈, 마크, 루크, 존』은 ‘그들(그것들)’이 고아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왜 고아가 되어야만 하는지 말해 준다. 미군에 의해 남겨지거나 버려진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그들(그것들)’의 어머니도 미군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무려 60여 곳에 달하는 기지촌이나 그 주변에서 주한 미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방편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흔히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라 일컬어진 2만여 명(1962년 등록 인원)의 그녀들 역시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워진 자들이다.<sup>19)</sup>

『매슈, 마크, 루크, 존』의 초반부에서 매슈와 마크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유기하는 장면이 실감 나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펄 벅은 그녀들의 삶을 더 뒤쫓지 않는다. 그녀들은 여전히 부산이나 또 다른 도시를 전전하고 있을 터이지만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매슈 일행의 뒤를 보여주는 젊은 경찰이 등장하는데, 경찰은 매슈에게 다리 밑 굴속 생활 대신 고아원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그러나 매슈는 자신이 자라면 어차피 길거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크에게는 고

---

19)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 5~48쪽.

아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며, 루크가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 고아 원이나 감옥 말고는 ‘그들(그것들)’에게 갈거리만 허락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존재와 의미는 더 이상 환기되지 않는다. ‘그들(그것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나 그 대리자일 뿐이다. 그런데 우연히 미군 기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매슈에게는 미국 입양이라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마크, 루크, 존도 미군 기지 안의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혼혈아의 어머니가 고아원이나 입양 기관에 자식을 들여보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안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자살하는 희생을 통해서다. 매슈와 마크의 어머니들이 전자를 택했다면 필 벅이 1968년 마지막 방한 때 입양해서 그린힐스 농장으로 데리고 간 줄리 헨닝(구순이)의 어머니 경우에는 후자를 택했다.<sup>20)</sup> 1950년 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국제 입양 과정에서 그녀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sup>21)</sup>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구를 통해 국제 입양을 산업화하면서 오늘날까지 무려 20여만 명을 대규모로 송출한 최대 아동 수출국이다. 그중에서 혼혈아가 우선순위였던 것

20) 줄리 헨닝, 정혜연 역, 『개천에 핀 장미』, 고요아침, 2021, 116~124쪽.

21) 한국의 혼혈아 송출에 관해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여러 증언과 회고, 충격적인 조사 결과와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입양의 일단만 밝혀졌으며, 비인도적인 대리 입양 절차를 비롯해 적절한 요건이나 기본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갖가지 편법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양 과정이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 특히 혼혈아의 어머니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주의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캐서린 H. S. 문, 앞의 책, 2002; 토비야스 푸비네트 외, 제인 정 트렌카·줄리아 치니에르 오페라·선영 신 편,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집, 2012; 캐서린 조이스, 박준영 역, 『구원과 밀매: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의와 국제간 아동 입양의 현실』, 뿌리의집, 2014; 캐슬린 자숙 버퀴스트·M. 엘리자베스 봉크·김동수·마빈 D. 화이트 편, 유진월 역, 『한국 해외 입양: 초국가적 아동 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뿌리의집, 2015; 아리사 H.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공식 통계상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2,600여 명, 실제로는 수천 명에 이르는 혼혈아가 정책적·산업적으로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물론 그 뒤로도 한국 사회는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사업 차원에서든 혼혈아 국제 입양에 열을 올렸다. 한국전쟁 후 10여 년 동안 이미 수많은 혼혈아가 태어나 자라고 있었고, 그 후에도 아메리시안은 계속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그것들)’과 ‘그들(그것들)’의 어머니를 함께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입양 말고는 달리 없었다.

아쉽게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명하게도 펄 벅은 자식을 내다 버리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한국 여성들의 삶과 운명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펄 벅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합법적 성 착취와 매매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계급적 차별에 눈감는 대신 시급한 혼혈 아동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펄 벅의 휴머니즘은 국제 입양의 산업화와 호황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둔화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한국의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가담하거나 그것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셈이다. 『매슈, 마크, 루크, 존』에 대해서라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이듬해 내놓은 『새해』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펄 벅이 미래의 새로운 인종으로 지명한 혼혈아의 “아버지 나라” 찾기를 그린 『새해』는 한국인 어머니 김순희를 미친한 매춘부나 기지촌 위안부와 구별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했다. 『새해』는 유명 요정의 마담이 된 김순희를 신비롭고 이상화된 한국 여성으로 미화하며, 한국전쟁의 참상

22) 정부 통계와 언론에 보도된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에서 파악한 혼혈아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혼혈 입양아가 보고되는 모순이 생길 정도다. 『보건 사회 통계 연보』, 보건사회부, 1962;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74쪽 재인용; 노영순, 앞의 글, 7~8쪽.

과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다. 그녀는 전통 예술가이자 확고한 민족주의자로서 단호하게 순혈의 가부장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한다. 그녀가 아들의 양육비로 받은 4,000달러 수표는 동서양 양측에서 부계 혈통의 완전성과 가부장의 권위를 동시에 실현해 준다.<sup>23)</sup> 김순희에게나 그녀의 아들 크리스토퍼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다.

시종일관 백인 엘리트 여성의 입장에서 낭만적이지만 비틀린 해법을 이끌어 낸 『새해』에 견준다면 『매슈, 마크, 루크, 존』은 혼혈아 매슈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급격하게 실현해 보인다. 그런데 네 명의 ‘그들(그것들)’ 소년이 미군 기지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는 젊은 미군 샘에게 넘어간다. 샘은 매슈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해 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매슈의 운명이 바뀐다. 아동문학 특유의 단순화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때부터 백인 남성이자 주둔군 병사 샘이 명실공히 새로운 가부장이자 삶의 지배자가 되기 때문이다. 샘은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로 매슈 입양 소식을 간단히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해』에서 주인공 로라 대신 가부장인 남편이 혼혈의 친자식을 공개하는 마지막 장면과도 조응하는 대목이다.

#### IV. 오직 아버지에게만 속하는 사생아

펠 벅이 『매슈, 마크, 루크, 존』과 『새해』에서 혼혈아를 전면에 내세

23) 펄 벅, 장왕록 역, 『새해』, 민중서관, 1968, 199쪽~206쪽; 박진영, 앞의 글, 2024, 286~288쪽. 펄 벅은 3,000~4,000달러의 수수료와 항공료가 추가된 당시 해외 입양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1960년 대 말 1인당 GDP는 미국 약 4,300달러, 한국 약 200달러다.

우면서도 정작 주둔군 기지촌이나 성매매 여성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시아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시대적·계급적·젠더적 문제의식을 던진 펄 벅 특유의 장기가 왜 한국 여성의 재현에서는 발휘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실하거나 왜곡될까? 한국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만 속하는 법이라는 기묘한 말을 어찌서 끊임 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펄 벅이 한국의 단일 민족 신화나 순혈주의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은가? 중국이나 일본의 혼혈 문제를 관대하고 유연하게, 또 비판적 거리를 두며 성공적으로 그린 데 반해 유독 한국에 대해 비현실적일 만치 강박적인 펄 벅의 인식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의 가부장주의에 대한 펄 벅의 유난스러운 강조는 일면 진실이기도 하면서 다른 일면에서는 명백한 기만이거나 의도적인 회피다. 그것은 혼혈아를 부계에 귀속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여성과 아이를 모두 모른 채하는 동맹국 주둔군 남성의 책임 역시 방기하기 때문이다. 또 혼혈의 친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실을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혈주의 탓으로 돌리는 전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혹은 국제 차원의 남성 중심적 폭력이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펄 벅의 혼혈아들은 자신을 버린 남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을 뿐이다. 혼혈아 국제 입양이 책임 당사자들의 온정적 시혜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물론 매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는 없었다.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랑 함께하는 삶, 비록 그가 절반만 미국인 일지라도 반겨 줄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 또 절반은 한국인이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곳에서의 삶. 실제로 그들은 그 사실을 흥미롭게

여길 것이다.<sup>24)</sup>

매슈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이란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시대적 중압, 그리고 냉전 체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그 주둔군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에서 펼쳐진다. 매슈와 매슈 어머니의 존재를 모두 부정한 미국인 남성, 매슈에게 이름을 물려준 바로 그 남성에게 더 이상 주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펄 벅은 전후 15년 뒤에도 왜 뉴욕의 샘이 부산에 와 있는지, 매슈 뒤로도 어째서 새로운 아메리시안 소년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버려지는지, 여전히 부산에 남아 있을 매슈 어머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묻지 않는다.<sup>25)</sup>

펄 벅은 『새해』에서 두 명의 미군 장교와 워커힐을 방문한 로라의 시선을 통해 충분히 이 물음들을 던질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새해』는 미군 위안부 여성의 빈곤이나 사회적 억압보다 공공연한 거세와 살해 위협에 노출된 혼혈아들의 처지를 과장하며 긴급한 구조를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sup>26)</sup> 주둔군 기지의 위안부 여성과 혼혈아를 정면에서 소묘하는 것은 한미 양국을 막론하고 몹시 거북하거나 위협한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던질 도덕적 불편함과 부담을 펄 벅이 몰랐을 리야 없으며, 때마침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전격 참전한 데다가 남정현의 「분지(糞地)」(1965)가 반공법 위반 혐의

---

24) "Of course Matthew could not know all at once what the new life would mean, a life with a real father and a mother, a life in a new country where people would be glad he was American, even if he was only half, and where they would not mind that he was also half Korean. Indeed, they would find that interesting." Pearl S. Buck, op. cit., 1967, p.62. 이규태는 이 대목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절만 번역했다. “물론 매슈는 이 새 생활이 뭇을 뜻하는가를 당장은 몰랐다.” 이규태 역, 앞의 글, 313쪽. 이규태는 원문의 몇몇 문장을 생략하거나 조금 축약하여 번역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옮겼다.

25) 펄 벅은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미군 기지를 ‘회사(company)’, 샘을 단지 ‘미국인(American)’으로 조심스럽게 불렀다. 또 마크, 루크, 존을 수용하는 기관도 회사 내 ‘아동보호센터(The Child Care Center)’로 지칭했다.

26) 장왕록 역, 앞의 책, 187~194쪽.

로 작가의 구속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큰 파장이 일어난 마당이였다.  
『매슈, 마크, 루크, 존』에서 냉전의 그림자가 지워진 것은 불가피했다.

혼혈아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필수적인 물음을 생략함으로써 샘과 루스 부부, 그리고 매슈는 냉전의 책임이 실종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한다. 펄 벅은 국적도 호적도 갖지 못한 ‘그들(그것들)’이 한국이라는 가부장적 분단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이 아니라 국제 입양을 통해 주한 미군 출신의 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적 가족을 구성하는 방향, 그래서 냉전 시대의 미국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재생산하고 그 정치적 역능을 재확인하는 길을 제안한 셈이다.

그렇다면 『매슈, 마크, 루크, 존』의 해피엔드를 편의적인 감상주의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 펄 벅이 한사코 책임을 돌린 한국의 가부장주의는 기실 『한국서 온 두 처녀』(1951; 1953)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후 미국의 가족주의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노골적으로 말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서 온 두 처녀』는 월간지에 연재한 뒤 단행본으로는 출간하지 않은 채 펄 벅이 작품 목록에서 제외했거니와 줄작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한국과 한국 여성에 관한 인식의 기원 혹은 효용을 펄 벅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젊은 백인 여성 자매가 한국전쟁 때문에 귀국했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다. 그녀들은 순종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목소리로 전후 미국인의 이기주의와 속물적 욕망을 타매하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미국적 가치관과 서구의 물질주의적 유혹에 맹렬하게 맞선다. 백인의 피부를 가진 그녀들의 정신세계는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신성화된 한국인의 것이다.<sup>27)</sup>

『한국서 온 두 처녀』가 발표된 시점에서든 소설 속 배경에서든 한창 진행 중이던 한국전쟁은 멀찍이 후경으로 물러나 간접적으로만 언급된

---

27) 박진영, 앞의 글, 2024, 280-285쪽.

다.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삶과 운명에 드리운 냉전의 폭발과 장차 닥쳐 올 여파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대신 젊은 남녀 간의 애정과 이상적인 가족 윤리가 초점으로 떠오른다. 요컨대 펄 벅은 백인 중산층 여성의 한국적 가부장주의를 도구로 삼아 전후 미국의 가족주의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한 일련의 시도가 한국의 보호자이자 세계 가부장으로서 미국의 역사적 책무를 역설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를 거쳐 냉전 시기의 아메리시안 문제와 맞부딪친 『매슈, 마크, 루크, 존』과 『새해』에 이르러 증폭되었다.

## V. 미국의 가부장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펄 벅의 소설이 한국에서 놀라운 인기를 누린 것은 어쩌면 바로 그가 부장주의의 교묘한 친연성 덕분일지 모른다. 표면적으로 현모양처 모델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냉전 시대의 미국 중심주의에서 배태된 이데올로기가 전후 한국에서 휴머니즘이나 모성에 신화와 절묘하게 부합한 것이 아닐까? 그사이 한국 독자들은 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향해 분투해 온 펄 벅의 기억을 잇기 시작했다. 따라서 펄 벅 열풍의 이면을 새삼 숙고함으로써 시대적 오독과 문화사적 소외에서 건져 내는 이야기말로 펄 벅의 정당한 정치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터다.

특히 한국과 한국인을 다룬 펄 벅의 작품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전후 펄 벅의 값진 공헌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는 아시아 여성 재현과 혼혈의 상상력은 냉전 체제 최전선의 주둔군과 반공주의 군부 독재 국가라는 남성 동맹적 가부장들 사이에서 무력했다. 매슈를 비롯한 ‘그들(그것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가부장들의 대의명분은 기지춘 여성과 혼혈 아동

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폭력, 그리고 반인권적인 국제 입양 산업에 대한 면책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펄 벅은 전후의 미국인에게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친을 촉구했지만 오늘날 한국인을 향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재 진행형의 문제를 던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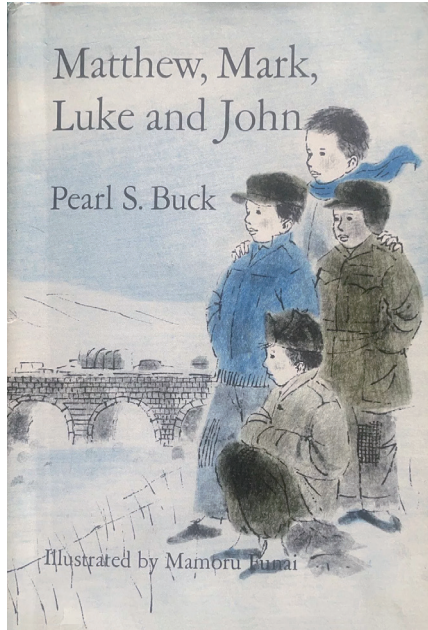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아메라시안을 세계 시민적 태도로 포용하려고 한 『매슈, 마크, 루크, 존』에 스며든 미국의 가부장적 책임 의식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곧 첨예한 냉전 질서를 배후로 삼아 성장해 온 한국 사회의 역사성과 빈틈없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소명과 역할을 전제로 한국의 근대 가족사를 재현하려고 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역시 객관적으로 다시 읽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어쩌면 한국에서 『매슈, 마크, 루크, 존』을 도외시한 까닭과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를 무작정 상찬해 온 이유가 서로 다르지 않을 터다. 펄 벅 소설은 물론이려니와 펄 벅에 대한 한국인의 열기 또한 냉전이 낳은 엄연한 역사적 소산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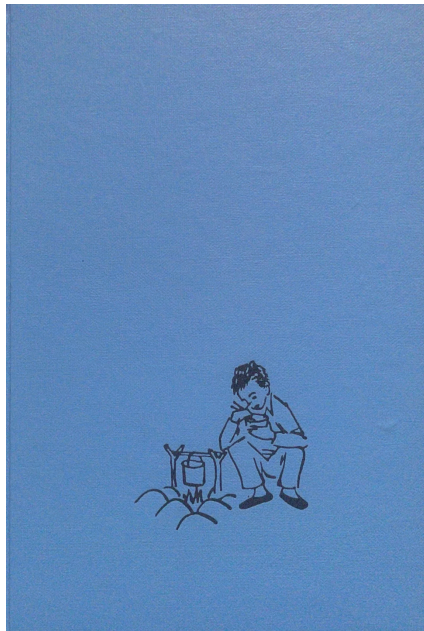
도1. "Matthew, Mark, Luke and John"(1966.12) 필자 소장



도2. 이규태 역, 「너희가 잠자는 곳에」(1967.2) 국회도서관 소장



도3. *Matthew, Mark, Luke and John*(1967, 더스트 재킷) 필자 소장



도4. *Matthew, Mark, Luke and John*(1967, 북 커버) 필자 소장

표1. 펄 벅 아동문학 작품(1932~1973)

*The Young Revolutionist*, NY: Friendship Press; 1932, pgs.182.

· *The Young Revolutionist*, London: Methuen, 1932, pgs.187.

*Stories for Little Children*, NY: John Day, 1940, illustrated by Weda Yap, pgs.[48].

*When Fun Begins*, London: Methuen, 1941, illustrated by Elizabeth Campbell, pgs.48.

*The Chinese Children Next Door*, NY: John Day, 1942, illustrated by William Arthur Smith pgs.64.

· *The Chinese Children Next Door*, London: Methuen, 1943, illustrated by Katharine Tozer, pgs.54.

*The Water Buffalo Children*, NY: John Day, 1943, illustrated by William Arthur Smith, pgs.60.

*The Dragon Fish*, NY: John Day, 1944, illustrated by Esther Brock Bird, pgs.63.

· *The Dragon Fish*, London: Methuen, 1946, illustrated by Joan Kiddell-Monroe, pgs.69.

*Yu Lan: Flying Boy of China*, NY: John Day, 1945, illustrated by Georg T. Hartmann, pgs.60.

· *Yu Lan: Flying Boy of China*, London: Methuen, 1947, illustrated by Bridget Moss, pgs.40.

*The Big Wave*, NY: John Day, 1948, illustrated with prints by Hiroshige and Hokusai, pgs.61.

*One Bright Day*, NY: John Day, 1950, pgs.60.

· *One Bright Day and Other Stories for Children*, London: Methuen, 1952, illustrated by Joan Kiddell-Monroe and others, pgs.136.

*The Man who Changed China: The Story of Sun Yat-sen*, NY: Random House, 1953, illustrated by Fred Castellon, pgs.185.

· *The Man who Changed China: The Story of Sun Yat-sen*, London:

- Methuen, 1955, illustrated by John Woodbridge, pgs.118.
- The Beech Tree*, NY: John Day, 1954, illustrated by Kurt Werth, pgs.63.
- Johnny Jack and His Beginnings*, NY: John Day, 1954, illustrated by Kurt Werth, pgs.47.
- Christmas Miniature*, NY: John Day, 1957, illustrated by Anna Marie Magagna, pgs.40.
- The Christmas Mouse*, London: Methuen, 1958, illustrated by Astrid Walford, pgs.32.
- The Christmas Ghost*, NY: John Day, 1960, illustrated by Anna Marie Magagna, pgs.42.
- The Christmas Ghost*, London: Methuen, 1962, illustrated by Edgar Norfield, pgs.45.
- Welcome Child*, NY: John Day, 1963, photographs by Alan D. Haas, pgs.96.
- The Joy of Children*, NY: John Day, 1964, based on the photographic exhibit prepared for the 1960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and Youth, "These are Our Children," pgs.211.
- The Big Fight*, NY: John Day, 1965, illustrated by Mamoru Funai, pgs.47.
- The Little Fox in the Middle*, NY: Collier Books, 1966, illustrated by Robert Jones, pgs.31.
- Matthew, Mark, Luke and John*, NY: John Day, 1967, illustrated by Mamoru Funai, pgs.80.
- The Chinese Story Teller*, NY: John Day, 1971, illustrated by Regina Shekerjian, pgs.40.
- A Gift for the Children*, NY: John Day, 1973, illustrated by Elaine Scull, pgs.152.
- Mrs Starling's Problem*, NY: John Day, 1973, illustrated by Leslie Morrill, pgs.31.

표2. 한국 관련 펄 벅 소설과 번역(1951~1968)

“Love and the Morning Calm,” *Redbook* 96(3)~96(6), NY: McCall, 1951.1~4.

- 장왕록 역, 김용수 삽화, 「사랑과 한국」(전 92회), 『평화신문』, 1952.8.16~11.24, 2면.
- 장왕록 역, 『한국서 온 두 처녀』, 학우사, 1953.9.5; 진명문화사, 1959, 222쪽.
- 최용진 역, 『사랑이 읊트는 새벽』, 삼중당(펄 벅 걸작 선집 14), 1961.11.15; 1962.11.10, 269~364쪽.

*The Living Reed*, NY: John Day, 1963, pgs.478.

- 안동림, 「살아 있는 갈대」(전 31회), 『경향신문』, 1963.9.10~10.19, 5면.
- 라디오 낭독,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기독교 방송, 1963.9.30~미상(매회 10분, 약 80회).
- 장왕록 역,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삼중당, 1963.9.15(초판); 1963.10.10(중판); 1963.11.25(중판), 475쪽(김성복 표지).
- 장왕록 주해, *The Living Re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육민사(현대세계영문학총서 1), 1963.10.20, 560쪽.
- 이윤석 역, 『바람에 시달려도 갈대는 살아 있다』, 평화문화사, 1967.11.5, 351쪽.
- 이정환 역,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평화문화사, 1972.6.15, 351쪽.
- 박도연 역,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문해출판사(신세계문학전집), 1978.1.10, 351쪽.

“Matthew, Mark, Luke and John,” *Good Housekeeping* 163(6), NY: Hearst, 1966.12; *Matthew, Mark, Luke and John*, NY: John Day, 1967, illustrated by Mamoru Funai, pgs.80.

- 이규태 역, 「너희가 잠자는 곳에」, 『여원』 138, 여원사, 1967.2, 302~315쪽.

*The New Year*, NY: John Day, 1968, pgs.255.

- 장왕록 역, 『새해』, 민중서관, 1968.9.10, 335쪽.

## 참고문헌

- 김미연, 『『대지』와 식민지 조선의 문학 장: 번역, 비평, 독서의 교차』 『사이間SAI』 3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
- 김양선, 『한국 전후 여성의 문학·교양과 펄 벅의 위치』 『여성문학연구』 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 김종욱, 『번역된 토착주의: 1930년대 동아시아 지평에서의 펄 벅』 김재용·이혜영 편,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소명출판, 2016.
- 노영순, 『아메리시안의 존재 양태와 국제 입양(1945~1975): 베트남-미국 혼혈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7, 역사교육연구회, 2021.
-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 ,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朴珍英, 『家族史の東アジアの想像と翻譯: パルバックと林語堂の小説の韓国語への翻譯経緯』 『朝鮮學報』 239, 天理: 朝鮮學會, 2016.
- 박진영, 『동아시아 가족사의 상상과 세계문학 번역』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 , 『펄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 『여성문학연구』 6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70~308쪽.
- 아리사 H.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 양아람, 『1960년대 펄 벅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대지』의 작가, 혼혈아의 어머니』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
- 임선애, 『서구 작가의 한국 쓰기: 펄 벅의 『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 『한국사상과 문화』 4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봄, 2019.
-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줄리 헤닝, 정혜연 역, 『개천에 핀 장미』, 고요아침, 2021.
-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 캐서린 조이스, 박준영 역, 『구원과 밀매: 복음주의 기독교의 선의와 국제간 아동 입양의 현실』, 뿌리의집, 2014.
- 캐슬린 자숙 버퀴스트·M. 엘리자베스 봉크·김동수·마빈 D. 화이트 편, 유진월 역, 『한국 해외 입양: 초국가적 아동 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뿌리의집, 2015.
- 토비아스 푸비네트 외, 제인 정 트렌카·줄리아 치니에르 오페라·선영 신 편, 뿌리의집 역,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집, 2012.
-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 허정애, 「펄 벅과 혼종 우월성: 『숨은 꽃』과 『새해』에 재현된 ‘아메리시안’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138, 한국영미어문학회, 2020.
- 鈴木紀子, 「『幻の映畫』をめぐって: 『大津波』日米合同映畫製作とパール・バック 『大妻レヴュー』 48, 東京: 大妻女子大學英文學會, 2015.
- ,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 『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東京: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 목차

---

- I. 『대지』의 보편성에 대한 접근
- II. 한국문학의 해외진출론—한국 펜(PEN)에 대한 모윤숙의 회고
- III. 1950-60년대 냉전 아시아 담론과 펄 벅의 관문점 시찰
- IV. “나는 한국 역사를 읽고 연구했습니다”—펄 벅의 방한과  
『살아있는 갈대』
- V. 소결

# 펼 벉과 냉전 아시아

## - 냉전기 펼 벉의 방한과 문학을 중심으로 -<sup>1)</sup>

박연희<sup>2)</sup>

### 1. 『대지』의 보편성에 대한 접근

TV드라마 <왕룽일가>(1989)와 『대지』(The Good Earth, 1931)의 상관성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박영한의 소설 원작(1988)으로 제작된 <왕룽일가>는 땅에 대한 애착, 근면성, 구두쇠 근성까지 『대지』의 주인공 ‘왕룽’을 연상해 부인 ‘오란’과 ‘왕룽일가’라는 원제까지 유사하게 결정했다.<sup>3)</sup> <왕룽일가>에 나오는 서울 근교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사회에서 서울 중심의 경제문화권으로 물질적, 정신적 변화가 확연한 공간이다. 1980년대 후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반농반도의 공간은 한국 현실을 반영하는데 그림에도 여기에 『대지』의 인물군이 참조된 것은 시대적 급변 속에서 가장 취약한 농촌사회의 단절과 연속 측면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영한이 이 소설의 중심을 “『대지』에 나오는 왕룽”으로

---

1) 스탠포드대학 후버 아카이브(Hoover Institution Archive)에 소장되어 있는 아시아재단의 컨퍼런스 분야 중 제29차 도쿄 펜대회 관련 파일(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Tokyo No:P-89, The Asia Foundation Papers, Hoover Institution Archives)을 입수해 펜클럽 지원의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논의는 저서 『제3세계의 기억』(소명출판, 2020)에서 다른 것임을 밝힌다.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3) 「창작의 고향(8) 박영한의 『왕룽일가』」 『경향신문』, 1992. 9. 6.

설정한 배경에 대해 기왕의 작품 이미지를 빌려옴으로써 “보편성을 획득 하는데 효과적<sup>4)</sup>”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요컨대, 한국문화에서 『대지』는 세계문학의 정전(canon)과 동시에 사회변화의 과도기에 놓춘,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상상할 때 익숙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문화 표상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다. 미국소설이자 중국을 다룬 『대지』가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적 범주로 인식된 데에는 ‘동양’이라는 선명성 속에서 공유하는 전후 역사와 정치적 감각이 내재한다.

미국의 중요한 현대 작가는 거의 모두 지역주의 작가에 속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물질문명이 세계에서 최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큰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판에 박힌 기계문명의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중략) 다른 지역 작가들이 각자 미국 내 시골 지방을 그려냈듯이 펄 벅은 미국인에게는 낯선, 신화의 대지인 중국을 묘사했던 것이다. (중략) 특히 여사가 그 작품을 통하여 미국인에게 동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공헌은 역사적인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참된 지역주의 작가는 일(-)지역을 초월하는 것이며 펄 벅은 확실히 그러하다.

「『대지』 역서」 부분<sup>5)</sup>

장왕록은 『대지』(삼중당, 1960)를 번역하며 펄 벅(Pearl S. Buck)의 문학을 지역주의 장르로 규정한다. 물질문명의 획일화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며 지역주의가 흥행하는 미국문학의 흐름에 『대지』를 위치시킨 것이다.<sup>6)</sup> 인용문은 미국문학으로서 『대지』의 고유성과 문학사적 의의에

4) 김윤식, 김선학 좌담, 「체험을 통한 진실에 폭넓은 공감」 『조선일보』, 1988. 2. 23.

5) 펄 S. 벅, 장왕록, 한무숙 편, 『대지의 신화』, 신구문화사, 1960, 211, 212쪽.

대한 역사 장왕록의 평가 부분이다. 『대지』를 통해 미국문학사에 삽입된 “동양에 대한 관심”이란 특히 역자가 강조하려는 의제이다. 지역주의는 다원적, 개방적인 태도에 따라 인종, 민족, 젠더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펄 벅의 경우 “참된 지역주의 작가”로서 “일(-)지역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고평된다. 즉 1960년에 『대지』에 대한 관심은 소설의 배경인 ‘중국’에 있기보다 미국, 동양, 더 초월적인 지역주의에 대한 이념과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지』가 수용된 것은 일본의 경우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 발발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였지만<sup>7)</sup> 한국은 시차를 두고 펄 벅의 정치, 문화적 위상이 고착화되면서부터였다. 해방기에 펄 벅은 동서협회(The East and West Association, 1941)를 중심으로 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여성 명망가로서 알려지기 시작해<sup>8)</sup> 1950, 6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내에서 한국지식인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동서문화협력의 매개자로서 각광을 받는다. 가령 김말봉의 경우 미국에서 펄 벅을 만난 사실만으로 ‘한국의 펄 벅’으로 불리며 문단 내 새로운 입지가 마련될 정도였다.<sup>9)</sup> 김말봉은 미국무성의 초청 일정에 따라 펄 벅을 만났다는 소회를 한 좌담회에서 밝히며 당시 미국 지식인의 동양에 대한 관심도의 급증, 그중 펄 벅의 남다른 동양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전달했다.

6) 『대지』는 미국문학, 세계문학(노벨문학상)으로서의 펄 벅의 위상을 초과할 만큼 동양성에 한정해 이해되는 한편, 1960년대 들어 영화 <대지>(시드니 프랭클린, 1937)가 한국에 뒤늦게 상영되면서 농촌 영화로서 화제성이 있었음은 상기할 만하다. 『아메리칸리즘의 본령 미국을 얘기하는 좌담회(3)』 『동아일보』, 1957. 7. 11. ; 『<대지> 미(美) 공감주는 농민의 생활상』 『조선일보』, 1961. 4. 12. 등

7) 양아람, 『1960년대 펄 벅의 일본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33쪽.

8)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92쪽.

9) 이선미, 『미국문명의 선전과 '자유' 개념의 교정을 위한 소설-김말봉 『방초탑』의 사회정치적 효과 연구』 『한국학연구』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103쪽.

이 무렵 아시아 지역은 경제적·문화적 후진성의 공간으로 상상되고 세계 전후의 이념 혹은 감각을 통해 냉전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론적 인식으로 부각된다. '동양의 관념 형성도 마찬가지다. 가령 1950년대 동양문화론에서는 후진 아시아 지역이 처한 모순과 복잡성에 주목하여 그 공통된 연원을 살피는 가운데 중국문명의 폐해를 검증하는 시각이 잇따랐다. 즉 반공주의적 발전주의의 전망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의 동양적 정체성은 서양/동양의 대립항보다 냉전 블록에 따라 선명해진다.<sup>10)</sup> 따라서 『대지』의 수용사는 번역의 판본과 정량적인 분석만으로 충분치 않은 지점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소설의 배경인 중국이 '전근대 아시아'의 표상으로 전회됨에 따라 세계문학으로서 '동양적인 것'에 대한 논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동양적인 것'이 세계화, 보편화되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개괄적이거나 냉전기 펴낸 책의 방한을 살펴 세계 각국의 문학을 '직접' 대면한다는 한국지식인의 감각과 경험을 분석하고 그것이 전후 한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살피기 위해 펴낸 책이 방한 직후 발간한 한국 소재의 장편 소설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 1963)을 분석할 것이다. 이 소설은 『대지』와 달리 민중 서사가 아닌 왕가 및 독립군의 정치적 민족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이러한 정치적 모티프는 그의 방한과 창작 기간이 공교롭게도 혁명과 쿠데타의 과도기였음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살아 있는 갈대』의 정쟁 소재는 당시 미국계 한국학의 형성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냉전사의 지역적 맥락을 접목시켜 펴낸 책의 전후 한국 체험과 그 문학적 표상을 다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지의 세계'로 회수되지 않는 1960년대 펴낸 책의 아시아적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려는 것이다.

10)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현실문화, 2008, 15, 117~121쪽.

## II. 한국문학의 해외진출론—한국 펜(PEN)에 대한 모운숙의 회고

노벨문학상(1938)을 수상한 지 30여 년을 훌쩍 넘겨 1960년에 한국을 방문한 노년의 펄 벅은 “위대한 대지 같은 어머니<sup>11)</sup>”로서 대중에게 각인된다. ‘어머니’라는 펄 벅의 수식어는 미국 엘리트 여성임에도 주변부(비서구권)에 관심을 둔 채 창작과 사회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대표작 『대지』와 연접하여 생산, 포용, 희생의 모성화된 심미적 형상이 부여된 것이다. 1960년 11월에 펄 벅의 첫 번째 내한은 여원사와 조선일보사의 초청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미·일 합작영화 <쓰나미>의 시나리오 작가로 방일한 일정(1960.8)과 맞물려 1960년 11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평전』에 따르면 펄 벅은 일본에 장기간 머물면서 ‘일본 혼혈 고아의 어머니로 널리 알려진 사회 복지사 미키 사와다와 접촉해 혼혈 아동에 대한 구호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미국 혼혈 아동의 실태를 파악한다.<sup>12)</sup>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펄 벅의 방한 일정에서 향후 펄벅재단 한국지부(1965) 및 소사회망원(1967)의 설립자로서 주목되는 지점은 없었다.<sup>13)</sup> 그는 학교(이화여고, 이화여대), 협회 및 기관(영문학회, 대한어머니회, 예술원, 펜클럽, YMCA, 재한미국부인, 아세아황실협회, USIS 등), 언론사(영남일보, 국제신보사 등) 주최의 강연, 좌담회, 파티에 참석했고 한국의 고도(古鄣) 경주와 관문점을 둘러보았다. 흥미롭게도 관문점 방문에 대해 한 기사는 “휴전선에서 여사는 다시 한 번 『대지』의 제4부<sup>14)</sup>를 집필하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펄 벅은 내한 직후에

11) 고연기, 「펄벅 수행기」 『여원』, 여원사, 1961. 1., 153쪽.

12) 피터 콘, 이한음 옮김, 『펄벅평전』, 은행나무, 2006, 545쪽.

13) 1960년에 펄 벅의 첫 번째 방한은 소위 ‘여성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으로 의미화 된다. 펄 벅의 내한사, 수용사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연구로 김양선, 「한국 전후 여성의 문학·교양과 펄 벅의 위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김은하, 「젠더화된 재건과 펄 벅의 방한이 갖는 의미」 『펄벅의 세계』, 부천문화재단, 2003 등이 있다.

14) 「여적」 『경향신문』, 1960. 11. 2.

평안북도, 금강산, 강화도 지역과 고도의 유명 사찰을 『살아있는 갈대』의 배경으로 삼는다. 『살아있는 갈대』의 창작 후기처럼 내한 당시 한국에 대한 “갓가지 고증을 취재”<sup>15)</sup>했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의 첫 번째 방한은 전후 신생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필 벽의 방한 기사의 대부분이 패션, 습관, 인품의 인물 에피소드 중심이었음은 한국에서 그의 위상이 단순히 미국문학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유년기와 여기서 촉발된 『대지』, 아시아지역 혼혈아 구호사업 등의 독특한 이력은 미국문학과 세계문학 내의 동양적 관심을 목도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한국 펜클럽 간담회에 초청된 필 벽은 시종일관 “친근한 동양의 어머니”로 묘사된다. 이 같은 친족의 관계성을 매개하여 “세계문단의 고이”<sup>16)</sup>에 비유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문학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필 벽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필 벽 단편집』(을유문화사, 1962)을 번역했던 주요섭도 「해설」을 남기며 펜클럽 간담회를 필 벽과의 중요한 인연으로 회고했는데 곧 그의 내한은 한미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닌다.

미 공보원 측의 후원으로 역간된 필 벽의 문학과<sup>17)</sup> 세계문학전집 붐, 방한 중에 인물론으로 드러난 대중적 관심은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문화 원조와 국제기구와의 직접 교류 속에 해외진출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요컨대, 1950~60년대는 문화냉전기라고 특화될 만큼 미국의 공보, 선전 활동이 치밀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된 시기이다.

15) 「세계문단에 소개된 한국」 『경향신문』, 1963. 9. 9.

16) 「어릴 때의 향수는 영원한 것」 『조선일보』, 1960. 11. 4. 1960년 11월 2일 펜클럽 주최 필 벽 여사 초청간담회에 대한 기사이다.

17)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에서 ‘외국도서 번역 간행사업’ 5개년 계획(1953~1957)을 기획하며 미국 도서의 번역서를 대규모로 배포하였다. 필 벽의 번역 과정 역시 1950년대부터 지속된 미국의 문화냉전 영향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주선, 「주요섭 번역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70~73쪽.

체육, 교육, 사회과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계를 총평할 때 “국제교류면”<sup>18)</sup>이 중요한 성과 지표로 논의될 정도였다. 한국예술에 대한 우수성과 자부심이야말로 국제성 인식과 감각의 한 축이 된다. 1950년대부터 축적된 국제교류 경험은 제국주의 시대의 중심과 주변, 식민과 피식민 등 위계화된 구조와 일방적인 참여가 아닌 쌍방향적 교류의 가능성으로 내면화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론 또는 문학수출론은 1960년대에 들어 탈식민적 문화개혁의 과제로서 보다 분명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국 문학의 해외수출의 당위성이 “외화획득을 이유로 오징어가 받은 대우”만도 못하다는 노골적인 비판, “번역국의 설치”를 촉구하는 주장처럼 해외에 한국문학의 번역장이 형성되고 해외 출간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sup>19)</sup> 펄 벅의 초청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처럼 학계, 언론, 문단에서 한국문학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던 때와 맞물린다. 모윤숙이 펄 벅 내한에 대한 소회를 밝힌 글에서도 이와 비등한 입장이 명료하게 드러나 주목된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어느 기회에 그를 모셔올 수가 있었으면 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그때에도 일본까지 와있는 그를 여기까지 초빙하기는 왜 그리 수속 절차가 까다롭고 당국의 몰이해 등이 심했는지 마음 먹은대로 되지를 앓았다. (중략) 그가 한번 우리 한국의 역사나 땅에서 받는 감흥이 있을 때 한국은 세계인에게 다시 두터운 이해와 친밀 속에서 소개될 것이기에 나는 그가 한국에 와주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른다. 과거 15년간의 한국**

18) 「을미년문화계 회고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좌담회(4)」 『경향신문』, 1955. 12. 22.

19) 유근주, 「문화개혁의 과제-문학의 해외진출을 촉진시켜라」 『경향신문』, 1960. 5. 12. ; 이승녕, 「제이 공화국 첫 한글날에」 『경향신문』, 1960. 10. 9. ; 주요섭, 「우리문화계의 나아갈 길」 『조선일보』, 1960. 1. 1.

**의 문화교류**는 거의 무에 가까울 정도로 영성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문화가 그만치 침체했고, 좁아졌고, 암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한숨짓는 현실만으로는 우리의 장래가 더욱 암담하여질 것이니, 세계의 지성인과 예술가를 많이 불러 들여 모르던 것을 알고, 잘못 알았던 것을 깨우쳐서 **활발한 문호 개방에 전 정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지금부터라 하겠다. 이번 펄 벅 여사의 내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환영하는 첫 손님이라 하겠다.** (강조-인용자)<sup>20)</sup>

인용문은 모운숙이 펄 벅의 첫 번째 내한을 앞두고 그에 대한 회고와 기대를 언급한 글이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이전에 펄 벅을 초청할 기회가 있었다는 대목이다. 모운숙이 아쉽게 여긴 “어느 기회”란 1957년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The Korea PEN, 1954. 이하 한국 펜)에서 주최한 외국문인 초청 행사(1957.9.13.~9.21.)를 가리킨다. 한국 펜 위원장인 모운숙은 1950년대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외국문인 초청 행사를 상기하며 한국 펜을 중심으로 한국 문인의 국제행사 참가, 외국 문인과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 국제적 문화외교의 발전과 한계를 암암리에 드러낸다. 그런 연유에서 펄 벅에 대한 모운숙의 환영사는 “문화교류”와 “문호개방”을 강조함으로써 펄 벅 내한에 문화외교론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펄 벅의 역할론에 대한 모운숙의 구상에는 한국문학의 후진성 내지 세계 주변부로서의 종속적인 위상이 역전되는 듯한 한국 펜의 새로운 경험이 내재해 있다.

펜클럽의 전후 한국문학에 관한 담론과 표상은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1954)의 홍보 전략—“외국 펜클럽 회원이 한국을 볼 것이다”<sup>21)</sup>—과 무관하지 않았다. 전후에 한국 펜의 국제활동이 보다 적극적인일

20) 모운숙, 「펄 벅 여사를 맞이하며」, 『여원』, 1960. 11., 66~67쪽.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재단의 원조 프로그램에서 비롯한다.<sup>22)</sup> 한국 펜은 아시아재단의 적극적인 여비 지원 덕분에 제27차 비엔나 세계작가 회의에서 정식으로 국제 펜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외 문학(인) 교류의 공식적인 채널이 되었다. 아시아재단은 자유아시아위원회(Committee for Free Asia, 1951)로 출범해 냉전기에 아시아 주요 국가의 재건사업과 반공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했던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피원조국에 사무실을 마련해 각종 문화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고,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아시아재단의 원조 목적은 아시아재단과 비슷한 이념과 목적을 지닌 국제 원조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시아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 그 원조 시스템은 무엇보다 한국문학의 국제적 저변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및 소개가 제도적으로 인착되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재단의 원조와 개입을 통해 1954년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가 창설된 이후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번역출판의 문화외교론이 쟁점화된다.<sup>23)</sup> 이를 염두에 둘 때 펄 벅의 수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동서문화의 관계성에 있다.

21) LEE Eui-Kwan to The President, The Foundation, September 3, 1957, PEN CLUB KOREA Organization, BOX NO.P-60, The Asia Foundation Paper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p.5. 동경 펜대회 때의 홍보물 제작에 130,000환 비용 요청. Laurence G. Thompson to Mr.Zong In-sob, President The Korean P.E.N, June 4, 1957, PEN CLUB KOREA Organization, BOX NO.P-60, The Asia Foundation Paper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p.6.

22) 아시아재단, 『The ASIA FOUNDATION IN KOREA 1964』, 아시아재단, 1964, 11쪽.

23) 한국 펜은 창립 멤버 대부분이 식민지기 외국문학 전공자라는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만큼 외국문학과 한국문학 간의 상호 번역이나 소개가 수월한 편이었다. 이로 인해 전후 문학장 안에서 주류에 영합하지 않는 국제기구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계작가회의에 참가해 민요, 그림, 공예품부터 영역된 문학작품까지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제문화교류의 실질적인 통로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대회 참석 위주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재평가에서 한국문학의

### III. 1950-60년대 냉전 아시아 담론과 펄 벅의 판문점 시찰

한국문학 속에서 펄 벅은 “동서문화이해의 징검다리”, “동과 서의 (...) 타협점”<sup>24)</sup>의 위상으로서 강조된다. 이 장에서는 펄 벅 수용사의 배경으로서 동서문화교류에 대한 담론 및 실천의 과정을 살피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9차 일본 국제펜대회(1957)에서 통과된 〈번역에 관한 결의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동양문학 수용의 필요성과 작품 선정, 홍보, 원조 등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79개국이 공동 결의한 「동서문화교류 십년 계획 실천안」(1957~1966)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25)</sup> 유네스코는 동서문화교류사를 재평가하는 학술회의를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유네스코 사업에 대한 가맹국의 협조와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런 이유로 1956년 일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주회의(아시아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대표자회의, 1956. 2.28~3.3)는 고무적인 절차였다.<sup>26)</sup> 동서문화론, 동서문

---

해의 소개가 뚜렷하게 진척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61년부터 을유번역문학상(개칭 한국번역문학상)이 펜클럽으로 이관되자, 외국문학의 번역과 수용에 편향된 교류방식을 비판하며 한국문학의 해외수출을 우선시하자는 논의가 부각된다. 영문판 『한국 단편소설 선집 Collected Short Stories from Korea』(1961), 영문기관지 『The Korea PEN』(1962) 등을 발간하면서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소개에 역점을 둔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제문화교류와 PEN』 『경향신문』, 1961. 11. 3. ; 양주동, 『번역문학상 소감』 『경향신문』, 1957. 11. 22. ; 『좌담-갑오면 문화계의 회고(상)』 『경향신문』, 1954. 12. 16. 하지만 한국 펜이 외국 문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관지 외의 다른 해외 출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24) 김병익, 「동서의 조화 「대지」서 탐구 작고한 미작가 펄 벅 여사의 생애」 『동아일보』, 1973. 3. 7. ; 「동서문화의 타협점」 『조선일보』, 1960. 10. 14.

25)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주로 교육, 과학 및 문화 분야를 담당하고 창설 초기부터 정보와 매스미디어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전체 활동 중 출판문화 교류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다. 국제 펜클럽은 유네스코 산하의 문화활동 전담 기구로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29차 일본 펜대회는 유네스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인 「동서문화교류 십년 계획 실천안」(1957~1966)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였다. 유네스코의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산하단체인 동서문화진화론연구회(파키스탄), 동아문화접촉사연구회(일본), 아세아문화개념연구회(호주), 동서문화교류사연구회(인도), 동서양발전사연구회(일본) 등의 학술심포지엄과도 연속성을 지닌다. 장내원, 「국제문화의 새자세」 『동아일보』, 1957. 4. 25. ; 「문화세계의 신어명 - 동서문화교류십년계획에 대하여」 『동아일보』, 1957. 11. 16.

26) 1956년에 아시아재단 총재인 로버트 블룸(Robert Blum)이 수신한 보고문서에는 국제 펜의 비가입국

화비교론, 동서문화교류론, 더 나아가 하나의 세계론은 냉전질서를 구축하는 가운데 전파되었고, 동서교류에 대한 결의안은 일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주회의에서 통과되고 “소련 블록을 제외한 아시아인의 단결”<sup>27)</sup>을 문화외교의 측면에서 합의하고자 동서의 상호협력과 교류, 국제평화기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네스코 관련 번역사업에 대한 원조계획과 비정부기구로서의 연석위원회 구성은 런던 펜대회(1956)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사무국장 데이비드 카버(David Caver)는 펜클럽이 유네스코의 사업에 합류한 후 국제사회의 원조가 증가했다는 보고연설 중에 도쿄 펜대회의 주제와 일정이 확정된다. 이 시기에 증가한 미국의 원조는 미소 냉전의 패권적 대외정책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냉전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을 양 진영의 세력권 안으로 재편입시키는 중요한 계기와 경로였다. 전후 아시아에서 발생할지 모를 새로운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는 자칫 기존의 냉전 체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었다. 중국이 반동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공산국가를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 지역으로 냉전의 좌표를 재설정하려는 목적이 충분했고, 미국은 ‘일본’이라는 선진화된 냉전 아시아 표상을 동원해 이 지역의 중립 노선을 냉전 체제로 포섭하려 했다. 그것은 미일 평화조약(1951) 이후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우방 관계를 회복하고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한 일본의 이해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서문학의 영향의 의제’는 단순히 동서문화교류사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두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와 새로운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서의 문화적, 역사적 단절과 불

---

소련과 유네스코에서 배제된 중국을 각각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일본을 국제대회 개최지로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Tokyo, Box NO: P-89.

27) 이하윤,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유네스코 아주회의의 참가 보고」 『새벽』, 1956. 5., 117쪽.

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었고, 이 과정에서 펜 문인들은 〈번역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유네스코의 번역사업은 30개 센터의 펜 문인들이 지지한 〈번역에 관한 결의안〉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는데 국제 펜은 번역 작품을 심의,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유네스코의 번역사업은 1946년 UN총회 제1회기에서 권유된 사항이며 1948년부터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논의되다가 195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한편, 1952년부터 아시아 문학에 중점을 둔 유네스코의 번역 사업이 한창 진척되어 가던 시기에는 국제번역가연맹(FIP) 조직과 같이 국제 펜과 유사한 단체가 새롭게 결성되어 유네스코와는 다른 독자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sup>29)</sup> 유네스코는 산하 단체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협약과 기술 및 재정 원조를 바탕으로 교육, 학술, 문화 등의 개별 활동을 지원했다. 일례로 미국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루터 H. 에반스(Luther H. Evans)의 재임기간(1953~1958년)에는 세계저작권 협약(1952), 전시 문화재보호 협약(1954), 출판물의 국제교환에 관한 협약(1958), 국가간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1958) 등 출판문화 분야의 협약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sup>30)</sup> 동서의 지식

28) 가와바타는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동서양의 “퓨전”으로 윤색하고 냉전 아시아 세력의 각축장에서 “동서의 가교”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Article “Japan expected to become Bridge Spinning East and West”(by Yasunari Kawabata), Yomiuri, Jan 1, 1957, Box NO: P-89. 이러한 주장과 유사적 표현들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유네스코 동서교류안의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가와바타는 “동서의 정신적 가교를 맺으면서 탁월한 예술성 독자성으로 모렐과 윤리의 문화의식을 표현한 작가”(『동서양 정신 가교 천단강성(川端康成) 씨』 『경향신문』, 1968. 10. 18.) 라는 평가와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29) 장내원, 「국제문화의 새자세」 『동아일보』, 1957. 4. 25. ; 「유네스코의 번역사업」 『경향신문』, 1957. 6. 21. ; 길리버(Gulliver), 고원 역, 「번역과 세계문학」 『경향신문』, 1955. 11. 8. 즉, 동서양교류안은 UNESCO-PEN-FIC의 협의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 널리 확산되고, 또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30) 정우탁, 「유네스코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106~108쪽. 에반스는 유네스코 아주회의 직후에 내한한다. 1956년에 쏟아진 에반스 내한

과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번역, 출판, 원조 전략은 비블록화된 아시아를 고스란히 냉전체제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펄 벅 문학이 집중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시기는<sup>31)</sup> 동서문화교류론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발현되던 때였다. 어쩌면 한국에서 있었던 펄 벅 소설의 붐은 펜 활동을 포함해 한국 지식인의 문화외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의 최대치라 할 만하다.

펄 벅 초청의 주최측인 조선일보사는 그의 내한기간 동안 한국문학의 해외진출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일본 문교성의 경우 문학적 가치가 인정되면 우수한 번역진을 통해 일본문학을 해외시장으로 진출시키는데, 한국의 경우 문교부가 아닌 한국 펜에서 그 모든 역할을 대신 담당했다.<sup>32)</sup> 언론에서 일본과의 비교 속에 한국 펜의 위상을 점검한 것은 1960년대에 문학의 해외진출론이 공론화되었던 배경에 가와바타 야스나리(Kawabata Yasunari)의 노벨문학상 후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이 전해진 무렵에 여러 매체를 통해 문학자들은 일본문학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배경을 외국인 번역자의 조건에서 찾고 이를 한국문학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다.<sup>33)</sup> 1950-70년대 무렵 미국의 아시아 전략 및 지역연구 프로젝트는 일본을 동원해 자유 아시아 진영을 재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sup>34)</sup> 대외적으로는 승전국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

기사는 유네스코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31) 1950, 60년대 펄 벅의 번역 비중과 대중적 관심도에 관해 박진영, 「펄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 『여성문학연구』6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271~272쪽.

32) 「우리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조선일보』, 1960. 11. 3.

33) 「노벨문학상 수상후보들」 『조선일보』, 1960. 10. 20. 조연현은 일본문학의 해외진출 경로를 역추적하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은 “7, 8년 전부터”, 그러니까 1960~61년 무렵부터 제기되었다고 언급한다. 조연현, 「한국문학의 세계적 진출은 가능한가-아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사상계』, 1968. 12., 94쪽.; 박태진, 「우리문학의 해외소개에 대한 사견」 『사상계』, 1962. 11.

34)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97~100쪽.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일본은 아시아의 롤모델이 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기대, 동서양 문학의 교류와 연대가 확산될 때 국제 펜클럽(International PEN, 1921)의 개최지가 일본으로 결정된다. 아시아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식, 곧 ‘하나의 아시아’ 슬로건은 국제적인 평화주의 정책론에 해당한다. 1차대전 직후 영국에 창설된 국제 펜클럽은 본래 유럽 중심의 문인 교류단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펜하겐 대회(1948)에서 「국제 펜 헌장」이 통과된 이후 아시아 신생국을 비롯한 비서구 지역의 가입국이 증가하며<sup>35)</sup>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자, 펜클럽은 인류문화의 평화적인 창조 및 건설과 자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친화를 도모하는 국제 교류단체를 표방했다. 요컨대 하나의 국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평화의 슬로건을 부각시킨다. 펜클럽의 슬로건은 국가 상호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남의 문화”을 통합 내지 협력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화적인 무엇”<sup>36)</sup>에 해당하는, 일종의 보편성을 일컫는 수사적 개념이다. 반공진영으로 통합할 공통감각으로서 ‘평화’는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거부하기 어려운 이념이었다. 제29차 동경 펜대회(1957)의 공식 제목이 ‘동양과 서양의 문학이 미적 가치와 생활양식 양면에서 현재 미래의 작가에게 주는 상호적 영향’인 것처럼, 여기에는 일본 중심의 동서양 문화 교류를 지향하는 개최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펜클럽의 서구 문인들은 아시아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서양문학과 전혀 다른 일본문학의 새로움에 대해 역

---

35) 파키스탄, 인도, 한국 등 피식민지 국가가 국제 펜클럽에 연이어 가입했고, 특히 한국이 가입한 1954년에는 세계 50여 개국에 국제 펜클럽 본부가 설치되었다.

36) 임한영, 「유네스코와 하나의 세계」 『새벽』, 1955. 5., 113쪽.

37) 앙가스 윌슨, 「먼저 번역자들」 『자유문학』, 1957. 10~11., 176~177쪽.

38) 이브 강동, 「서양정신과 불란서」 『자유문학』, 1957. 10~11., 189~190쪽.

설하거나,<sup>37)</sup> 문명과 교양으로서 동서양문학의 공통점을 찾으며 일본문학을 언급하고,<sup>38)</sup> 최초의 동양작품 경험이 타고르의 일본문학 비평이었다는 등<sup>39)</sup> 새롭게 재편된 냉전체제에서 아시아(문학)에 대한 신뢰를 '일본'의 거점으로 만들어갔다.

그(필 박인용자)가 노벨상 수상 여류작가이면서 위들과 같은 불우한 나라의 여성을 모델로 하여 항상 그의 예술 속에서 인간애를 말하고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제창한 투사로 존경받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의 내한을 환영하는 바이다. (중략) 바라건대 여사는 38선을 시찰하시기 바라고, 공산국가를 상대하는 미국의 동양정책도 비판하면서 가장 엄숙하게 찌푸리고 있는 코리아의 현실을 이해와 너그러운 관용으로 만나주기 바라는 바이다.(강조-인용자)<sup>40)</sup>

1950년대에 뚜렷하게 나타난 세계주의의 열망은 한국 펜의 국제적 활동 속에서 보다 실증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 펜 문인들은 제29차 동경 세계작가회의(1957)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본 펜대회에 참석한 외국 문인 20여 명(13개국)을 초청했다. 국제 펜클럽 외국문인의 방한 행사는 전후 한국에 대한 담론과 홍보에 용이했고 초청 작가 대부분이 한국 소재의 문학을 창작할 것을 약속해 국제기구로서 실질적인 문화외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sup>41)</sup> 특히 고도(古都)와 휴전선을 오가는 시찰 일정은 한반도를 자유전선의 선두에 위치시키는 실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

39) 장 계노, 「각국의 책무를 가지고」, 『자유문학』, 1957. 10~11., 201쪽.

40) 모윤숙, 앞의 글, 66~67쪽.

41) J. 라스트(네덜란드 소설가), 『자유문학』, 1957. 10~11., 216쪽. 1956년 제28차 런던 국제펜대회에 참석한 이하윤은 한국의 국제적 활동과 활약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세아에 있어 인도나 일본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참관기를 발표한다. 「좌담회」(3) 『경향신문』, 1956. 7. 3. 외국작가의 내한을 펜클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동경 펜대회를 의식한 점이 눈에 띈다.

를 들어 외국문인의 한국 인상기는 예외 없이 한국전쟁과 결부된 자유 아시아 또는 재건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고평하는 발언이었다.<sup>42)</sup> 모윤숙의 펄 벅 내한에 대한 환영사에서 펄 벅의 '38선 시찰' 요청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실제 펄 벅의 관문점 방문이 이루어졌고 한국전쟁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일정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전략이 현대성의 위상과 가치보다 냉전아시아의 담론과 표상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주최자 측이 의식하건 안하건 그 말(동경펜대회 주제-인용자) 배후에는 동서양의 합류, 하나의 세계, 인류는 하나라는 현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구호가 그대로 암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막상 회의에서 문학이 토의되는 것을 보려는 우리는 특히 문학에 있어서 너무나 서로 먼 거리에 서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동양이라고 하는 이 권내에는 얼마나 많고 복잡하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문학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권내에 가로놓인 심연보다도 못지않게 동양문학 사이에 놓인 심연이 크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sup>43)</sup>

외국문학자 최완복은 동경 펜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신문과 잡지 등에서 차례 발표하는데 1960년대부터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이력만큼 한국 문학 또는 펜클럽의 성과를 앞서 다루기보다 펜대회에서 드러난 일본 및 국제사회의 변화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개회식 무대를 장식한 23개국의 국기를 “마치 문학의 국제연합이었다”<sup>44)</sup>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한 데서 알 수 있듯 펜의 국제적 규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주의의 역사와 그

42) F. A. 도치(오스트리아 평론가), 『자유문학』, 1957. 10~11., 151쪽.; M. 그레이그(호주 소설가), 같은 책, 168쪽.; A. 마루프(인도네시아 시인), 같은 책, 167쪽.; 라저스 지라히(헝가리 망명 작가), 『정신의 연합체』, 같은 책, 162~163쪽. 등

43) 최완복, 「펜대회 보고기3」, 『동아일보』, 1957. 9. 22.

44) 최완복, 「펜대회 보고기2」, 『동아일보』, 1957. 9. 20.

를 통해 위계화된 세계에 대한 논의와 반성 없이 문학의 연대와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 아시아 담론은 식민지 역사를 배제하며 반공체제로서 아시아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는 문제가 시급했고 냉전의 감각을 전유해 펜클럽 역시 동일한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앞서 읽은 모운숙의 글에서 “15년간의 한국의 문화교류”의 난맥상과 “미국의 동양정책”에 대한 불만은 일본 중심의 냉전 아시아적 보편성을 생산하는데 한국의 주변화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작가회의에 참석한 한국 문인들은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불신하면서도 다른 한편, 한국문학의 독자적 역할과 세계적 위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런던 펜대회 참가를 기념하는 한 좌담회인데, 한국문학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펜클럽 문인들은 한국전쟁의 참상과 반공사상을 문학적 소재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헌구가 냉전질서의 동시대적 경험을 표현할 “모든 소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기회의 중요한 모멘트”라고 논평했고, 김광섭과 이하운 등은 그것을 세계문학 내의 한국문학의 헤게모니로까지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싸운 것은 우리 나라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국제대회에 참석한 한국문인의 포부라는 공감대 속에서 심지어 모운숙은 비엔나 펜대회에서 경험한 한국문학의 위상을 한국전쟁에 따른 “코리아라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sup>45)</sup>

45) 「국제 펜클럽 28차 세계대회 참가대표 좌담회(3)」 『경향신문』, 1956. 7. 3. 그러나 당시에 전쟁문학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좌담에서 한국전쟁이 세계문학을 향한 최적의 소재라는 이들의 주장은 심지어 『자유문학』, 『펜』 등에서조차 기획 지면을 확보하지 못했다. 1970년대에 7.4남북공동성명 등의 일련의 정치 변화 속에서 분단 의식과 함께 민족, 민중문학 담론이 급부상할 때 전쟁세대의 문학이 회자되었다. 가령 당시에 본격적인 전쟁문학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가 반공의 엄중한 자기검열 속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 봐야 하는 제약 때문에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한 진단이 일반적인 논의였다. (김우중, 홍성원, 김원일, 『우리 문학 속의 전쟁과 분단-작가 좌담』 『동아일보』, 1979. 6. 25.) 즉 세계문학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펜클럽 문인들의 저 발언은 오히려 한국의 전쟁문학이 양적, 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한계가 분명했던 지점을 시사한다.

좀 더 살펴볼 부분이 많지만, 펜클럽 문인들이 제기한 소위 세계문학으로서 한국 전쟁문학은 단순히 전쟁이 초래한 불안 심리나 저항 의식의 산물이다. 이들에게 한국전쟁은 '세계사적 동시성' 속에서 한반도가 고유한 지정학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듯 한민족이 식민 체험의 민족적 열등감을 떨쳐버리는 대신에 동시대 세계사의 한 주역으로서 자기 확인에 이르는 과정은 '세계문학과의 거리'를 그만큼 좁히게 되었다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경도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세계문학은 이식과 모방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곤란했다. 불문학자 손우성은 전쟁문학의 사상적 원류로서 실존주의를 소개하고<sup>46)</sup> 휴머니즘의 주제 역시 “금일의 주요한 세계문학의 신방향과 크게 통하는 문학적인 대도(大道)<sup>47)</sup>이고 6.25 체험시는 한국적인 것으로서 “구미시단의 첨단<sup>48)</sup>이 될 수 있었다. 한국문학-전쟁문학-세계문학으로 명기되는 전후 문학에 대한 초점화 방식은 한국 펜클럽이 세계작가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가 잦아질수록 더욱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 IV. “나는 한국 역사를 읽고 연구했습니다”—필 벽의 방한과 『살아있는 갈대』

필 벽이 판문점을 방문하고 한국의 분단 문제를 언급한 시기는<sup>49)</sup> 그가 핵무기 폐기라는 정치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때이기도 했다. 핵무기 실험을 통해 가시화된 군비경쟁 속에서 핵무기 반대를 위한 과학자들

46) 「펜클럽 창립 문학강연대회」 『경향신문』, 1954. 12. 3.

47) 백철, 「인간성의 옹호와 문학-6.25를 계기한 한국문학의 전진」 『조선일보』, 1954. 6. 26.

48) 김광섭, 「6.25는 시사에 남을 것인가-전란과 그 이후 시문학의 경향」 『조선일보』, 1958. 6. 25.

49) 「국토분할 남한에 큰 핸디캡」 『경향신문』, 1960. 11. 17. ; 「필 벽 여사가 말하는 아세아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1960. 12. 3.

의 국제회의(Pugwash Conferences, 1957)가 개최되고 미국과 유럽에서 반핵운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지던 무렵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펄 벅의 행적이 있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1963)이 체결되기까지 펄 벅은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핵실험 금지 운동에 동참했다. 『평전』에 의하면 희곡 『사막에서 벌어진 일』과 소설 『오전 명령』은 이 시기 핵실험에 대한 펄 벅의 정치적, 윤리적 입장이 포함된 작품이다.<sup>50)</sup> 이처럼 사회운동가로서 그의 이력은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간단치가 않다. 펄 벅은 파시즘에 맞서 반전을 역설했고 인종 차별과 성차별에 맞선 인권운동은 물론 전쟁고아, 혼혈 사생아, 장애아를 위한 입양 기관(웰컴하우스, 1949)을 설립해 사회복지운동에 헌신하고 노년에도 반핵운동에 몰두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비서구 지역의 평화, 평등, 자유를 옹호한 그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은 보편적인 인류애에서 표출된 것이되 민족국가 간의 특수한 역사에 관해서도 그 한계와 과제를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장면을 『평전』에서 읽어보면,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케네디-인용자)가 물었다. 그리고 그녀(펄 벅-인용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대답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펄은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케네디의 주장은 그가 아시아의 정치와 역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러냈다. 당시 펄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한국을 여행했고, 20명의 버려진 혼혈 아이들을 데려와 웰컴하우스를 통해 입양시켰다. 또 한국은 그녀의 최근 작품인 『살아 있는 갈대』의 무대이기도 했다.<sup>51)</sup>

50) 피터 콘, 이한음 옮김, 앞의 책, 542~543쪽.

51) 피터 콘, 이한음 옮김, 앞의 책, 547~548쪽.

인용문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벨상 수상자 만찬(1962)에서 펄 벅과 케네디(John F. Kennedy) 간의 대화로, 중국통 정치학자 로스 테일(Terrill, Ross)의 원고(1971)에 묘사된 한 장면이다. 케네디의 아시아 정책에 비판적이던 펄 벅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읽히는데, 알다시피 케네디 행정부는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정신을 표방하며 신생국과 저개발국의 사회 개혁이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이전의 대외원조정책을 재검토했다. 제3세계 세력의 확산이 절정에 도달하자 '발전의 시대(Age of Developmen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1961)을 통과시킨 케네디 행정부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기반하여 새로운 원조계획을 실행한다.<sup>52)</sup> 미국의 한국 원조는 사실상 축소되고 무상원조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원조로 변화했다.

그렇다면 인용문에서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펄 벅의 질문은 달리 말해서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한 대외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 『평전』은 한국을 일본의 점령지로서 단순화한 케네디의 대한(對韓) 인식을 예로 들어 식민지 이전의 한국 정치, 역사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과 무지를 지적하는 펄 벅의 태도를 강조한다. 이처럼 1962년에 한국이 백악관 행사의 화제가 된 것은 5.16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헌정질서가 중단된 정치적 상황 속에 민정 이양의 절차와 시기가 한창 논의 중이었기 때문이다.<sup>53)</sup> 이 시기에 펄 벅은 “최근 작품인 『살아 있는 갈대』의 무대”인 한국을 방문하고 ‘웰컴 하우스’ 활동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졌다.

52) 조아라,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일본비평』10,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276~277쪽.

53)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민정이양 계획과 경제원조에 대한 승인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다. 「미행정부 수뇌층에 민정이양계획 개진」, 『경향신문』, 1962. 10. 5.; 「마찰 없는 민정이양에 깊은 관심」, 『동아일보』, 1962. 11. 2.

흥미롭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소설 발간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과도기적 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살아 있는 갈대(The Living Reed)』의 창작 배경은 민정이양기에 발표된 펄 벅의 특별기고문에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펄 벅은 이 소설이 단순히 전근대적 아시아 민중의 삶과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제정치사적 한계를 통찰한 것임을 역설한다.

한국의 자유투사를 알고 있다.

나는 한국 역사를 읽고 연구했습니다. (중략)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의 다른 국민들과는 다른 한국 국민의 개성적이며 특수한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글을 보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략) 미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를 세우려는 여러분의 분투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또 미국식 방법이 구석구석까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이 결코 독재정권이 생길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한국에 독재정권이 생길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

나는 지금 한국이 일본에게 점령당하기 이전의 한국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바와 같이 한국조정이 부패해졌을 때는 무인(武人)들이 잠시 동안 정권을 쥐었으나 이렇게 무인들이 집권하는 것은 단지 잠시동안이고 그 다음에는 문인들에게 정치하는 일을 넘겼으며 이것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본보기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옛날의 본보기가 현대에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이 올봄에 선거를 하는데 대해서 많은 미국사람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선거가 한국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헌신하는 올바른 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략) 현재 여러분에게는 옛날에 한국국민에게 봉사했었던 고대군주주의와는 판이한 현대식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날이 발전하고 한편으로는 건설하면서 그것을 확립해나가는 동시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sup>54)</sup>

『살아있는 갈대』는 『대지』와 마찬가지로 역사소설이지만 농민 중심의 근세 민중 서사가 아닌 4대에 걸친 안동 김씨 가문 중심의 조선말 정쟁사, 항일투쟁사, 분단정치사를 다룬 소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 소설은 대원군, 고종, 명성황후의 세력 대립에 관여한 김일한 일가(一家)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조선의 4천 년 지정학 서사에 바탕을 둔다. 소설의 첫 장면이 둘째 아들 연환의 출생인 것도 그 해가 고종 폐위를 모의한 흥선대원군 세력의 쿠데타(이재선 추대 사건)가 있던 고종 18년(1881)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실각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부활했을지 모를 이 사건은 펄 벅에게는 한미수호통상조약(1982)이 불가능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펄 벅은 「저자의 말」에서 1961년 방한에서 전쟁 복구가 덜 된 도로를 봤다며 “그 조약이 지켜졌더라면<sup>55)</sup>”이라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수호 외교를 비판한 어느 한국인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등장과 개입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기에 연환이 태어나는 장면은 곧 “대원군을 몰아내려는 첫

54) 「친애하는 한국의 벗들에게 펄 벅 여사 본사에 특별기고」 『조선일보』, 1963. 2. 3.

55) 펄 S. 벅, 장왕록, 장영희 옮김, 『저자의 말』 『살아있는 갈대』(1963), 길산, 2014, 624쪽.

음모에 가담<sup>56)</sup>한 일한의 전력을 설명하는 대목과 교차한다. 이는 한편으로 일한의 첫째 아들 연춘의 일화에서 소설의 제목인 ‘살아 있는 갈대’가 언급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소설의 ‘살아 있는 갈대’란 약소국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저항을 상징한다. 동생이 태어나자 질투심에 죽순을 짓밟은 연춘에게 일한은 죽순이 속이 빈 갈대라고 일러주며, 강대국 틈에서 언제나 침략의 위협에 처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죽순에 비유해 땅 밑에 감추어진 뿌리에서 새순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부연한다.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가 소설을 이해한다면, 펄 벅이 언급한 “한국의 자유투사”, “아시아의 다른 국민들과는 다른 한국 국민의 개성적이며 특수한 성격”이란 국권 수호를 향한 한국의 집념의 역사를 가리키며 소설은 김일한 가족사를 통해 이를 세밀하게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어린 연춘은 ‘살아 있는 갈대’라는 별칭을 지닌 항일투쟁의 전설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연춘이 총독 암살을 위해 집을 떠날 때 일한에게 남긴 말—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 살아 있는 갈대들 말입니다.”<sup>57)</sup>—은 한국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한국의 역사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소설에서 연춘은 해방 후 일본 경찰에 의해 죽고 그의 아들 사사는 북한행을, 연환은 3·1운동 때 죽고 그의 아들 양은 서울의 미군 병원 의사가 된다. 4대에 걸쳐 김일한의 가족은 그 자체로 한국의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적 증인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펄 벅은 약소국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서사를 구현한다.

펄 벅은 1960년 하순에 9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남북이 통일”되면 다시 “한국을 쓰고 싶다”<sup>58)</sup>고 말한 바 있는데, 불과 3년 만에 한국의

56) 펄 S. 벅, 장왕록, 장영희 옮김, 같은 책, 14쪽.

57) 펄 S. 벅, 장왕록, 장영희 옮김, 같은 책, 357쪽.

58) 「펄 벅 여사 이한 9일간 여정 끝내고」, 『동아일보』, 1960. 11. 11.

민주주의 정권 수립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역사 소설로 완성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펄 벅이 방한하여 『살아 있는 갈대』를 쓰던 무렵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과도기적 군정기였다. 따라서 민정이양을 위한 선거에 주목해 한국의 현실정치를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에게 점령당하기 이전의 한국역사”를 구상했던 창작 배경을 인용문에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된다. 특히 펄 벅이 언급한 “미국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이란 당시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군정연장과 민정이양이 공론화된 사정을 일컫는다.<sup>59)</sup> 요컨대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혼란과 일련의 사건은 미국 학자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논거를 제공했다. “나는 한국 역사를 읽고 연구했습니다”라는 펄 벅의 고백은 더 넓게 보면 1960년대 무렵 미국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학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한국학은 현실정치와의 긴밀한 상호연관 속에서 특히 일본인의 한국사를 참조해 역사학 분야에서 뚜렷하게 진척된다. 하버드대 한국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는 「이조사화」(1959)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3년에 내한하여 이기백의 『각사신론』(1960)을 영역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사라는 소수 학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로 “현재의 정치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당파의식이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고찰<sup>60)</sup>한다는 문제의식을 피력한다. 그에 따라 미국 학자들은 쿠데타를 당파의식과 정치체제 등 조선 과도기 사회와 연결함으로써 한국 역사를 후진국의 내재적 특수성과 근대화 과정으로 바라보는 연구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59) 정치학자 글렌 페이지와 역사학자 에드워드 와그너 간에 벌인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페이지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와그너는 한국 군정 연장에 대한 그의 주장에 반박한다. 「한국문제 둘러싼 두 지성의 대결」, 『동아일보』, 1963. 4. 29.; 박연희, 「1960년대 북한연구와 '후진'의 위상학」, 『동악어문학』94, 동악어문학회, 2024, 275~280쪽.

6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사회 및 당쟁」, 『조선일보』, 1963. 5. 14.

필 벅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해는 식민지 역사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동아시아 주변국의 각종 이권 침탈 가운데 외부세력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구한말 정쟁이 심화되는 양상, 그로 인한 국권침탈의 역사를 (왕조의 몰락)이라는 장으로 구성해 소설의 첫 장에 배치한다. 책머리에 “옛 한국의 거래들은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sup>61)</sup>라는 명제를 부각시켜 강대국의 세계 전략에 불리한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 바, 조미수호통상조약 1년 전을 배경으로 시작해 미군의 인천 상륙까지 다룬 이 소설은 미국소설가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한국 국권에 관한 정치사적 텍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비 속에서 한국적인 것이 국제적 관계에 따라 점멸했다 회복하는 순간은 필 벅에게 무수한 ‘살아 있는 갈대들로 재현되기’에 충분한 세계사적 기억이었다.

## V. 소결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필 벅의 방한과 그에 대한 한국문학자들의 반응에 대해 살폈다. 외국문인과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는 이미 한국 펜클럽의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바 한국문인들은 문화외교적인 맥락에서 필 벅 내한의 의의를 빠르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필 벅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대지』는 중국 농민의 특수성을 넘어 동양적, 토속적 서사로서 인식된 나머지 이후 한국적 재전유가 가능해졌고, 필 벅은 미국문학을 대표하기보다 동서교류의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살핀 필 벅 내한은 유네스코

61) 필 S. 벅, 장왕록 옮김, 「고난과 영광의 기록-한국의 역사적 배경」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삼중당, 1963, 4쪽.

의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산하단체를 통해 공론화된 동서교류론과 맞물려 구체화된다. 문화냉전의 영향 가운데 펄 벅의 문학과 사회 활동이 한국문학에 끼친 직접적인 상관성을 해명하지 못했지만 이 글은 ‘펄 벅’을 문화냉전의 텍스트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유했던 전후 한국문학의 맥락을 개괄한 데에 의의를 둔다.

한국에서 ‘전후(戰後)’라는 용어는 단순히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를 통칭하기보다 2차대전 이후의 세계 변화를 지칭하는 수사적인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분기점을 시사한다. ‘이후’라는 전치사는 모든 포스트 담론이 그러하듯 특정 시대, 사건으로부터 ‘벗어나(脫)’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그 관념적 의의가 발휘된다. 해외에 한국문학의 번역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50~60년대는 아시아적 가치가 냉전기 문화정치의 전위로서 그 성격이 새롭게 재편된 시기였다. 전후 한국문학장에서 목격되는 “이제부터 우리 작품을 세계시장으로 보내자”라는 한국문학자들의 흥분된 목소리에는 ‘지방’이라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역설적으로 의미화되면서 “이쪽의 지방성도 그대로 지역 속에 남지 않고 참된 국제교류 속에서 세계성의 일부<sup>62)</sup>”라는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전후 문학자들은 아시아라는 지역성이 소거된 상태를 전제로 세계성과 지방성을 등치시켰다. 세계문학 개념을 동원해 한국문학의 세계적, 보편적, 국제적 가치를 발굴하고 입증하는 문제는 1970~80년대까지 지속되고 제3세계론, 초월론 등 비평담론의 주요 현안으로 반복된다.

펄 벅의 문학은 1950년대 후반 세계문학전집의 붐 속에서 『대지』가 꾸준히 읽히고, 1960년대에 펄 벅이 한국에 초청된 이후 쓴 『살아 있는 갈

62) 백철, 앞의 글, 517, 525쪽. 백철의 지방성=세계성의 논리는 「예술의 지방성, 국제성」 『중앙일보』, 1957.; 「세계적 시야와 지방적 스타일」 『자유신문』, 1955.부터 반복된다.

대』(1963)는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4~5개 출판사가 경쟁하듯 입수하여 10여 일 만에 완역될 정도로 “감탄”스러운 붐을 일으켰다.<sup>63)</sup> 『살아 있는 갈대』는 약소국의 수난사를 조선 정쟁, 식민지,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한다. 그러한 창작 배경은 펄 벅이 자신을 초청했던 조선일보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되는 일면이 있다. 민정이가양의 정치적 혼란과 중첩된 펄 벅의 한국 역사에 대한 통찰과 서사화는 어찌 보면 당시 미국 학자들이 제출한 식민주의 사관의 일환으로 창출된 당파성론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 한정해 『대지』 삼부작보다 개연성이 부족해 “문학작품이기보다 역사책과 같은 인상”이라든지, 분열과 갈등을 민족적 특성으로 재현하는 “그릇된 역사관”을 지적하는 평가가 있었다.<sup>64)</sup>

하지만 쿠데타 이후 정치적 과도기에 쓴 『살아 있는 갈대』는 “고대군주주의와는 판이한 현대식 정부”에 대한 펄 벅의 기대와 당부와 함께 한국에 전달된다. 더욱이 한국 독자에게 ‘살아 있는 갈대’는 소설 속 항일운동가의 별칭만이 아닌 “바로 한국의 별명”<sup>65)</sup>으로 세계문학에 소개되었다는 흥분 그 자체였다. 1950~60년대는 동서문화교류 시스템에서 지방성, 토착성, 특수성의 문학을 연쇄적으로 번역, 수출하는 가운데 한국문학-세계문학의 대등 관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계 각국의 문학을 ‘직접’ 대면한다는 동시대적 감각은 보편성에 미달한 후진국으로서의 소외의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전후 한국문학자와 펄 벅과의 만남, 문화적 경험은 서구-비서구의 위계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전유함으로써 주변부 문학이 비로소 탈(脫)후진성을 욕망하게 된 순간으로 기억할 만하다.

63) 「한국소재 펄 벅 작 『살아있는 갈대』 수개사(數個社)서 역간 경쟁」 『동아일보』, 1963. 9. 12.

64) 김효원, 「펄 벅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19-1,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00, 51~52쪽.

65) 「세계문단에 소개된 한국」 『경향신문』, 1963. 9. 9.

## 참고자료

『경향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현실문화, 2008.

아시아재단, 『The ASIA FOUNDATION IN KOREA 1964』, 아시아재단, 1964.

필 S. 벅, 장왕록 옮김, 『고난과 영광의 기록-한국의 역사적 배경』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삼중당, 1963.

필 S. 벅, 장왕록, 장영희 옮김, 『저자의 말』 『살아있는 갈대』(1963), 길산, 2014.

필 S. 벅, 장왕록, 한무숙 편, 『대지의 신화』, 신구문화사, 1960.

피터 콘, 이한음 옮김, 『펠백평전』, 은행나무, 2006.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고연기, 『펠백 수행기』 『여원』, 여원사, 1961. 1.

김양선, 『한국 전후 여성의 문학-교양과 필 벅의 위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김은하, 『젠더화된 재건과 필 벅의 방한이 갖는 의미』 『펠백의 세계』, 부천문화재단, 2003.

김효원, 『펠 벅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19-1,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00.

라저스 지라히, 『정신의 연합체』 『자유문학』, 1957. 10~11.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모윤숙, 『펠 벅 여사를 맞이하며』 『여원』, 1960. 11.

박연희, 『1960년대 북한연구와 ‘후진’의 위상학』 『동악어문학』94, 동악어문화회, 2024.

박주선, 『주요섭 번역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박진영, 『펠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 『여성문학연구』6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박태진, 『우리문학의 해외소개에 대한 사건』 『사상계』, 1962. 11.

앙가스 윌슨, 『먼저 번역자를』 『자유문학』, 1957. 10~11.

양아람, 『1960년대 펄 벅의 일본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이브 강동, 『서양정신과 불란서』 『자유문학』, 1957. 10~11.

이선미, 「미국문명의 선전과 '자유' 개념의 교정을 위한 소설-김말봉 『방초탑』의 사회정치적 효과 연구」 『한국학연구』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이하윤, 「문화교류와 문화외교 - 유네스코 아주회의 참가 보고」 『새벽』, 1956. 5.

임한영, 「유네스코와 하나의 세계」 『새벽』, 1955. 5.

장 계노, 「각국의 책무를 가지고」 『자유문학』, 1957. 10~11.

정우탁, 「유네스코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조아라,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일본비평』10,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조연현, 「한국문학의 세계적 진출은 가능한가-아와바다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사상계』, 1968. 12.

A. 마루프, 『자유문학』, 1957. 10~11.

F. A. 도치, 『자유문학』, 1957. 10~11.

J. 라스트, 『자유문학』, 1957. 10~11.

M. 그레이그, 『자유문학』, 1957. 10~11.

LEE Eui-Kwan to The President, The Foundation, September 3, 1957, PEN CLUB KOREA Organization, BOX NO.P-60, The Asia Foundation Paper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Laurence G. Thompson to Mr.Zong In-sob, President The Korean P.E.N, June 4, 1957, PEN CLUB KOREA Organization, BOX NO.P-60, The Asia Foundation Paper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 목차

---

- I. 서론
- II. 웰컴하우스와 펠 벅의 인종 간 입양 옹호
- III. 펠 벅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 IV. 결론

# 필 벅과 한국계 아메라시안

권은혜<sup>1)</sup>

## 1. 서론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필 벅은 전후 미국에서 아시아 혼혈인의 입양과 복지를 위해 헌신했다. 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아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 ‘아메라시안(Amerasians)’을 유행시키며 이들을 미국 시민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할 미국인의 책임감을 강조했다.<sup>2)</sup> 벅과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유럽, 아시아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혼혈 아동 2명을 입양하기도 했다. 1949년에 벅은 펜실베이니아주 도일스타운에 미국 내 혼혈 아동의 위탁 보호와 입양을 주선하는 웰컴하우스(Welcome House)를 설립했다. 1956년부터 웰컴하우스는 한국에 파견된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의 미국 입양도 추진했다. 1964년에 벅은 필벅재단을 설립해 입양되지 않아서 아시아의 출생국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메라시안의 교육과 정착을 지원했다. 1965년에 필벅재단의 첫 번째 해외 지부가 한국에 설립되었고 이후

---

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강사

2)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데 흔히 사용된 용어는 ‘유라시안(Eurasians)’이었다. 벅이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유라시안’을 대체할 용어로 ‘아메라시안’을 제안했고 벅이 이 용어를 홍보한 것이다. Emily Cheng, “Pearl S. Buck’s American Children: US Democracy, Adoption of the Amerasian Child, and the Occupation of Japan in Hidden Flowers”, *Frontiers* Vol. 35, No. 1, 2014, pp.187~188.

1970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도 지부가 건설되었다. 1973년 사망할 때까지 벅은 재단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펜을 놓지 않고 다수의 문학과 비문학 장르에서 업적을 남겼다.

이 글은 펄 벅이 미국 내 인종 간 입양 및 한국계 아메라시안의 초국적 입양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전을 계기로 벅은 혼혈 아동의 입양과 복지에 대한 신념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벅은 혼혈 아동을 향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입양 기피 현상을 타파해야 할 인종주의의 유산이라고 믿었다. 평소 흑인의 민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던 벅은 한국의 혼혈 아동을 편견 없이 가족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려 했다. 한국전 시기 국제 입양을 추진한 미국인으로 펄 벅보다는 해리 홀트가 자주 언급된다. 홀트의 활동은 한국계 혼혈 아동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한다는 기독교적 반공주의와 온정주의적 시선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벅은 한국계 혼혈 아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감에서 이 아동들의 입양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입양으로 등장한 다인종 가족이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분리를 불식시키길 기대했다.

## II. 웰컴하우스와 펄 벅의 인종 간 입양 옹호

혼혈 아동에 대한 펄 벅의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다. 1892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펄 사이든스트리커(펄 벅의 결혼 전 이름)는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 부모를 따라 생애 첫 18년을 중국에서 보냈다. 펄 벅은 서양인 아버지를 둔 혼혈 아동이 백인과 중국인 모두에게서 차별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1910년에 대학 진학차 미국으로 오기 전에 벅은 상하이의

한 보호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서양인 남성으로부터 성적 착취와 학대를 피해 혼혈 자녀와 함께 들어온 중국 여성들을 만났다. 역사가 코리 그레이브스에 따르면, 이때 벅은 제국주의 아래 아시아 여성과 혼혈 아동이 겪는 희생에 눈을 떴다.<sup>3)</sup>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벅은 1917년에 선교사 이던 존 로싱 벅과 결혼한다. 중국에 복음과 서양 문명을 전파하는 미국 선교사의 딸과 아내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던 펄 벅은 1927년 3월 27일 난징사건으로 인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증오를 이해하게 된다. 장제스의 지도 아래 북벌 캠페인을 수행 중이던 국민당 군대는 1926년 광저우에서 시작해 우한, 후난, 후베이 지역을 거쳐 1927년 양쯔강 유역의 난징과 상하이로 진격한다. 국민당 군대는 난징의 외국인 주민 및 미국, 영국, 일본 영사관을 공격했다. 벅은 당시 난징에서 아버지, 남편, 1921년에 태어난 딸 캐롤, 1925년에 입양한 딸 재니스, 그리고 후난성에서 난징으로 피신해 온 여동생 부부와 함께 가까스로 위험에서 탈출했다.

난징사건을 계기로 벅은 유럽의 백인 제국주의자를 향한 중국인의 증오가 중국에 우호적이던 백인 미국인 선교사와 가족들을 겨냥했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나의 여러 세계들』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벅은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한 자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미국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고 새 혁명군이 “반외세를 주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 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벅은 상하이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중국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그 남성의 얼굴이 증오

---

3) Kori A.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The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Vol. CXLIII, No. 2, April 2019, pp.179~180.

로 잠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고 이 기억은 평생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난징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벽은 중국인이 “백인을 증오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증오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라 백인들이 도망칠 곳이 없어질까 두려움”을 느꼈다.<sup>4)</sup>

난징사건 당일에 느낀 감정을 벽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유럽과 영국의 침략자이자 제국주의자 백인 남성들, [중국에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한 백인 남성들,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제국을 건설한 그 남성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아 나는 이 백인 남성들이 언제나 두려웠다. 왜냐 하면 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아시아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만난 모든 중국인에게 선한 일만 했던 나의 친절한 늙은 아버지에게, 여기 말고 다른 나라는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역사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았다.<sup>5)</sup>

위 인용문에서 벽이 말하는 “우리”란 미국인 선교사와 가족, 혹은 벽 자신처럼 선교사 부모를 따라 아시아에서 성장한 미국인 여성을 특정한다고 할 수 있다. 벽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벽은 그녀가 유럽 제국주의 침략자 남성들과 구별되며 오히려 중국인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벽은 유럽 백인 남성 제국주의자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이 중국인의 저항을 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벽의 반제국주의적 신념은 향후 미국의 아메리시안 정책에 대한 그녀의 제안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아시아의 미군에게서 태어난 아메리시안을 미국 정부와 미

---

4) Pearl S. Buck,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ew York: Open Road Integrated Media, 2013, p.286 [E-Book]. 이 자서전은 1954년에 출간되었다.

5) Pearl S. Buck, *Ibid.*, p.288.

국인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들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고 경고했다.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성장했으나 중국의 인종적 타자로 성장한 경험, 그리고 난징사건을 통해 벽은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을 품게 되었다. 카렌 레옹은 문화적으로 중국인, 출생 상 미국인이던 벽이 미국의 인종주의를 외부자이면서 동시에 내부자의 시선으로 비판했다고 평가한다.<sup>6)</sup>

난징사건으로 일본으로 잠시 피신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벽은 독립적인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다. 발달장애인이던 딸 캐롤의 치료 비용도 절실했던 벽은 1920년대에 미국 잡지에 중국 관련 글을 꾸준히 연재했다. 벽의 두 번째 남편이자 평생 파트너가 되는 리처드 월시의 출판사에서 1930년에는 첫 번째 소설 『동풍, 서풍』을, 이듬해에는 두 번째 소설 『대지』가 출간되었다. 『대지』의 성공, 월시와의 재혼, 그리고 캐롤의 치료를 위해 벽은 1934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정착한다. 벽과 월시 부부는 총 6명의 자녀를 입양했고 이 중 2명이 혼혈 아동이었다. 1936년에 2명의 백인 쌍둥이 형제를 입양했고 1937년에 두 명의 백인 아동을 더 입양했다. 1951년에는 독일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1957년에는 일본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입양했다. 1960년 월시가 사망할 때까지 벽과 월시 부부는 다양한 구성의 혼혈 아동을 위탁 보호했다.<sup>7)</sup>

1940년대 중반만 해도 인종과 국적이 다른 아동의 입양에 대한 벽의 공

---

6) Karen J. Leong, *The China Mystique: Pearl S. Buck, Anna May Wong, Mayling Soo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Orient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20~23.

7)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194.

식적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1946년 『코스모폴리탄』 지에 기고한 글에서 벅은 인종과 국적이 다른 아동의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독자들에게 충고했다. 당시 백인 자녀 5명을 입양했던 벅은 같은 인종의 아동을 입양하는 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여기다 인종적 차이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라면 나라와 민족도 일치시키라고 지적하며 “따뜻한 이탈리아 태생 혈통을 가진 부모가 차가운 스칸디나비아 태생 조상을 둔 아동을 입양해선 안 된다”는 조언까지 추가했다. 이때만 해도 벅은 아동과 부모 사이의 인종과 종교를 일치시키는 미국 입양전문가집단의 관행을 비판하지 않았다.<sup>8)</sup>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벅의 관심과 입양 전문 기관의 매칭(matching) 관행에 대한 비판은 1948년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한 소녀 보호시설 대표로부터 인도인 남성과 백인 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로비라는 소년을 입양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문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키울 수 없었고 양가 가족도 아이를 원치 않았다. 매칭을 중시하는 일반 입양기관에서는 로비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아이의 높은 지능을 언급하며 인종 분리 관행으로 인해 이 아이는 결국 흑인 아동만 수용하는 고아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인도인도 코카서스인에 속하는 데 이 아이가 흑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벅은 문의자의 흑인 비하 태도를 바로 지적했지만 그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얼마 되지 않아 벅은 중국인 아버지와 백인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입양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또 다른 부탁을 받게 된다. 벅과 월시 부부는 로비를 입양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통상적으로 40세 이하여야 입양 자격이 인정되

8) Pearl S. Buck, “An Interview with My Adopted Daughter,” *Cosmopolitan Magazine*, April 1946, p.96, quoted in Kori A. Graves, *A War Born Family: African American Adoption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20, p.187.

는 데 벽은 이미 56세, 월시는 63세라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아시아계 혼혈 아동을 입양하려는 백인 가정을 찾기도 거의 불가능했다. 벽은 혼혈 아동을 위한 영구 위탁가정을 만들자고 남편과 주변 지인들을 설득했다. 성공하고 부유한 예술가,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후원 아래 벽은 1949년에 웰컴하우스를 설립했다.<sup>9)</sup>

웰컴하우스와 함께 벽은 혼혈 아동의 복지와 인종 간 입양을 옹호하는 운동가의 길에 들어섰다. 벽은 웰컴하우스를 부유한 백인 공동체에 덩그러니 떨어진 혼혈 아동의 위탁보호시설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이자 이웃으로 만들려 했다. 이를 위해 벽은 도일스타운의 지도자와 학교 행정 담당자를 설득했다. 벽은 웰컴하우스의 아동에게 주변 백인 중산층 이웃에 못지않은 주거 환경과 식사를 준비했고 사비를 털어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사 입혔다. 벽은 웰컴하우스의 행사를 외부로 공개했다. 그레이브스에 따르면, 벽은 웰컴하우스를 “일종의 실험공간”으로 기획했다. 웰컴하우스는 혼혈 아동의 임시보호가정이 백인 이웃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고 그 결과 인종 사이의 결혼이나 입양을 통한 가족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고 혼혈인은 열등하다는 믿음도 “무력화” 될 것이라고 벽은 기대했다. 1951년부터 벽은 웰컴하우스를 영구 위탁가정에서 입양기관으로 변모시켰다. 1951년에는 10명을 수용하고 6명을 입양 보내는 데 그쳤지만 1952년 12명을 받아 10명을 입양 보냈으며 1952년 말에는 80가족 이상이 입양을 희망했다고 한다.<sup>10)</sup>

벽은 혼혈 아동에게 보통의 백인 미국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며 이들도 역시 미국인이라고 강조했다지만 이들을 입양하려는 백인 가정을 찾지 못한 걸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세기 전반기 우생학적 사고의 일환이

9) Kori A. Graves, *Ibid.*, p.192.

10)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p.185~188.

던 혼혈인의 열등성 이론이 1950년대에도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웰컴하우스가 소재한 도일스타운의 백인 주민들도 다르지 않아서 한 고령의 주민은 만약 그의 손주가 웰컴하우스의 혼혈 아동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벽은 회고했다.<sup>11)</sup>

웰컴하우스의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 주려면 혼혈 아동과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벽은 인종 간 입양이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며 미국 인종주의를 공격하는 공산주의 선전에 맞설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1952년에 한 주간지에 벽은 아시아계 혼혈 아동을 입양하려 웰컴하우스에 문의하는 미국 가정들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미국이 아시아인을 차별한다는 공산주의의 선전을 반박할 증거를 제공한다고 논평했다.<sup>12)</sup>

인종 간 입양 서비스를 웰컴하우스의 기능으로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벽은 강연, 기고, 모금활동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자와 청중에게 인종 간 입양을 고려하라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인종 간 입양가족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서 혼혈 아동의 아름다운 외모와 높은 지능을 유달리 강조했다. 웰컴하우스를 통해 자녀를 만난 미국인 부모들도 입양 자녀의 외모와 총명함을 자랑했다. 웰컴하우스의 한 직원은 벽이 웰컴하우스의 혼혈 아동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을 칭찬했다고 기억했다. 혼혈 인이 부모가 속한 인종보다 열등하다는 우생학적 사고에 맞서 벽은 웰컴하우스처럼 인종통합적인—차별적이지 않은—환경에서 자라면 혼혈 아동의 타고난 재능이 빛을 발한다고 주장했다. 혼혈 아동의 우월성에 대한 벽의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자들의 혼성성 연구 결과를 참조한 것이었다. 동물학자 허버트 스펜서 제닝스나 유전학자 조지 스티븐슨

---

11) Kori A. Graves, *Ibid.*, p.189.

12) Kori A. Graves, *Ibid.*, p.188.

혼성성의 존재를 문명 발전의 증거라고 여겼다. 벅은 외모와 지적 능력에서 탁월한 혼혈 아동의 입양으로 그 부모가 얻게 될 기쁨을 강조했다.<sup>13)</sup>

개인이 인종 간 입양을 결심하더라도 넘어야 할 제도적 장벽이 있었는데 이는 아동복지와 입양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매칭(matching) 관행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혁신주의 개혁 시기 입양의 제도화와 과학화가 진행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입양 전문가들은 입양가족이 자연적인 가족처럼 보여야 성공적인 입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입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종과 종교를 일치시켜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보이게 만드는 매칭을 강조했다. 가족, 주거지, 직업 등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종 분리 사회였던 미국에서 입양 부모와 자녀의 인종을 일치시키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매칭 관행은 결과적으로 비 백인 아동, 혼혈 아동의 입양을 방해했다. 입양 부모가 될 경제적 기준과 연령을 충족하는 이들은 대개 중산층 백인이었고 이들은 그들과 종교가 같은 백인 아동을 선호했다. 흑인 가정이나 인디언 가정은 백인 중산층을 표준으로 설정한 입양 부모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에 결국 비백인 아동과 혼혈 아동은 입양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칭 관행과 입양 전문가 집단에 도전하는 이들이 등장한다. 근대 미국 입양을 연구하는 역사가 엘렌 허먼은 벅을 “최초의 매칭 비판자” 중 하나이자 20세기 중반 “입양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언급한다. 벅과 다른 매칭 비판자들은 입양 전문가 집단이 장애인, 혼혈인, 유색인을 위한 “특수 요구(special needs)” 입양에 무관심한 채 인종과 종교의 매칭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sup>14)</sup>

13) Kori A. Graves, *Ibid.*, pp.188-192.

14) Ellen Herman, *Kinship by Design: A History of Adoption in the Modern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204-215.

1955년 “기다리는 아이들: 충격적인 입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벅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과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을 가두는 “불필요한 행정, 편견과 종교적 구분이라는 벽을 깨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벅은 “매치”할 부모를 찾을 수 없어 그녀에게 온 두 혼혈 아동을 언급하며 “매치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벅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서로 애타게 찾고” 있으나 기관의 “장벽”에 막혀 “서로 닿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종과 종교”의 매칭 대신에 벅이 제시하는 양부모의 조건은 “사랑과 이해 및 포용이라는 인간적 자질”의 소유이다. 벅은 “인종과 종교보다는 사랑과 이해와 포용이라는 인간적 자질이 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벅은 “입양 절차의 관료행정을 제거하고 오직 기본적인 것만 남기자”라고 제안한다. “아무리 신실하고 이타적인 아동복지사와 종교단체의 아동복지 전문가”라도 “관료행정에 충실하고 전통에 빠져서 방해물”이 된다고 벅은 날카롭게 비판했다. 역사가 그 레이브스는 벅이 관료주의적 입양제도를 “상식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고 평가한다.<sup>15)</sup>

아동복지와 입양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인 벅의 비판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미국 아동 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의 기관장 조셉 리드는 아동 복지기관의 관료주의를 비난하는 벅의 기사가 “사실무근이고 거의 비방에 가깝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 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벅의 지적에 대해 리드는 실제 고아원에 있는 아동 중 부모가 다 없는 진정한 의미의 고아는 3퍼센트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종교가 일치하지 않아 입양이 안 되는 아동이 많다는 지

15) Pearl S. Buck, “The Children Waiting: The Shocking Scandal of Adoption,” *Woman's Home Companion*, September 1955, p.33, pp.129~132.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TCW.htm> (검색일자: 2025년 10월 21일) ;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194.

적에 대해서 리드는 입양이 필요한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유대교 아동보다 입양을 원하는 각 종교인 부모가 더 많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 백인 아동은 예외”여서 “모든 신앙 집단에서 비 백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가정은 극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했다. 입양 전문가들이 아동의 불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리드는 아동복지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기금과 이해 부족”을 탓해야지 “누구를 찍어 지적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sup>16)</sup>

벽은 입양의 민주화를 옹호하며 입양 결정권을 전문가 집단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벽은 웰컴하우스에서 인종 간 입양을 진행해 봤고—전문가들이 인종 간 입양을 시행하지 않아서—스스로 인종 간, 국가 간 입양을 실천한 어머니였다. 벽의 경험에 따르면, 혼혈 아동의 입양과 복지에 진실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종 간 입양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어야 했다. 인종과 종교의 매칭이 아니라 사랑이 입양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벽은 주장했다. 전문가 집단은 특수 요구 아동의 입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벽의 견해에는 동의했지만 벽과 같은 비전문가가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입양 과정에 개입한다면 아동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III. 펄 벽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1950년대 미국은 여전히 인종 분리 사회였다. 남부에는 백인과 비백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삼백 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고 1967년에야 폐지된다. 남부의 여러 주에서 인종 간 입양도 금지했다. 북부에서도 인종 간

16) Joseph Reid to Paul Smith,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Papers, Box 15, Folder 7,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September 15, 1955.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ReidBuckltr.htm> (검색일자: 2025년 10월 21일)

결혼과 입양은 극소수 개인의 선택지로 남았다. 냉전기 미소 갈등의 첫 대리전이던 한국전쟁은 인종 간 입양에 대한 평범한 미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다인종 가족의 출현을 암시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약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이 중 1,500명은 미군에게서 태어난 혼혈 아동이라고 추산된다.<sup>17)</sup>

미국에서 전쟁으로 인한 한국 아동의 이민과 입양을 도모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은 한국전이 끝난 1953년이다. 한국전 이전 미국의 일본 점령기에도 미군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초국적 입양은 다음과 같은 법적 장애물로 인해 한국 전쟁고아 입양처럼 대대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1953년까지 아시아계 혼혈 아동의 미국 가정 입양은 불가능했다. 아시아인의 이주를 전면 금지한 1924년 이민법이 유효했고 1948년 난민 구호법은 2차 대전시 추축국이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고아에 한정해서 이들의 미국 이주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전 기간 중 미군들이 한국인 전쟁고아, 동료의 혼혈 자녀의 입양을 개인적으로 어렵게 추진하기도 했다. 1953년 난민구호법은 '난민 고아에 국적 제한을 두지 않아서 아시아 아동의 구호와 입양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모를 잃은 경우만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버려지거나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동도 고아로 정의했고 대리 입양제도를 도입했다. 대리 입양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한국까지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국내 입양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양부모 자격 심사가 완화되었다. 1953년 이후 한국 아동 양호회, 가톨릭구제회, 안식교 성육 양자회, 국제사회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등 미국의 입양 전문 종교기관과 국제사회단체가 국제 입양

---

17) 아리사 오 지음,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서울: 뿌리의 집, 2019, 46~47쪽.

서비스를 개시했다. 입양과 아동복지 분야 비전문가였던 해리 홀트와 펄 벅도 각각 1955년과 1956년에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1961년 미국 이민법에 해외 입양인 비자 항목이 공식적으로 추가되면서 1953년 난민구호법의 효력은 정지되고 동시에 대리 입양 관행도 중단된다. 1961년에는 한국 정부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한다.<sup>18)</sup>

1953년에서 1961년 사이에는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GI 베이비가 서양국가 중 주로 미국에 입양된다. 1955년에서 1961년 사이에 한국에 거주하던 혼혈 아동은 5,485명인데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총 4,185명이었다. 혼혈 아동은 대개 한국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에 온전한 의미의 고아는 아니었다. 입양 대리인은 어머니들에게 접근해 입양을 보내라고 설득했다. 앞서 언급된 5,485명의 혼혈 아동 중 중 4,089명이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었고 시설 수용 아동은 1,396명이었다. 시설에 수용된 혼혈 아동이 모두 입양되었다고 가정해도 2,789명의 아동이 가족과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입양된 것이다.<sup>19)</sup>

비판적 입양학 연구자들은 인종 간 관계 및 혼혈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 및 대리입양 제도를 남용한 홀트와 같은 미국 입양 대리인이 혼혈 아동이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비판한다. 부계 중심, 순혈주의 한국 사회에서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일반적인 미국 사회에서나, 미국인 남성을 아버지로 둔 아이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종사자로 간주되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혼혈아가 사회적 낙인

---

18) 해외입양 관련 법제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했다.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지음,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9, 64~65쪽. ; Kim Park Nelson,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Rutgers University Press, 2016, p.52. ; “입양 이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oksr\\_005\\_0020\\_0030](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oksr_005_0020_0030) (검색일자: 2023년 6월 10일)

19) 전홍기혜 외 지음, 같은 책, 42~43쪽.

과 도덕적 불명예를 안고 출생국 한국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미국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미국 교회와 언론 매체는 혼혈 아동이 순혈주의 한국 사회에서 받는 일상적 차별과 모욕을 널리 보도하며 이들의 입양이 절실하다고 홍보했다. 역사가 아리사 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입양 전문가 집단이 혼혈 아동의 해외 입양을 지지했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단일민족의 나라를 자부하는 한국 정부는 혼혈아의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들을 내보내려 했고 미국 입양 전문가들은 GI 베이비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때 받는 사회적 차별을 우려해서 해외 입양을 권유했다.<sup>20)</sup>

혼혈 아동의 해외 입양이 지배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유엔 한국 재건국(UNKRA)과 ISS 미국 지부의 아동복지 및 입양 전문가들은 출생국인 한국에서 혼혈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부모에 대한 신중한 심사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절차 없이 진행된 혼혈 아동의 초국적 대리 입양에 반대했다. 부모와 아동 사이의 인종과 문화의 차이가 크고 이것이 아동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양 전문가들은 정상적 절차로 국내에서 백인 아동을 입양할 자격이 없는 미국인이 한국 아동의 입양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벽과 홀트 같은 비전문가의 대리 입양 서비스 시행을 예의 주시했다. 벽은 입양 전문가들의 우려를 이해하긴 했지만 한국의 긴박한 상황으로 대리 입양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우려대로 대리 입양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 심한 경우 홀트 프로그램으로 입양된 22개월 한국 아동이 미국 양어머니에게 구타당해 살해당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1961년부터 대리 입양 제도는 폐지되었고 외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입양 절차 혹은 미국

---

20) 아리사 오 지음, 앞의 책, 91쪽.

국내 입양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sup>21)</sup>

냉전과 초국적 입양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한국, 베트남 전쟁 고아와 남미의 아동 난민의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냉전기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이루어진 반공주의 합의에서 찾는다.<sup>22)</sup> 미국인들에게는 빈곤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동유럽, 아시아와 남미의 아동을 구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미국에서 키울 책임감이 있다고 여겨졌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도 기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대면하는 방식으로서 아시아의 아동에 대한 후원과 입양을 강조했다. 밥 피어스는 1950년 월드비전을 설립해 중국과 한국의 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자를 모집했고 피어스에 감화된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 부부는 한국 혼혈 아동 8명을 입양하고 다른 기독교 가정을 대상으로 해외 입양 서비스를 시작한다. 홀트와 그의 입양 서비스를 활용한 미국인들은 기독교적 사명감에서 아이들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벅은 홀트가 내세운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인의 한국 고아 구원 서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반공주의적 동기에서 한국 아동의 초국적 입양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벅은 홀트의 기독교적 구원 서사 대신에 혼혈인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한국계 아메리시안의 입양을 장려했다. 미국의 대중 잡지에 벅은 한국계 혼혈 아동에 대한 부정적 전형을 불식하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한국계 혼혈 아동이 “평균 이상의 외모와 지능”을 가졌다고 칭찬하며 입양 전

---

21) Ellen Herman, *Op. cit.*, 2008, p. 218. ; Kori A. Graves, *Op. cit.*, 2020, pp.105~106. 국제사회서 비스 역시 해외입양 반대에서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Catherine Ceniza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p.29. 홀트프로그램의 대리입양이 야기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전홍기혜 외 지음, 앞의 책, 80~81쪽.

22) Laura Briggs, *Somebody's Children: The Politics of Transracil and Transnational Adoption*, Durham: Duke University, 2012, p.157.

후 사진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 혼혈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벽의 수사는 그녀가 반대하려던 우생학의 언어를 가져온 것처럼 들리지만 벽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레이브스는 벽이 고난받는 한국 아동을 미국인이 구원한다는 서사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계 혼혈 아동의 우월성을 유달리 강조했다고 해석한다. 즉 한국계 아메리시안은 그저 미국인이 베푸는 자선의 수혜자나 구조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탁월함으로 미국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sup>23)</sup>

한국계 아메리시안이 포함된 입양 가족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승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 한국인 혼혈 아동의 입양으로 미국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다인종 가족이 등장했고 세계시민주의자이자 민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였던 벽은 미국이 인종주의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갈 가능성을 널리 알리려 했다. 1952년 벽의 소설 『숨은 꽃』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일본인 여성과 일본에 주둔했던 백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레니가 인종 간 차이로 결혼할 수 없었던 부모와 양가에서 버림받고 난민으로 미국에 온 독신의 유대인 여성 과학자 스타이너 박사에게 입양된다. 문학비평가 에밀리 첩은 소설 속 레니에 대한 스타이너 박사의 표현 속에서 아메리시안 아동에게 건 벽의 기대를 읽어 낸다. 레니는 “모든 법과 증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세계의 아이이자 모험가, 대담한 아이,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라 불린다. 아메리시안 레니는 “폭력이 난무하는 지정학적 영토에서 태어났지만 그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고약”으로 설정된다고 첩은 분석한다.<sup>24)</sup>

한국계 혼혈 아동의 입양으로 인종 간 입양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한국계 백인 아메리시안의 백인 가정 입양이었다. 한

---

23)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197.

24) Emily Cheng, Op. cit., 2014, p.201.

국제 흑인 아메리시안을 입양하려는 백인은 찾기 어려웠고 이 아동들은 한국의 시설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다. 1957년 ISS-USA의 부소장 수잔 페티스는 벽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계 흑인 아메리시안의 입양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던 잡지 『에보니』에 벽은 “백인 부모가 갈색 아이를 입양해야 할까?”라는 글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가 나간 뒤 수개월 안에 웰컴하우스로 625건의 입양 문의 전화가 왔다. 애초 ISS-USA는 벽에게 입양 문의를 ISS-USA로 직접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벽은 ISS-USA를 언급하지 않은 채 웰컴하우스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었다. 이 일로 ISS-USA와 벽의 공조는 끝났고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sup>25)</sup>

ISS-USA는 미국 국내 입양과 같은 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국제 입양에도 적용했고 벽은 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이 40세 이하의 나이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 입양이 어려웠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웰컴하우스로 한국계 흑인 아동의 입양을 문의했다. 벽은 흑인 혼혈아동의 뛰어난 외모와 지능을 언급하며 흑인과 백인 공동체 모두를 향해 한국계 흑인 아메리시안의 입양을 고려하라고 독려했다.<sup>26)</sup> 독일계와 일본계 흑인 아메리시안을 입양했던 벽은 “두 흑인 자녀로 인해 나는 더 나은 여성이 되었네”라는 제목의 글을 1972년에 발표하기도 했다.<sup>27)</sup> 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흑인 아메리시안의 입양 성과는 한국인 아동과 한국계 백인 아메리시안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다. 1957-61년,

25)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199.

26) Kori A. Graves, Ibid., pp.201~202.

27) Pearl S. Buck, “I Am the Better Woman for Having My Two Black Children,” *Today's Health*, January 1972, pp.21~22, 64.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IBW.htm> (검색 일자: 2025년 10월 21일)

1962-66년, 1967-71년 사이의 각 시기마다 한국계 흑인 아동의 입양 성과는 낮게는 7건, 높아 봐야 13건에 불과했고 한국 정부는 국가 간 입양기관에게 한국계 흑인 아동의 입양에 더 신경 쓰라고 압박했다.<sup>28)</sup>

1960년대 들어 벽의 관심사는 입양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성장하는 한국계 혼혈 아동과 이들의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지원으로 옮겨갔다. 1960년 벽은 웰컴하우스 이사들에게 한국에 희망원(opportunity center)을 설립해 혼혈 아동과 그 어머니들에게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이사회가 벽의 기획을 승인하지 않자 1960년 9월 벽은 사비로 혼혈 아동의 실태 조사를 한국 아동복지위원회에 의뢰한 후 몸소 한국을 방문해 혼혈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518명의 혼혈 아동이 한국에 있었고 이들 중 205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 보고서는 혼혈 아동 중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사회가 우려한다고 결론지었다. 벽은 이 보고서가 실제 혼혈 아동의 수를 낮게 산정했다고 믿었다. 희망원 설립을 위해 벽은 미국 정부와 웰컴하우스 이사진 모두를 설득하는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1961년 벽은 국무차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에 남은 혼혈 아동을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미국의 외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963년에도 웰컴하우스 이사진이 해외 입양에 자원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희망원 설립 계획을 거부하자 벽은 웰컴하우스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1964년에 펄벅재단을 설립했다.<sup>29)</sup>

재단 설립 후 벽은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를 포함한 미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게 접근해 한국계 혼혈 아동의 복지가 미국의 반공주의 외교에

---

28)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202.

29) Kori A. Graves, Ibid., pp.203~204.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식민지의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벅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재정적 지원이라도 제공해서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미국에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이 한국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성장한 아메리시안을 미국의 민주주의에 맞서 싸울 군사로 모집”할 것이라고 벅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경고했다.<sup>30)</sup>

1965년 부천에 소사회망원이 펠빅재단의 한국지부로 설립되었다. 벅은 한국의 아동복지와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혼혈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심신 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sup>31)</sup> 사실 펠빅재단과 희망원이 하려던 일은 ISS의 미국 지부에서 1962년에 세운 기획과 유사했다. 1963년 ISS는 당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조지 위트너와 함께 혼혈 아동의 교육 및 정착 지원 서비스인 “출생지 주민으로 살아가는 유라시안 아동 (Eurasian Children Living as Indigenous Residents, ECLAIR)” 사업에 착수했다. 1965년 봄 ECLAIR와 ISS는 37명의 혼혈 아동을 후원해 서울의 여러 중학교로 진학시켰다. 혼혈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던 교육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며 ECLAIR와 ISS는 혼혈 아동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ECLAIR와 ISS의 최종 목적은 혼혈 아동과 친생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립한 후에 한국 정부의 고정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1965년 ECLAIR와 ISS의 프로그램이 한국 보건사회부 산하 아동 위탁보호 서비스로 이관되고 ECLAIR와 ISS는 서비스 안착과 확대, 한국인 사회복지사의 훈련을 도왔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은 한국인 사회복지사의 고용 및 훈련, 그리고 부산 지부를 설

30) Kori A. Graves, *Ibid.*, pp.205~206. ; Kori A. Graves, *Op. cit.*, 2020, pp.218~219.

31)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205.

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sup>32)</sup>

미국 복지 전문가들은 혼혈 아동의 복지 서비스를 한국 정부의 제도로 안착시키려면 한국 사회가 혼혈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벽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 독자를 향해 한국 사회에서 혼혈 아동이 인종적 차별을 겪는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한국 내 혼혈 아동 관련 수치를 부풀리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충돌했다. 필벽재단은 그들보다 먼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던 ISS 및 한국의 자생적 기관들과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이들과 경쟁하려 했다. 설상가상으로 필벽재단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1965년 남한 정부는 ECLAIR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벽은 아동복지 전문가가 아닌 젊은 미국인들을 희망원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복지 전문가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소사회망원은 미숙한 운영과 스캔들에 휘말리며 1975년에 폐쇄된다.<sup>33)</sup>

당대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로서 벽의 인종 간 입양 및 해외 대리 입양 실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캐서린 초이나 유리 돌란 같은 입양학 연구자들은 이들 아동복지 전문가의 시각을 인용하며 한국에 혼혈 아동의 사회 통합 지원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을 필벽재단이 차단했다고 평가한다. 그레이브스는 필벽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혼혈 아동의 복지정책을 추구하던 다른 단

---

32) Yuri W. Dulan, *The First Amerasians: Mixed Race Koreans from Camptowns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p.90.

33) 필벽재단과 소사회망원 관련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다. Kori A. Graves, Op. cit., April 2019, pp.205~206. ; Kori A. Graves, Op. cit., 2020, pp.215~219. ; Catherine Ceniza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pp.98~99. 필벽재단과 다른 아동복지 단체들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Yuri W. Dulan, Op. cit., 2024, pp.92~98.

체들과 달리 벽이 아시아와 고통받는 혼혈 아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 IV. 결론

웰컴하우스를 통해 펄 벽은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입양 혁명을 주도하며 인종 간 입양 및 혼혈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소사회망원을 통해 벽은 한국 사회의 인종적 편견에 맞서 한국계 아메라시안이 출생국인 한국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했다. 홀트나 기타 기독교 선교사들은 미국인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를 둔 한국인 혼혈아를 구출하고자 설득했다. 벽에게 한국계 아메라시안은 미국인이 단순히 구조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에 다양성과 탁월함을 더해 주는 아름다운 존재였다. 미국 정부와 미국인이 이들을 국가와 가족 구성원으로 다 품을 수 없다면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할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벽은 주장했다.

한국계 아메라시안과의 조우를 통해 미국이 개입한 한국전의 참상을 실감한 벽은 한국을 넘어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오키나와, 대만, 베트남 등 당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펄벽재단 지부를 설립했다. 벽은 미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시아의 혼혈인도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아메라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던 벽의 신념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 1982년 미 의회는 1950년 12월과 1982년 10월 사이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게 태어난 이들에게 미국 입국과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벽이 유명하게 만든 용어인 아메라시안을 그대로 가져와 아메라시안법이라고 불린다.

## 참고문헌

### 1차 사료

Pearl S. Buck,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ew York: Open Road Integrated Media, 2013, p.286 [E-Book].

..... "The Children Waiting: The Shocking Scandal of Adoption," *Woman's Home Companion*, September 1955, p.33, pp.129~132,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TCW.htm>

..... "I Am the Better Woman for Having My Two Black Children," *Today's Health*, January 1972, 21-22, 64.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IBW.htm>

Joseph Reid to Paul Smith, September 15, 1955,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Papers, Box 15, Folder 7,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ReidBuckltr.htm>

### 2차 사료

아리사 오 지음,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서울: 뿌리의 집, 2019.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지음,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9.

Laura Briggs, *Somebody's Children: The Politics of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Durham: Duke University, 2012.

Emily Cheng, "Pearl S. Buck's American Children: US Democracy, Adoption of the Amerasian Child, and the Occupation of Japan in Hidden Flowers," *Frontiers* Vol. 35, No. 1, 2014.

Catherine Ceniza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Yuri W. Dulan, *The First Amerasians: Mixed Race Koreans from Camptowns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Kori A.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The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Vol. CXLIII, No. 2, April 2019.

..... *A War Born Family: African American Adoption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20.

Ellen Herman, *Kinship by Design: A History of Adoption in the Modern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Karen J. Leong, *The China Mystique: Pearl S. Buck, Anna May Wong, Mayling Soo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Orient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Kim Park Nelson, *Invisible Asians: Korean American Adoptees, Asian American Experiences, and Racial Exceptionalism*, Rutgers University Press, 2016.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 일반 논문

**부천 문학의 변천과 현재**

강미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천 문화정책의**

**전개와 향후 방향**

이준일

**일제강점기 소사 지역의 과수 재배와 복숭아의**

**특산물화**

전현정

## 목차

---

I. 머리말

II. 부친 문학의 형성

III. 부친 문학의 확장 and 변화

IV. 결론

# 부천 문학의 변천과 현재

강미선<sup>1)</sup>

## 1. 머리말

문학은 인간의 삶과 감정을 상상화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론 공간의 환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넓게는 작가가 속한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자연 환경 등이 작품에 투영될 수 있을 것이고 좁게는 작가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풍경, 그 지역만의 생활 환경, 특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지역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보면 그 지역의 변천 과정이나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등을 알 수 있다.

사실 부천은 지리적인 위치나 역사적인 측면 등에서 지역이 형성된 시기가 다소 늦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sup>2)</sup> 따라서 ‘부천’ 지역을 인지하고 부천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활동하며 문학 환경을 확장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문인들과 부천시는 문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천의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문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부천에는 모든 장르의 문인들이 함께 하는 문인회와 더불어 소규모로 결성된 하위 갈래의 수많은 동인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큰 규모의 축제만 해도

1)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2)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제3권, 경기출판사, 2002, 5-7쪽.

5개가 넘으며, 전국 단위의 문학상 시상식이 4개가 넘는다. 더하여 해외의 작품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국제 단위의 시상식도 있으며 북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문학 관련 콘텐츠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천은 2017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학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학 관련 행사 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천의 문학 환경은 그 규모나 내용에 비해서 덜 알려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천의 문학의 형성 과정을 통해 부천의 문학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현재 부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학 관련 콘텐츠를 통해서 크게 발전한 부천 문학의 현재를 보여주고자 한다.

## II. 부천 문학의 형성

### 1) 근대 이전 부천 문학의 흔적

부천 지역이 형성된 것은 부천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40년 경부터이다.<sup>3)</sup> 따라서 '부천 문학'을 이야기하려면 근대 이후의 문학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부천 지역에도 사람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적게나마 문학에 관한 기록들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이지 오래된 기록은 1241년 당시 계양 부사를 지낸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24권 「망해지(望海誌)」라는 제목의 글이다.<sup>4)</sup> 현재의 부천 지역을 '계양'으로 칭하고 있는

3) 부천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글, 2002, 5~7쪽.

4) 한국학중앙연구원, 「망해지」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0163>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망해지」에는 당시 부천 지역의 지세와 풍경 및 그 지역 백성들의 삶이 서술되어 있다.

이후에도 부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글을 남긴 문인들은 조선 정조 때의 정술조(鄭述祚)<sup>5)</sup>, 대한제국 시기의 이종응<sup>6)</sup> 등 다수 존재한다. 특히 조선 후기의 문신 박규문(朴奎文)은 파직당한 후 부천에 머물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지어 『궁와유고(窮窩遺稿)』 문집을 편찬한다.<sup>7)</sup> 이 문집에 있는 글을 통해서도 당시 부천 지역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 근대 이전 부천 문학의 이해를 돕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2) 근대화 이후

근대 이후 소사역(현 부천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부천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는 부천을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였기에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문화, 예술보다는 사회 경제적 성장이 더 시급했기에 문학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부천 출신 혹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 부천에 거주하며, 혹은 부천을 삶의 근간으로 여기고 작품 활동을 한 문인들이 있다.

---

5)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술조」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2029>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6) 『英 여왕 증조부 대관식에 대한제국 사절단 보냈다』 『동아일보』, 1999. 4. 12.

7) 한국학중앙연구원, 「궁와유고」 『디지털부천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aks.ai/GC01600205>.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이러한 문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이다. 변영로는 서울 가회동에서 태어났고 부천에서보다 서울에서 지낸 기간이 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적지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sup>8)</sup>이었기에 부천은 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인지 결혼 후 신혼생활을 부천 고강동에서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1961년 타계한 뒤 고강동 선산에 안장되었으니 변영로에게 부천은 거주한 기간과 상관없이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천의 옛 지명인 '수주'를 호로 삼은 것을 보면 변영로에게 있어서 부천은 단순한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부천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이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변영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매우 널리 알려진 작품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논개」<sup>9)</sup>이다. 이 시는 임진왜란 때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기생 논개의 정신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인 1922년 4월 『신생활』에 발표되었다. 이후 1924년에 변영로는 「논개」를 포함하여 28편의 시와 8편의 수필로 구성된 첫 시집인 『조선의 마음』을 발표한다.<sup>10)</sup>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과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변영로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민족 의식을 거리낌없이 표출한 시인이다. 특히 그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우리 고전문학 부흥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전통과 관련된 소재 및 시조 창작 등을

8) 김봉군,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부천, 100년 문학을 걷다』, 산과들, 2018, 31~33쪽.

9) 거룩한 분노는 / 종교보다도 깊고 / 불붙는 정열은 /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야미 / 놓게 흔들리우며 /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 길이길이 푸르리니 / 그대의 꽃다운 혼 /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김봉군, 같은 글, 38쪽.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마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17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통해 민족주의 이념을 작품에 표현하였다.<sup>11)</sup>

시인이자 수필가, 번역가, 언론인인 이상로는 1916년 10월 8일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궁리에서 태어났다.<sup>12)</sup> 이상로도 부천보다 서울에서 더 오래 거주했지만 변영로가 부천의 옛 이름인 '수주를 호로 삼은 것처럼, 이상로 역시 '소사가 고향'이라는 의미인 소향(素鄉)을 호로 삼으며 부천을 생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상로는 1946년 조선청년문학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sup>13)</sup> 이후 1953년 첫 시집 『귀로』를 시작으로, 1957년 『불온서정(不穩抒情)』, 1961년 『세월 속에서』 등을 발간하는 한편, 타계하기 3년 전인 1970년에도 『이상로 전시집』을 출판하며<sup>14)</sup> 평생 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상로는 시뿐만 아니라 단테의 「신곡」과 어린이를 위한 「인도동화독본」 등 일본어로 된 해외 작품을 번역했으며<sup>15)</sup>, 『어느 나비가 주는 기억만치도』, 『옥석혼화』 등의 수필집을 낸 수필가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서울신문 월간 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등 언론계에서도 오랫동안 종사했다. 이상로는 사회 부조리와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는 등의 사회 풍자와 정치적인 주제의 시를 많이 썼는데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sup>16)</sup> 또한 그는 변영로의 영향으로 민족적 향토성과 윤리적, 역사적 의식이 담긴 시 역시 다수 창작하였다.<sup>17)</sup> 이상로는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11) 이선희, 「수주 변영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6쪽.

12) 이재욱, 「소사를 사랑했던 시인 이상로」 『다시 찾은 부천 인물』, 부천문화원, 2013, 167쪽.

13) 이재욱, 같은 글, 168쪽.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상로」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39>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15) 이재욱, 앞의 글, 181쪽.

16) 이재욱, 앞의 글, 183쪽.

17) 이재욱, 앞의 글, 174쪽.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관념적인 현실 추구와 동양적 서정을 잘 나타낸 시세계<sup>18)</sup>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인 황명은 경상남도 창녕 출신이지만, 1944년 경기도 부천으로 이주한 후 1961년까지 약 15년 동안 부천에 거주했다. 특히 황명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분수」가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등단한 해인 1955년은 그가 부천에 거주하던 시기였다. 이후 그는 「창의 미련」(1957), 「생명의 주제」(1958) 등의 작품과 시집 『날아라 아침의 새들이여』를 간행하는 한편<sup>19)</sup>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등을 지내며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sup>20)</sup>하였다.

이들은 부천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거나 부천을 떠난 후에도 이곳을 삶의 밑바탕으로 여기고 부천에 대한 애정과 의미를 드러내면서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부천 문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천에 거주한 시기와 상관없이 이들은 부천 문학의 중요한 문인임에는 분명하다.

### 3) 1960년대 이후

부천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부천이 어느 정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마련한 때인 1960년대 이후, 부천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부천 지역의 문

---

18) 구미리내, 「부천 문학, 100년 앞에 서다」, 『부천, 100년 문학을 걷다』, 산과들, 2018, 51쪽.

19) 권영민, 「황명」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76&cid=41708&categoryId=41737>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황명」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41>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인들로 구성된 문학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부천 문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성장하게 된다. 지역의 문학 활동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부천도 지역의 문인과 문인회를 바탕으로 지역 문학이 형성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활동한 부천의 문인 중 수필가이자 동요 「자전거」<sup>21)</sup>의 작사가로 유명한 목일신(睦一信)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동시 및 동요 작사 등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1960년부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거주한 목일신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필 및 동요와 민요 400여 편을 남겼는데<sup>22)</sup> 특히 「누가누가 잠자나」, 「자장가」 등의 동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양귀지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81년 결혼하면서 부천으로 이사 와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sup>23)</sup> 그리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총 11편의 단편을 엮어서 1987년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발표한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는 『원미동 사람들』은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의 도시 이주 경험과 도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4)</sup> 급격한 도시화와 이주 공간에서 당시 소

21)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영감 /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찌르르르릉  
오불랑 꼬불랑 고개를 넘어 /비탈길을 스르륵 지나갑니다

찌르릉 찌르릉 이 자전거는 /울아버지 사오신 자전거러오  
머나먼 시골길을 돌아오실 제 / 간들간들 타고 오는 자전거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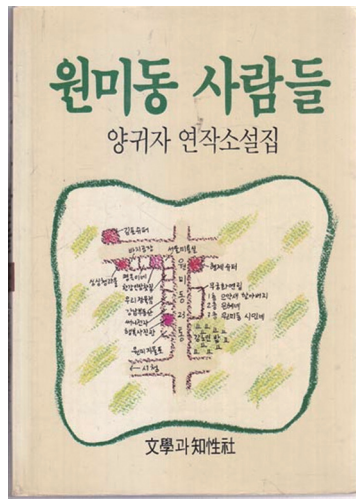
「목일신」, 유네스코 창외도시 부천, <http://bucheoncityofliterature.or.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23002001&pagesize=10&boardtypeid=294&boardid=70911>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22) 「목일신」, 같은 글.

23) 구미리내, 앞의 글, 59쪽.

24) 이양숙, 「<원미동 사람들>에 나타난 도시의 일상과 도시 공동체의 의미」, 『구보학보』 12집, 구보학회, 2015, 239~240쪽.

시민들이 겪은 삶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들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당시의 원미동과 부천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출판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이 작품은 1988년 TV 드라마와 연극, 만화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부천의 작은 동네인 원미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교과서에도 실린 『원미동 사람들』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사랑받는 소설이다.



도1. 1987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된 『원미동 사람들』

이렇게 부천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한 문인들도 있지만 부천에서 지낸 시간은 짧으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문인들도 있다.<sup>25)</sup>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1938년 『대지』로 여성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 벅이다. 펄 벅은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자선 사업을 벌였는데 특히 전쟁을 겪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1960년부터

25) 시인 정지용도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소사읍 소사리에 3년간 거주하며 지역 성당 창립에 힘을 보탰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지용 거주처 기념표석」,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920>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 구미리내, 앞의 글, 53쪽.

1969년까지 8차례 내한하면서 한국 혼혈 아동을 위한 자선사업을 실천하는 한편 1967년에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에 위치한 유한양행 소사공장 부지에 보호자가 없는 혼혈인과 일반인을 위한 '소사회망원'을 개원하였다.<sup>26)</sup> 이후 펄 벅은 내한할 때마다 소사회망원에 몇 달씩 머무르며 다문화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복지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펄 벅의 이러한 관심과 경험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한국인 가족의 4대에 걸친 수난사를 그린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The Living Reed, 1963)와 한국의 혼혈아를 소재로 한 소설 「새해」(The New Year, 1968)등의 작품에 녹아있다.<sup>27)</sup>

이렇게 여러 유명 문인들의 활동과 더불어 부천 지역의 여러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인회가 결성되는 것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시인 최은휴는 1966년에 부천 최초로 시화전을 개최하고 1967년에는 부천 최초의 백일장 및 문학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하며 부천 지역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28)</sup> 시인 김영달은 1961년부터 심곡동에 거주하면서 시집 『여정』을 출간하는 등의 활발한 작가 활동을 하는데<sup>29)</sup> 이 시기 동안 여러 문인들이 부천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1976년 9월 4일 부천 최초의 문학 단체인 '부천예술동호회' 산하 문학 분과가 만들어지고,<sup>30)</sup> 이후 1978년 11월 14일 최은휴, 이석인, 구자룡, 김연식, 유영자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부

26) 펄 벅의 사회 복지 활동에 대한 내용은 최소연, 「한국 혼혈아동을 위한 펄 벅(Pearl Buck)의 민간사회 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1, 11~12쪽 참조.

27) 한국학중앙연구원, 「펄 벅」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47>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28) 구미리내, 앞의 글, 55~56쪽.

29) 구미리내, 앞의 글, 56쪽.

30)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2, 526쪽.

부천지구회가 발족된다.

1982년 최은휴는 부천 지역 문인들을 집결하여 새로 '부천문학동인회'를 창립하고, 1983년 6월 10일 동인지 『부천문학』 창간호를 발간한다.<sup>31)</sup> 그리고 부천문학동인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부천문협)가 1984년 12월 7일 한국문인협회의 승인을 받아 창립<sup>32)</sup>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1987년 1월 10일 구자룡, 김봉군, 양귀자 등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부천 지역의 문인들이 모여 '부천문우회'를 발기한다. 또한 1988년 11월 11일 문제술, 박수호 등 7명도 '복사골문학회'라는 단체를 창립한다. 그리고 각각 활동하던 두 단체는 1989년 11월에 '복사골문학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고<sup>33)</sup> 1990년 동인지 『부천문단』을 발간<sup>34)</sup>하였다. '복사골문학회'는 시, 수필, 소설, 시조, 영상 문학 등의 다양한 동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수주문학제 등 부천의 문학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복사골문학회'는 부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학 단체로서 자리 잡는 한편 부천 지역 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5)</sup>

그 밖에 2000년 5월 결성된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천지부와 같은 해 7월에 인준을 받은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는 2007년 12월 8일 민족문학작가회의가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통합되어 한국작가회의

---

31)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2, 526쪽.;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천문학동인」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6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32) 이로 인해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부 부천지구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1025쪽.

33)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사골문학회」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2163>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34) 『부천문단』은 2020년 32집까지 발간된 것으로 확인된다.

35) 구미리내, 앞의 글, 58쪽.

경기도지회 부지부로 개칭되었다.<sup>36)</sup>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는 2001년부터 『부천작가』라는 동인지를 발행<sup>37)</sup>하여 2024년 현재 24집까지 발간되었다. 또한 2008년에 설립된 '부천소설가협회'는 2009년부터 무크지 『소

표1. 부천시의 문학단체

단체이름	설립시기	문예지	활동사항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1984	『부천문학』	『부천문학』 발간, 포토시 공모전, 디지털 백일장,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 부천문인협회 시화전, 문학경연
복사골문학회	1989	『부천문단』	『부천문단』 발간, 『내 사랑 복사골문학회』 발행 복사골문학상 부천 시민 시조백일장 수주문학상, 부천신인문학상 주관 다양한 동인 활동
한국작가회의 경기도 지회 부천지부	2000	『부천작가』	『부천작가』 발간
부천소설가협회	2008	『소설과 비평』	『소설과 비평』 발간
부천수필가협회	2005	『부천수필』	『부천수필』 발간 / 수필세미나 개최 수주문학제 참석
부천시인협회	2006	『부천시인』	『부천시인』 발간 시낭송회 / 시화전
부천초등교사문학회	1996	『부천교사문학』	『부천교사문학』
부천아동문학회	2004	『부천아동문학』	문학강의
부천여성문학회	1994	『부천여성문학』	부천여성문학
부천청소년문학회	1999	『부천청소년문학』	
복사골시인협회	2013	『시인들』	
부천디카시협회	2019		수요문학나들이 / 디카시 신인상

3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작가회의 경기도지회 부천지부」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633>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37)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천작가」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5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설과 비평』을 발행하며 동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sup>38)</sup> 2005년 결성된 '부천 수필가협회'는 동인지 『부천수필』을 200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sup>39)</sup> 2006년 결성된 '부천시인협회'는 2007년부터 동인지인 『부천시인』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sup>40)</sup> 이외에도 부천문인회, 부천초등교사문학회, 부천 아동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 부천청소년문학회, 복사골시인협회, 부천디카시협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III. 부천 문학의 확장 and 변화

부천 문학이 형성되는 초반에는 다른 지역 문학들도 그러하듯이 문인 개인의 작품 활동 및 여러 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성된 문인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문학은 점점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지역 문학은 그 지역의 몇몇 문인이나 문인회들끼리 향유하는 문화로 여겨지며 일반 시민들에게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지역 문학의 확장은커녕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문인 개인이나 문인회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 문학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문학을 알리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확장을 꾀하게 되는데 부천 문학도 부천시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38)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천소설가협회」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7007>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39)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천수필가협회」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7010>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40)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천시인협회」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7009>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부천은 1973년 시로 승격될 정도로 경제 및 생활 인프라가 성장했지만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도시였다. 특히 문학의 경우는 부천과 관련된 작품이나 작가의 수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었기에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활동만으로 문학 환경을 발전시키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부천의 문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학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부천시도 재정적,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며 문학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 부천의 문학 관련 행사

지역 문학이 소수의 문인과 특정 단체만의 문학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도 지역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학 관련 행사의 개최이다.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문학 인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다. 부천시와 부천 지역 문인들 역시 이러한 지역 문예 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이어왔다.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축제인 '복사골 예술제'는 1985년 한국예총 부천지부의 주최로 '복사골 종합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sup>41)</sup> 2025년 현재 40회를 맞이하였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 문학과 관련

41) 한국예총 부천지회 홈페이지, 「복사골예술제」, <https://www.artbucheon.com/business/festival.php>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 부천시, 『생활 속 문화 예술의 도시 부천』, 부천시, 2017, 35쪽.

된 행사는 시낭송회, 디지털 백일장, 디카시 공모전, 전통 백일장 등이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응모를 받는 '디지털 백일장'이나 자신이 찍은 사진과 간단한 시(詩)를 적어내는 시 공모전인 '포토시 공모전'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도2. 2025년 제40회 북사골예술제 디지털 백일장 및 디카시 공모전 포스터

수주문학제는 수주 변영로의 민족정신과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문학 축제로 2005년 10월 21일 제1회 대회를 개최했다. 1999년 제정된 수주문학상을 시상하던 행사가 확대된 이 문학 축제는 처음에는 수주문학상 시상식과 변영로의 시 낭송, 변영로의 문학 평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조한 참여로 인해 다시 2011년부터 수주문학상 시상으로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문학 축제의 폭을 넓히면서 수주문학제는 2018년부터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주관으로 확대 개최된다. 새롭게 개최된 수주문학제는 '수주문학상' 시상이 축제의 핵심이지만 북 토크 콘서트,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 이전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

되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10월에 열리는 수주문학제 역시 수주문학상 시상, 관내 문인 단체 및 문학관 부스 진행, 시 짓기, 논개 페이퍼 시어터 만들기 등의 행사를 통해 역시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이루어진다.<sup>42)</sup>



도3. 2025년 수주문학제 포스터

복사골 백일장 사생 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복사골 백일장은 1967년 건국대 부천 동문회 주최로 개최된 백일장을 시초로 삼는다.<sup>43)</sup> 이후 1974년 부천이 시로 승격된 뒤 복사골 백일장은 부천문화원 주최로 변경되며 ‘제1회 복사골 백일장 사생대회’로 확대 개최되었다. 2010년 제37회를 끝으로 복사골 백일장 사생대회는 중단되었으나, 수주문학제와 마찬가지로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뒤인 2018년 5월 38회

42) [부천시박물관]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 부천시 박물관 홈페이지, 2025. 9. 30., <https://www.b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23292&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C%88%98%EC%A3%B-C%EB%AC%B8%ED%95%99%EC%A0%9C&menuLevel=2&menuNo=8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43)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사골 백일장』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1881>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2025년 제44회로 개최된 복사골 백일장 사생 대회는 장승제, 우물제, 산신제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수상작은 별도로 전시<sup>44)</sup>되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도4. 2025년 복사골 백일장 사생 대회 포스터

시인이자 동요 작곡가인 목일신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목일신 문화재단에서는 2023년부터 '목일신 캠프 백일장'을 제정하여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동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동시 3편을 제출받아 예선을 치러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백일장을 치르는데 본선 참가자는 모두 입상 대상자이다. 2025년 제3회 대회를 개최하는 목일신 캠프 백일장은 전국에서 153명이 응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부천 지역의 문학 행사로서 점차 자리 잡고 있다.<sup>45)</sup>

44) 부천문화원 홈페이지, 「제44회 복사골 백일장 사생(그림) 공모전 선정 결과 및 전시, 상장, 작품집, 기념품 수령 안내」, 2025. 6. 4., [https://www.bucheonculture.or.kr/bbs/board.php?bo\\_table=F010101&wr\\_id=602&page=1](https://www.bucheonculture.or.kr/bbs/board.php?bo_table=F010101&wr_id=602&page=1)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45) 목일신 문화재단, <https://www.mokilsin.org/96aw2cv4>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이 행사에서는 작가 초청 강연 및 북콘서트, 출판사 서점 부스와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매년 9월 개최되는 '부천 북페스티벌'은 2025년 제25회 축제를 개최했다. 부천 지역 도서관 및 서점 조합, 책방 네트워크 등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주최측에서는 도서 전시 및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 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는 부천시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책 콘서트 및 책과 관련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규모를 넓히고 있다.<sup>48)</sup>



도6. 2025년 부천 북 페스티벌 및 프로그램

부천은 지역 문인회와 함께 오래전부터 백일장이나 예술제 등의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학 활

48)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2025년 부천 북 페스티벌, <https://www.bcl.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1900400600101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27일)

행사명	프로그램	시기	대상	주최·주관
복사골예술제	시낭송회	매년 5월	작가, 시민	주최 : 부천시 주관 : 한국예총 부천시 회 복사골예술제추진 위원회
	포토시 공모전		작가	
	디지털 백일장		시민	
	전통백일장		시민	
수주문학제	수주문학상 시상	매년 9-10월	작가 및 시민	주최 : 부천시 주관 : 부천문화재단 수주문학제운영위원회
	문인 단체 및 문학과 부스 체험프로그램			
복사골 백일장 사생 대회	복사골 백일장	매년 9월	시민	주최 : 부천시 주관 : 부천문화원
목일신캠프 백일장	시 백일장	매년 11월 (본선)	시민 (초등 학생)	주최/주관 : 재단 법인 목일신문화재단, 부천시
북 페스티벌	책 콘서트	매년 9월	시민	주최 : 부천시 주관 : 부천시립도서관
	체험부스			
	야외 도서관			
	독서존 운영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2017년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그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행사도 늘어났으며 행사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부천 시민들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전보다 더 자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역 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 2) 문학상 및 심포지움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학 관련 축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타 지역 사람들의 참석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먼 거리나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주민들

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학 관련 축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학을 넓고 다양하게 체험하게 하여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역의 문학 환경을 외부에 알리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부천시 및 문화재단, 부천 문인회, 부천에 적을 두고 있는 문학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학상 시상식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문학상은 이를 주관하는 단체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는 장르와 내용이라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의 경우 전국에서 해당 문학상에 응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문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부천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문학상은 물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외국의 문학까지 포용하는 문학상이 존재한다.

수주문학상은 부천을 대표하는 시인인 수주 변영로의 시 정신과 그의 문학에 담겨 있던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시(詩) 문학상이다. 1998년 변영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는 문학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천시가 문학상의 제정을 추진했다. 다음 해인 1999년 미등단, 신인, 기성 문인 등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문학상을 공모<sup>49)</sup>한 수주문학상 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21일 제1회 수주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 작품 1점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후 매년 수주문학상은 단독으로 개최되다가 2005년 '수주문학제'가 마련되면서 이 축제로 편입되어 수주문학제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가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주문학제가 문학 행사에 대한 낮은 관심과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잠

---

49)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제가 걸어온 길」 『부천시민신문』, 2022. 11. 29., <http://www.bucheon21.com/50243>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정 중단되면서 수주문학상은 2011년부터 다시 단독으로 운영된다. 그러던 중 2017년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문학과 관련된 인프라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에 중단됐던 수주문학제가 부활했고 수주문학상도 다시 수주문학제의 핵심 행사로 포함된다. 매년 시 한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수주문학상은 2025년에 제27회를 맞아 498명이 4,061편을 접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시 한 편을 선정하였고 10월에 시상식을 갖는다.<sup>50)</sup>

한편 2004년에 변영로의 문학과 삶에 대한 논문과 평론 등을 수록한 무크지 『수주문학』이 창간된다. 여기에 같은 해 시상된 제6회 수주문학상의 당선작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된 『수주문학』에는 당



도7. 2025년 제27회 수주문학상 공모 포스터

50) [부천시박물관] 2025년 제27회 수주문학상 작품 공모, 부천시 박물관 홈페이지, 2025. 5. 12., <https://www.b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23028&page=1&-searchCategory=&searchType=total&searchWord=%EC%88%98%EC%A3%B-C%EB%AC%B8%ED%95%99%EC%A0%9C&menuLevel=2&menuNo=8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해의 수주문학상 당선작과 심사평, 당선 소감이 함께 수록되어 수주문학상의 위상을 높였다.<sup>51)</sup> 그러나 『수주문학』은 2017년 14집을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고 이후 수주문학상의 당선작은 월간지 『현대시』에 게재되고 있다.

부천신인문학상은 부천의 문학 발전과 지역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부천문화재단에서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문학상이다. 부천 지역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모 자격은 기존에 등단한 이력이 없는 미등단자로,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부천 소재 직장·학교 재직·졸업자, 과거 3년 이상 거주·근무자, 부천 출생자 등 지역 연고가 있어야 한다.<sup>52)</sup> 2004년 첫 시상식 이후 2017년 제14회까지 단독으로 열렸던 부천신인문학상 시상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주문학상과 함께 매년 10월에 열리는 수주문학제 기간에 개최되었으나, 2024년부터 다시 수주문학제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2025년 제22회를 맞는 부천신인문학상은 7월에 소설, 시, 아동문학(동화 혹은 동시), 수필, 극 일반 부문으로 공모를 받았고 접수된 총 288편 중에서 각 부문별로 한 편씩 뽑아 11월에 시상한다.

‘펼벽기념문학상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한국 전쟁 이후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하고 혼혈아와 전쟁 고아를 돌본 사회 사업가인 펼벽의 문학적 업적과 인간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문학상이다. 부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부천펼벽기념관이 주관하는 ‘펼벽기념문학상은 초, 중 고등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문, 산문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받는다. 펼벽이 평생 실천했던 인간 존중과 다문화 어린이

---

51) 『수주문학상·수주문학제가 걸어온 길』 『부천시민신문』, 2022. 11. 29., <http://www.bucheon21.com/50243>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52) 부천문화재단, 다양한 문학상으로 지역 문학 활성화, 부천시 박물관 홈페이지, 2025. 5. 23., <https://www.bcmuseum.or.kr/ko/boards/notice/625>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도8. 2025년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 포스터

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문학상이기에 펄벅 기념 문학상은 인권과 다문화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공모한다. 2025년에 제16회를 맞이한 펄벅기념문학상<sup>53)</sup>은 ‘광복’을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펄벅 탄생 기념 그리기 대회<sup>54)</sup>의 시상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펄벅이 평생 작품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보여준 문학 적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과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펄벅 국제 심포지움이 2025년 부천에서 개최되었다. 부천펄벅기념관이 중국 진장시(镇江市) 펄벅연구회, 미국 펄벅인터내셔널,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와 2019년부터 개최해 온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부천에서

53)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25년 제16회 펄벅기념문학상 작품 공모」, 2025. 5. 14., <https://b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2303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D%8E%84%EB%B2%85&menuLevel=2&menuNo=8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54)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25 제17회 펄 벅 탄생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안내」, 2025. 6. 24., <https://b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2309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D%8E%84%EB%B2%85&menuLevel=2&menuNo=8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열린 것이다.<sup>55)</sup> 펄벅의 인권 활동과 더불어 문학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부천이 가진 문학적 위상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펄벅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천 문학의 확장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있으며 그 위상도 인정받고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1년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다.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정된 국제문학상인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이주국에서의 적응과 타자성, 문화 혼종성을 다루는 등 이주민들의 경험과 삶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sup>56)</sup>이다.

19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낯선 곳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수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문화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혼성 문화를 만들어 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학적 상상과 창의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감정을 문학으로 표현한 것이 ‘디아스포라 문학’이다.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뒤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과 성취에 주목하여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학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학을 통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했다.’<sup>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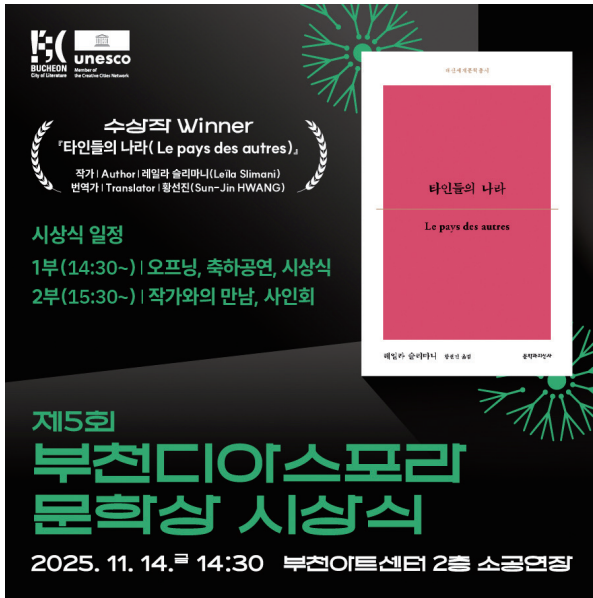
한국어나 영어로 된 작품 중에서 디아스포라 주제 장편 소설이나 현존 작가의 작품을 추천받은 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편씩 수상작을 선정한다. 2021년 11월 23일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이 시

---

55) 부천문화재단,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2025. 9. 5., <https://b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5&boardNo=12324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D%8E%84%EB%B2%85&menuLevel=2&menuNo=86>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56)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홈페이지, <https://budilia.or.kr/intro1.do>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57)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홈페이지, 같은 글.



도11. 2025년 제5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포스터

상 이름	제정 시기	응모 범위	시상 부문	주최	주관
수주문학상	1999	역대 수주문학상 수상자를 제외한 전부	시	부천문화재단 (수주문학관)	수주문학제 운영위원회
부천신인 문학상	2004	부천시 거주 혹은 근무한 이력이 있는 미등단자	소설, 시, 아동문학, 수필, 일반극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회
필벽 기념 문학상	2008	초, 중, 고등부 청년부	운문(시) 산문 (소설, 수필등)	부천문화재단 (부천필벽기념관)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2021	추천 받아서 시상	소설	부천시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운영위원회
필벽 국제 심포지엄	2019	국제심포지엄		부천문화재단 (부천필벽기념관)	

\* 2025년 현재 기준

행된 뒤 매년 11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최종 후보작 12편 중 한편이 선정되어 11월에 시상식이 이루어졌다.<sup>58)</sup>

### 3)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부천의 문인들과 부천시 등은 오래전부터 문학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학과 관련된 축제, 백일장 및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부천의 문학을 접하고 향유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영상 매체에 몰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다. 이에 문학 관련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크게 감소하여 몇몇 축제나 시상식은 행사 시행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부천 문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천은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지원해 가입에 성공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시작<sup>59)</sup>된 국제 네트워크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의 7개 창의 분야로 나누어 선정되는데 2017년 11월 부천시는 동아시아 최초이자 21번째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

58)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홈페이지, 「2025년(제5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작가와의 만남 참여신청!」, 2025. 10. 31., <https://budilia.or.kr/newsDetail.do?seq=356> (검색일자 : 2025년 11월 10일)

5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unesco.or.kr/creative/>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한때 문학의 불모지로 여겨졌고,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서관이었다. 부천시는 대형 도서관 12개,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107개, 대형버스 6대를 이용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문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sup>60)</sup> 여기에 변영로로 대표되는 부천 출신의 문인들과 양귀자, 필 벽 등 부천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작가와 작품들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러 문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인 활동을 하며 문예지를 발간하고 일반 시민들이 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문학 인프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부천이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를 문학에 통해 다양한 시민의 창의성을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sup>61)</sup> 부천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서 서술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비롯,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부천 레지던시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 (1)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에서 2022년 3월 제1기로 시작한 1년제 전문 스토리텔링 양성기관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스토리텔링 전문 기관이다.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 능력을 지닌 창작자를 교육하고 창의인재를 발굴·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비는 부천시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스

60)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을 소개합니다.」 『생생부천』 2019. 5. 25., <http://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51>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61)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홈페이지, <http://bucheoncityofliterature.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23003001>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토리텔링의 기본 이론 및 이야기의 서술 기법, 작문 등을 교육하는 기본 과정이 상반기 6개월 동안 2학기에 걸쳐 이루어진다. 하반기 심화과정에서는 실제로 스토리를 창작하고 워크숍을 갖고 이를 통해 완성한 콘텐츠를 응모하는 등 스토리텔링의 실질적인 창작 과정이 진행된다. 한 해 정원 40명으로 구성되며 매체, 장르, 창작 목적에 제한 없이 실용적·대중적 이야기와 예술적 이야기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 2025년 현재 4기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sup>62)</sup> 이미 졸업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 장르의 프로젝트 및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sup>63)</sup>

## (2) 부천 레지던시

2020년부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예술 창작인들에게 부천 지역의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한 도시끼리 진행되는 해외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에 속한 도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다른 네트워크 도시에 가서 일정 기간동안 머무르도록 지원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도시로 가서 4~6주간 머무르며 작품 창작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현지의 작가들이나 독자들,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와 교류 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이나 교류 활동 등을 발표한다. 이로써 작가는 자신이 살았던 곳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낯선 곳이 주는 생경함을 통해 영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동시에 이들의 교류 활

62) 부천 스토리 창 홈페이지, 「제4기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 학생 모집」, <https://bucheonstorytelling.or.kr/noticeDetail.do?seq=7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63)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와 관련된 자료는 부천 스토리 창 홈페이지 참조. 「스토리텔링아카데미」, 부천 스토리 창 홈페이지, <https://bucheonstorytelling.or.kr/storyAcademy.do>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동을 통해 도시들끼리 문학과 문화 교류에도 일조한다.

2020년에 시작한 부천 레지던시 사업은 작년까지 5년 간 10명의 해외 작가가 부천에 입주해 활동했고, 부천에 거주하고 있던 3명의 작가가 유네스코 네트워크 도시인 호주 멜버른, 캐나다 퀘벡,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활동했다.<sup>64)</sup> 이렇게 참가한 외국 작가들과 부천의 작가 및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며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폭 넓은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부천 레지던시에 머물다 간 해외의 작가들은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학 인프라를 경험한 뒤 돌아가서 자신의 창작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부천의 문학을 해외에 알려 부천 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 (3) 부천문학지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지정된 후, 2018년 부천시는 부천시의 문학 관련 기관과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천문학지도’를 제작하여 부천 곳곳에 숨겨진 문학 자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9년 시민이 추천한 동네의 문화·문학 창의 공간과 수주 변영로, 목일신, 정지용, 양귀자, 펄벅 등 부천 문인의 주요 작품을 수록하여 새로운 버전의 ‘부천문학지도’를 제작하였다.

‘2019년 부천문학지도’에는 부천펄벅기념관 등 주요 문학기관과 변영로교, 양귀자교, 펄벅교, 목일신교 등의 문인들의 이름을 딴 다리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공원 속 미니 책방 등의 일상 속 문학 명소, 지역 내 독서문화공간인 동네 서점, 도서관, 만화, 시민 추천 공간 등 주제별 문학 명소를

---

64) 강종구, 「부천시, 해외 작가 레지던시 활성화...」부천 살며 창작」, 연합뉴스, 2025. 5. 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62700065>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담아 지도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sup>65)</sup>



도11. 부천문학지도 한글판

부천의 문학 행사는 다른 지역 문화 행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천 지역의 문인 및 문인회,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중심의 행사 및 백일장이나 작가상 등 전통적인 문학 행사 위주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이러한 문학 행사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행사 및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천 지역의 작가 및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작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부천 레지던시, 문학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문학 창작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인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거기에 시민들이 언제 어

65) 「문학 명소 따라 걸어요」 2019년판 부천문학지도 제작 『생생부천』, 2019. 9. 11., <http://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디서나 쉽게 문학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고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천문학지도’ 역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색다른 콘텐츠이다. 이러한 색다른 콘텐츠는 부천 시민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즐기고 더 나아가 전문성까지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예 행사인 지역 축제나 문학상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서 수주문학제나 복사골 백일장처럼 중단되었던 지역 문학 행사를 다시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행사의 중단으로 축소 운영되었던 시상식 역시 이전보다 더 풍부하게 시행되고 이로 인해서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부천에서 진행되는 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여 그 규모가 매년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작품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시상식은 부천 레지던시와 더불어 부천 문학의 인프라가 해외로까지 넓어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는 부천 문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되고 다양화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IV. 결론

부천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의 규모도 작고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이유로 도시화도 비교적 늦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도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여 도시 발달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천의 문화 환경 조성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일찍부터 한국의 문화 인프라는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부천보다는 서울에서 작품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상황으로 인해 부천의 문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을 사랑하는 문인과 그들이 모여서 만든 문인회를 중심으로 부천 문학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천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1980년대가 되면 부천 문학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로도 백일장이나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 부천의 문인들을 기념하는 행사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며 부천 문학은 일반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일반 시민들에게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부천의 문학 행사나 환경이 점점 축소되던 중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부천의 문학 환경은 크게 변화한다. 전통적인 문학상이나 문학 축제가 재시행되거나 확장되는 한편 부천 레지던스나 부천 스토리텔링아카데미 등 부천에서만 할 수 있는 문학 콘텐츠가 생겨난 것이다. 또한 전국 단위 문학상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위상의 문학상도 마련되는 등 부천의 문학은 과거 문학의 불모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과 확장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부천 문학을 지켜왔던 문인들이나 부천 지역의 문인회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부천 문학의 규모가 확장되고 새로운 문학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소규모의 문인회나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지는 전통적인 장르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더 축소되는 것이다. 부천 문학의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부천 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천의 문인들이나 문인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학의 장르도 다양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 향

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학의 근간은 인간의 삶과 감정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를 재구성하는 문인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부친 문학 인프라의 확장과 함께 내실의 풍부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부천시민신문』

『부천타임즈』

『새부천신문』

『생생부천』

『연합뉴스』

구미리내, 『부천 문학, 100년 앞에 서다』 『부천, 100년 문학을 걷다』, 산과들, 2018.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의 재발견』, 부천문화원, 1996.

부천시, 『생활 속 문화 예술의 도시 부천』, 부천시, 2017.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제3권, 경기출판사, 2002.

이재욱, 『소사를 사랑했던 시인 이상로』 『다시 찾은 부천 인물』, 부천문화원, 2013.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홈페이지, <https://budilia.or.kr>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bcf.or.kr> (검색일자 : 2025년 10월 17일)

부천시 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bcmuseum.or.kr>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홈페이지, <http://bucheoncityofliterature.or.kr/site/main/unesco2>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한국예총 부천지회 홈페이지, <https://www.artbucheon.com>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s://bucheon.grandculture.net>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자 : 2025년 9월 27일)

## 목차

---

I. 서론

II. 공업도시 부천의 성장과 쇠퇴

III. 부천 문화도시 정책의 전개

IV.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 탐색

V. 결론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천 문화정책의 전개와 향후 방향<sup>1)</sup>

이준일<sup>2)</sup>

## 1. 서론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전환은 한국의 지역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각 도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균질적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재편과 수도권 규제, 인구 이동 등 구조적 요인들이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방안으로 문화를 지역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압축성장을 경험한 부천 또한 1970~1990년대에 걸친 급격한 도시 팽창 이후, 탈공업화와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천시는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기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복사골예술제 등 축제·콘텐츠 중심의 이미지 전략을 전개

---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정책 분석-부천시, 세종시, 영주시를 사례로-」(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 부천시박물관 소속 부천활박물관 학예사

했으며, 이후에는 생활문화·박물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책의 중심을 확장하였다. 특히 2017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과 2019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부천의 문화정책이 단순한 '전략'의 수준을 넘어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책' 단계로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문화정책의 확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흐름이기도 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이를 '새로운 도시 위기'로 규정하며,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젠트리피케이션·중산층 붕괴·도시 외곽의 빈곤화 등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지역의 내생적 성장력과 사회 통합적 도시화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격차 확대를 경험한 한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각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정책은 더 이상 예술지원의 한정된 범주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산업·복지 등과 연계되는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전영수는 지역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예산투입 → 사업 실행 → 이익 확보 → 운영 지속 → 고용 창출 → 소비 증가 → 세수 확대 → 지역 부활'의 과정으로 제시하며, 지역문화정책이 정부 주도의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 속에서 자생력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4)</sup> 또한 임학순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문화정책 연구 동향을 분

3) 리처드 플로리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경제발전·젠트리피케이션·빈부격차』, 매일경제신문사, 2023, 29~34쪽.

4) 전영수,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라의논, 2023, 54~55쪽.

석하면서,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문화정책이 문화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연구의 초점이 변화했음을 지적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부천의 문화정책은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됐다. 부천은 산업화 기반 위에 형성된 도시지만, 문화도시 전략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도시 쇠퇴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천의 문화정책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문화도시로의 전환, 박물관 확충 정책,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부천의 사례를 통해 문화정책이 지역 활성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 타 지자체 문화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사례연구 접근을 취하였다. 부천시를 목적표집<sup>6)</sup>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분석을 병행하였다. 현지조사와 인터뷰, 시사자료 및 정책문서, 공공기관 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천의 지역문화 관련 전시·포럼·콘퍼런스·시민활동 등 문화현장을 참여관찰하여 정책의 실제 운영 양상과 시민의 인식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부천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정책적 논리를 통해 발전해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문화도시 부천의 구조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5)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논총』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25~48쪽.

6)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참여자로 삼는 표집방법(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1』, 아카데미프레스, 2016.)

## II. 공업도시 부천의 성장과 쇠퇴

### 1) 경인선 개통과 도시화

1899년의 경인선 개통은 부천의 도시적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망 확충으로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소사역(현 부천역) 인근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근대적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41년 소사면이 소사읍으로 승격되며 도시적 위상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1960년대 들어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의 정비는 도시공간의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영등포-소사-동인천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이 형성되었고, 저렴한 자가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수천 개의 기업체가 자리 잡았다. 이 시기의 부천은 중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성격을 고착하였다.

1974년 경인철도에 통근형 전동차가 도입되자 부천은 서울 및 인천과의 통근권 도시로 기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시 승격 직후인 1973년 65,080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경인전철 개통 직후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에는 109,236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불과 5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부천은 전형적인 급성장 도시의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0년 22만여 명 수준이던 인구는 1985년 45만여 명, 1986년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1989년에는 64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1990년 인구는 약 66만 명에 달해 시 승격 기준으로 11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시로 승격된 성남시(4배), 안양시(5배)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수치라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중동신도시 건설은 부천의 인구증가에 또 다른 동력이 되었다. 약 165만 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춘의동, 삼정동, 삼곡3동, 상동, 중동, 송내동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초기 17만 명 유입을 목표로 했으나 1995년을 전후하여 실제로는 26만여 명이 유입되었다. 이는 당시 부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전환기를 맞는다. 부천의 인구는 2010년 875,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세계적 인구감소 추세와 맞물려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현재 인구는 769,9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향후 대장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다시 80만 명을 웃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sup>7)</sup>

## 2) 수도권 규제와 베드타운

1990년대까지 부천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는 '농촌', '산업화', 그리고 '위성도시'였다. '소사 복숭아'로 대표되는 농업지역이던 부천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소규모 제조업의 쇠퇴와 택지개발의 포화로 인해 더 이상 인구 유입이 지속되지 않았고, 이는 주민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1995~2006)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천의 도시경제 구조가 전형적인 탈공업화 현상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7)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부천시, 2023, 55쪽.

표1. 부천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8)

연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1997	8,670	74,797	855	5,526	13,211	32,430	8,314	18,191	2,429	8,524
1998	8,030	67,476	716	3,618	12,520	30,116	8,085	17,050	2,456	7,685
1999	8,993	74,502	807	3,823	12,912	31,152	8,825	19,603	2,638	9,404
2000	9,437	81,422	902	4,794	12,892	32,115	8,648	21,035	1,947	5,683
2001	9,464	79,097	749	5,283	12,463	32,231	8,624	22,382	2,003	5,754
2002	9,533	80,689	863	7,374	12,572	36,975	8,942	24,300	2,362	7,019
2003	9,056	77,439	962	9,344	12,397	35,639	9,261	25,795	2,564	8,302
2004	9,109	75,444	1,014	8,285	11,950	32,979	9,113	24,475	2,464	7,799
2005	9,165	72,132	1,091	7,218	11,706	32,657	8,656	24,082	2,479	7,325
2006	9,255	69,963	1,153	8,564	11,622	33,212	8,595	23,892	2,628	7,628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은 기업 유치와 산업 성장에 제동을 걸었고, 기존 기업들은 점차 수도권 외부로 이전하였다. 특히 택지개발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인구 유입은 둔화하였고, 인구 정착률은 높아졌으나 그만큼 도시의 활력은 약화하였다. 더구나 인구와 공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심화하면서 ‘공업도시’, ‘베드타운’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 정체성과 자긍심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부천이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미건조한 위성도시로 인식되는 원인이 되었다.

8) 부천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수록기간 1995~2006), 정책기획과.

탈산업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인구 정체, 도시 이미지의 노후화는 부천의 문화정책 전환을 촉발한 핵심 요인이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부천은 산업기반의 쇠퇴를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의 경제적 위기를 문화자원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이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만화축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문화콘텐츠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부천의 도시화 과정은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의 성장, 수도권 규제와 탈공업화로 인한 쇠퇴, 문화정책을 통한 도시 정체성 재구축이라는 3단계 구조적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 III. 부천 문화도시 정책의 전개

#### 1)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전략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중앙에 집중된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의 성장을 지향하였다. 이는 각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불러왔고, 그 결과 지역 간 경쟁은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도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파하기 위한 문화적 기획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지적한다.<sup>9)</sup>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문화로부터 정체성을 찾고 이를 산업화하는 ‘문화도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한국의 문화도시 논의를 촉발했던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도구적 가치 중심의 문화도시 이념이 문화

9) 원도연, 「문화도시론의 발전과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13, 2008, 139쪽.

의 본연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도시 이념과 그 실천으로서 대체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도시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도 지방자치제 이후로 여겨지며, 지역이 외부, 특히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면서 문화는 지역의 자생 기반 구축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sup>10)</sup>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즉 발전의 도구로서 문화의 유용성에 주목한 문화도시”와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의 의미에 주목하여 다양성과 창조성이 발현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도시<sup>11)</sup>”로 관점이 양분되었다. 이병량은 문화도시 담론의 발전을 ‘이념으로서의 문화도시’, ‘전략으로서의 문화도시’,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로 구분하며, 이러한 단계적 진화를 통해 문화도시 개념이 제도적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이념으로서의 문화도시가 전략으로 전환된 계기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한국의 도시가 채택하고 추진한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특징은 “문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의 목표를 지녔다는 점<sup>12)</sup>”이다.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추진은 문화도시 슬로건 채택, 문화축제 개최, 문화시설 조성 등의 수행으로 나타났다. 이념으로서 문화도시를 논의하는 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sup>13)</sup>”

10) 이병량, 『한국 문화도시의 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념, 전략,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한국정책연구』 23(1), 2023, 50쪽.

11) 이병량, 같은 글, 2023, 56쪽.

12) 김기근,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광주, 전주, 부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5~6쪽 ; 원도연, 앞의 글, 137~164쪽.

를 지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전략으로서의 문화도시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도시발전의 도구로 인식 및 활용되었다.

문화도시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환한 중요한 계기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다. 이 법률로 문화도시가 법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문화도시의 지정과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문화도시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현상과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sup>14)</sup>”로 정의하였다. 정책으로서 문화도시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이전의 문화도시 전략과는 달리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 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역 고유의 가치,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문화향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이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된다. ‘문화 도시(Cultural City)’ 조성은 경제발전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도시 철학으로 주목받으며 사회 전반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15)</sup> 문화도시 개념은 지역문화정책의 지속적 목표로 인식됐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법정 문화도시라는 문화정책 사업 용어로 자리 잡았다.

부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철학적 개념에서부터 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정책 사업으로 자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6, 86~87쪽.

14)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글, 2016, 86쪽.

15)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gasse-아카데미, 2020, 101쪽.

리를 잡기까지에 걸쳐서 이어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도시문화는 산업화를 추구하는 공업도시가 최선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 이후의 도시문화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 기반의 공업도시 발전이 하향곡선을 이루기도 했지만, 여태까지의 산업도시가 아닌 다양한 도시문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 것이다.

부천의 문화도시 정책 또한 이러한 전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부천이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때부터이다. 1995년 민선1기의 이혜선 시장(15대 1995~1998)은 '문화'를 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부천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공업도시, 위성도시로 각인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를 내세운 것은 역사·문화적 배경이 약한 부천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이 수도권 규제 및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문화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에 집중하여 경제적 성장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 2) '박물관이 많은 도시' 전략과 테마박물관 확충

1990년대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후부터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 또는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화 시설 확충이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최근 15년간 박물관·미술관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sup>16)</sup>를 보일 만큼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부천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민선3기(2002~2006) 시정에서 '공원이 많은 도시, 주차

---

16) 김면·노수경·정수희,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3쪽.

장이 많은 도시,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핵심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시정목표로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명시하였다. 이는 관광도시로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박물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sup>17)</sup>

시는 박물관을 권역별로 특성화해 5대 문화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자원과 효율적인 접목은 물론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교육적인 주제 성격이 강하면서 시설투자가 쉬운 박물관을 우선 건립해 시범권역으로 유도할 계획을 세우고<sup>18)</sup> 단기 2001~2006년, 중기 2006~2010년, 장기 2010~2021년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시는 적극적인 확충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3~2004년 사이 4개의 테마박물관이 연속적으로 개관하였다. 교육, 수석, 활 박물관 모두 무상 기증 형태였고, 개인 소장품을 기증하는 대신 기증자를 공립박물관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통합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sup>19)</sup>

표2. 2000년대 초 부천시 박물관 현황 및 계획 20)

구분	도입시설
대상지역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상동근린공원
운영 중인 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 물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부천향토역사관

17) 강덕면, 「부천시 박물관 정책의 현황」, 『부천시 문화환경 조성과 박물관 프로젝트』, 부천문화재단, 2002, 60쪽.  
 18) 박은실, 「부천 박물관벨리의 근린공원부지 활용실태와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46, 2002, 126쪽.  
 19) 김혜인, 「지방자치단체와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63쪽.  
 20) 신자은, 「부천 박물관 클러스터의 형성과 전개-박물관벨리 계획과 클러스터의 과도적 운영 (2002~2017)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3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101쪽.

구분	도입시설
단기 2001~2006	유럽자기박물관,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식물원, 펄벅기념관, 경기도립미술관, 선사유적박물관, 삼변기념관, 김치 박물관, 영화박물관, 영상자료원 등
건립, 유치 대상박물관 중기 2006~2010	웅기박물관, 교통박물관, 민속놀이체험관, 활박물관, 애니메이션 박물관, 공업사박물관 등
장기 2010~2021	국가상징박물관, 교육박물관, 광물보석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조리박물관, 수석박물관 등

30여 개의 박물관 확보를 목표로 한 이 계획은 상당수가 기증 기반 박물관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유치 실패와 예산 제약, 정책 우선 순위 변화 등으로 일부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후 계획의 수정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의 현실성 부족과 부천시의 문화정책 상 주안점의 변경도 한 요인이다. 2010년대 초반 이후 부천시에는 박물관의 집적이 형성되어 있고 여전히 박물관을 시 문화정책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였지만, 지역 소재 박물관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통합박물관 건립계획이 처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5년 발행된 「Vision Bucheon 2025」 장기 발전계획에서다. 2015년 2월에는 ‘박물관 이전 건립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박물관(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과 기존 웅기박물관과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통합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한다<sup>22)</sup>”라고 과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Vision Bucheon 2026」에서는 부천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과 함께 ‘분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전문

21) 강덕면, 앞의 글, 61쪽.

22)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박물관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 2015, 1쪽.

박물관을 통합하여 “뮤지엄 콤플렉스”로 조성,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임시 설치한 박물관(교육, 유류자기, 수석)을 여월동 옹기박물관 후면부로 이전 통합하여 부천시립박물관으로 조성으로 구체화 되었다.

「Vision Bucheon 2028」에는 박물관 건립 사업 확정으로 '소사로 638 옹기박물관 후면 부지에 사업비 92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48㎡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3개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부천시립박물관 건립'이라고 부지, 사업비, 규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Vision Bucheon 2029」에서 부천시립박물관이 착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Vision Bucheon에 나타난 박물관 관련 정책

연도	전략방향	중점추진사업	세부추진사업
2010	문화 예술 기반구축	박물관 벨리 조성	특수 박물관 유치, 펄벅 기념관 건립, 옹기민속마을 조성, 수주기념관 건립,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자연사 생태 박물관 건립, 문화산업 박물관 Complex 조성
2023	부천형 문화 공간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칠기 박물관 설치
2025	부천형 문화 공간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통합(옹기 등) 박물관 건립
2026	문화 공간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박물관(통합박물관) 건립
2027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박물관(통합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2028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박물관(통합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펄벅테마파크 조성
2029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테마형 박물관 건립	수주 박물관 건립, 고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박물관(통합박물관) 건립,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펄벅테마파크 조성

처음 박물관 정책이 구상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2020년 12월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 등 4개의 테마박물관이 하나로 통합된 부천시립박물관이 개관했다. 기존 옹기박물관은 '옹기관'으로, 교육, 유럽자기, 수석 소장품은 '통합관'으로 재편되었다. 통합박물관 건립에는 장기간 논의 되어 온 박물관 정책뿐 아니라,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의 협소성·접근성 문제, 부천도시공사 공간 운영 한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3)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부천 문화정책이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한 '전략적 시기였다면, 2017년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지정과 2019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부천의 문화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책'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부천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통해 발전해 온 도시이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였지만, 한편 노동자를 위한 야학이 활성화되었고 노동 관련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이주민을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천은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확충에 주력하였다.

현재 부천시의 도서관은 109개(2025년 기준)로 “걸어서 5분 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1-2일 내 원하는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활문화 기반의 공공 문화정책을 상징한다.

이러한 인프라와 시민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은 유네스코 창의도

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가입을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영화, 음악, 공예·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도시가 상호 협력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문학 분야에서는 에든버러, 더블린, 프라하 등이 대표적이다. 부천은 2017년 세계에서 21번째, 동아시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부천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후 '문화산업전략과'를 신설하였고 신청서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창의도시 전담팀을 구성했다. 2019년 창의도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산업 진흥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행정 전반에 걸쳐 구현되도록 하고 있으며, 문학의 장점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및 게임산업, 음악과 춤 등 다양한 창의 영역과 융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사업으로 '일인일저(一人一著) 프로젝트', '문학창의 아카데미', '이주민 여성 문해사업', '문학 번역 지원', '괴담 프로젝트' 등의 국내 사업과 더불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부천 레지던시', '문학 포럼 및 워크숍' 등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학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가, 학계, 출판계 간의 연대를 강화하며, 도시 문화정체성을 세계 문학도시들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이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부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외연 확장적 사업이라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 내부의 문화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내생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부천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2019년 이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문화정책 흐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2018년 5월에는 문화도시 지정 도시 모집과 12월 예비 문화도시 선정이 이루어졌다. 20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7개, 2021년 1월 제2차 문화도시 5개, 2021년 제3차 문화도시 6개, 2022년 12월 제4차 문화도시 6개가 지정되었다. 부천은 2019년 7월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와 함께 2019년 12월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문화도시는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천은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슬로건은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이다. 타도시가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지역적 특징이 관련된 주제를 드러내는 사업명인 반면, 부천은 ‘시민’과 ‘생활문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과<sup>23)</sup>

지자체	기본분야	사업명
경기 부천시	사회문화 중심형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사회문화 중심형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지역자율형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문화산업 중심형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지역자율형	철의 도시, 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형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지역자율형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21, 29쪽.

법정 문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해 지자체는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지역문화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sup>24)</sup>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이 스스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부천은 1990년대 이후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이 부족한 공업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그동안의 정책적 축적이 제도적으로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예산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부천의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예산은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약 111.3%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부문은 169.1% 증가하였다. 문화도시 지정 이후 시의 문화정책이 확대되고, 문화산업 및 생활문화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5. 법정문화도시 지정 후 부천의 문화예산 증가율(본예산 기준-세출총괄) <sup>25)</sup>

구분	2017년 예산(구성비)	2020년 예산(구성비)	예산증감률(구성비증감률)
문화 및 관광	84,717,086(6.89)	178,977,082(9.51)	111.3(2.62)
(문화예술)	49,577,154(4.03)	133,436,179(7.09)	169.1(3.06)

요컨대, 2017년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과 2019년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부천이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행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사건이다. 전자는 부천을 세계문학의 네트워크 속에 위치시킨 국제적 인식의 확장이며, 후자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실질적 정책 전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24)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연구, 44쪽.

25) 부천시 홈페이지 예산현황 참고.

#### IV.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 탐색

##### 1)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해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버팔로 등 대표적인 산업도시들의 현재 인구는 가장 융성했던 1950년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sup>26)</sup> 한국 또한 제조업 기반의 약화가 진행되었으며, 부천은 이러한 구조 변동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부천시는 탈산업화에 따른 도시 쇠퇴 위험에 대응해 문화산업화를 도시전략으로 채택했고, 그 출발점으로 1997년 국제영화제(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BIFAN)를 기획·개최하였다. 같은 해 착수된 상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부지를 '영상문화단지'로 육성하는 구상도 병행되었으나,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1998년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선포한 이후, 민선 1~6기 슬로건은 '문화' 키워드에 수렴하였다.<sup>27)</sup> 다수의 지자체가 '문화·관광·역사·자연'의 포괄적 조합을 내세우던 것과 달리, 부천은 단일 콘셉트인 '문화'에 집중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쇄신과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28)</sup>

정책방향에서도 문화예술기반구축과 5대 문화사업에 비중을 두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만화정보센터, 복사골예술제의 5대 문화사업은 도시

26) 모종린, 『라이프스타일 도시』, Weekly BIZ books, 2016, 52쪽.

27) 민선1기 시정 슬로건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민선 2·3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민선3·4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었다. 민선5·6기에는 '문화특별시 부천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시정 슬로건으로 사용했다.

28)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19쪽.

이미지 개선 및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문화산업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부천시는 5대 문화시업을 추진하면서 현대적인 문화콘텐츠 확보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전통문화콘텐츠 및 유산이 미비하여 첨단과 전통을 접목하는 연계 고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sup>29)</sup> 이에 전통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정책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까지 이어졌다. 엑스포는 무형유산을 보존 및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sup>30)</sup>

2005년 12월 '전통문화 및 무형문화재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열어 엑스포의 타당성을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2004~2006년 사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6·7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부천전수관이 건립되고, 무형유산 전승과 체험의 거점으로 무형유산 공방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5년 문화관광부 공모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육성을 위한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총 26억 원이 투입되어 2008년 9월 완공되었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신응수와 목조각장 박찬수가 설계·제작에 참여했으며, 한옥 7동과 기획체험관 2동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10월 9일 개막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Rendezvous with Tradition): 혼(Spirit)·즐거움(Joy)·감동(Im-pression)"을 주제로 21일간 개최되었다.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김박영, 경

29) 박석희·박광국, 「의사소통행위론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축제 평가-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2009, 64쪽.

30) 이준일, 「'부천할' 전승과 부천활박물관의 역할」 『실천민속학연구』 42, 2023a, 137~138쪽.

기도무형유산 임선빈(악기장), 황순희(지수장), 이규남(서각장), 곽홍찬(금속조각장), 최옥근(계명주 명인) 등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참여하여 작업과 판매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엑스포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프리엑스포(Pre-EXPO) 형식으로 치러지면서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사기간 동안의 관람객이 25만 명으로 집계되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2010년에는 16개국 600여 명의 참가로 재개되었으나 입장객 8만여 명에 그치며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적 변화 또한 사업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만수 시장의 엑스포 폐지 공약(2010년)에 따라 2011년 이후 관련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다. 공방거리는 2010년까지 운영된 후 부천문화원에 민간위탁되어 한옥체험마을로 전환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지며 지역 언론으로부터 “헛돈을 들인 골칫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sup>31)</sup>

결국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대규모 예산과 상징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 문화정책 사례로 남았다. 단기적 흥행이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그친 채,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체계 강화나 시민 참여 기반 확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부천은 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분야를 집약·육성해 도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전환했으나, 전통·민속 문화자원의 제도적 육성은 리더십 변동과 재정 우선순위 변화에 취약했다. 지역 무형유산의 전승공간·인력·운영재원 확보가 구조적으로 미흡한 데 대해 2023년 부천시의 회에서도 무형유산 전승 기반(전수관·공간·지원)의 취약성이 재차 지적

31) 정창교, 「100억대 헛돈 쓴 부천 골칫덩이 2곳 동춘서커스장·한옥마을 헬런다」, 『국민일보』, 2016. 6. 22.

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활동을 위한 공간과 재정적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략) 그러나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에 변듯한 전수관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sup>32)</sup>

실제 경기도무형유산 ‘자리걷이굿’ 등은 전수관 부재로 공간을 전전하고, 향토문화유산 ‘척천농기고두마리’는 협소한 가건물에서 활동하는 등 활동 인프라가 열악하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맞물려 기존 한옥마을 내 조각장 활동공간의 불안정성도 지적된다. 요컨대 부천의 문화산업 드라이브는 도시 브랜드·관광·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으나, 무형유산과 전통문화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공간·재정 인프라의 구축은 향후 보완과제로 남는다.

부천은 문화산업 중심의 전략으로 도시 이미지 전환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전통·무형유산 영역의 제도화 부족이 정책의 내구성을 약화했다. 향후 콘텐츠 산업의 성장 엔진과 ‘지역정체성의 생활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축 관리(dual-track)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박물관 운영을 통한 정체성 구축’ 및 ‘주민활동 기반의 문화도시 재구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 2) 박물관 운영을 통한 지역정체성 구축<sup>33)</sup>

부천의 지역문화유산 활용은 보존 및 수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 과제로 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선사 유적의 일부가

32) 손준기, 「부천시의원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 9. 1.

33) 이준일, 「부천의 박물관 정책과 시립박물관 운영 및 전시 개선방안」 『문화정책논총』 37(2), 2023b, 212~214쪽(재이용 및 보완).

훼손된 사례가 존재하며, 부천시립박물관 통합 이후 근현대사 및 생활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예산 확보가 미비하여 소장품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박물관의 연구·전시·교육 등 전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도시민속학의 관점에서 보면, 민속은 과거·농촌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떤 시공간에서도 생성·발견되는 생활의 총체다.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민속은 도시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도시민속이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 정착했다. 오늘날 도시라는 공간은 이동이 자유로워 특정한 지역보다는 도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전국에서 모여든 각각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도시 특유의 공감대를 공유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융합적이고 혼합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공간이다.<sup>34)</sup>

다시 말해, 도시민속은 개개인 삶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때 구술사·생애사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도시의 민속을 가시화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된다. 도시 그 자체로는 어느 도시나 비슷한 발전사를 가지지만 그 안에서 살아온 개인의 삶은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생애 궤적을 추적 및 전시하는 일 자체가 도시 정체성의 실물 아카이빙이 될 것이다.

부천의 역사 형성은 철도·도로 인프라와 밀접하다. 경인선(1899)은 인천을 기점으로 소사를 거쳐 서울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이다. 일제의 경부선, 경인선 철도부설과정은 2천만 평의 철도용지 수용, 방대한 철도재료(목재·침목 등)와 우마·식량·가옥·분묘의 징발 또는 파괴, 연인원 1억

---

34) 박환영, 「도시민속 연구의 과제와 전망-경인지역과 도시민속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60, 2011, 413쪽.

여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동원한 약탈 과정이었다.<sup>35)</sup> 특히 소사역(현 부천역)을 설치한 것은 김포평야를 배경으로 이곳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을 적재에 운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36)</sup> 경인선으로 인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일본인의 대규모 농장 경영이 이루어졌으며 복숭아가 많이 난다고 하여 복사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일제강점기의 일이다.

경인선에 이어 1936년 경인국도가 개통하고 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 도로가 정비되어 서울과 인천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비교적 지가(地價)가 저렴한 부천으로 다수의 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1965년 경인선의 인천역-부천역-영등포역 사이의 복선 노선이 개통되었고, 수도권 전철화 계획으로 1974년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이 전철화되어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자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부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990년대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중동과 상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10년에는 89만여 명의 인구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는 식민지기 농업근대화—공업화—베드타운화—문화도시화로 이어지는 부천의 도시생활사 축을 형성한다.

부천시립박물관이 테마박물관의 통합에서 부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전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사 전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집마다 있는 못 쓸 물건을 왜 전시하느냐’는 생활문화 저평가와 산업발전 서사만을 강조하려는 편향이 관찰된다. 이는 부천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을 위해 새로 생긴 철로

35) 정태현,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2010, 139쪽.

36) 권만용, 박덕유, 「경인선」,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aks.ai/GC01600078> (검색일자: 2024년 12월 11일)

와 도로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공업 도시로 발전하며, 다시 수도권 규제에 따라 침체되었다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 도시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보여주는 것이 부천이 가진 문화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천만의 지역적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공립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삼아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다. 국립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유물과 전시품을 통해 국가의 역사와 문화 및 예술분야의 발전과정을 다루지만, 지역의 공립박물관은 공간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역사와 연관된 다양한 소재로 지역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하기 때문이다.<sup>37)</sup> 이러한 차원에서 부천시립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성을 드러내는 전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으로 근현대를 조사하는 것은 부천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유리하다. 근현대 생활문화라는 것이 ‘전근대 사회에는 없었던 삶의 형식과 내용<sup>38)</sup>’이라고 정의한다면 부천의 급격한 산업화와 문화변동은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부천시립박물관에서는 경기도 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을 통해 <기록하다; 부천 사람들의 삶

---

37) 신창희, 방문식, 「지역 공립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활용-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6, 2019, 26쪽.

38) 배영동,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와 연구의 방향-새로운 직종의 등장과 관련하여-」 『민속학연구』 41, 2017, 14쪽.

과 문화)라는 주제로 부천의 역사문화와 부천사람들의 삶에 대해 주목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역량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 부천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서, 사진, 자료 등을 수집 및 전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시민과 공유하고 부천지역의 박물관으로서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자원, 인물 등을 발굴하고 사진촬영, 구술녹취,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특히 부천의 역사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부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발굴 및 기록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성을 드러내는 유물 구입 및 기증 유도 등 추후 소장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 유물 기증 캠페인 <장롱 속 유물을 찾습니다>를 통한 유물 확보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부천과 관련된 근현대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증유물의 전시활용은 물론 기증자의 개막식 초대, 기증내역 홈페이지 공개, 박물관 소식지 기증내용 소개 등을 공지하여 기증자 예우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셋째, 부천의 역사와 생활사에 기반한 부천시립박물관의 상설전시 개편이 시급하다. '철도-도로-공단-신도시'로 이어지는 도시 인프라 연대기를 주축으로, 시민 생애사에 따른 세대·젠더·이주 배경 등 다층적인 서사를 병치하고, 사진, 구술녹취,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해 볼 수 있다.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펼벽의 주제를 연계한 배치도 고려해 볼만하다.

넷째, 연구-전시-교육이 삼박자를 이루는 운영 구조화가 필요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유산 수집과 연구에 주력해야 하

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시 스토리텔링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전시, 조사·연구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교육·체험프로그램 역시 전시개편에 따라 자연스러운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부천시립박물관은 화려한 문화산업의 전시장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생활기술을 축적·순환시키는 지식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생활사·도시민속에 근거한 조사 선행-수집·보존의 추진-생활사 기반의 상설전시 개편-연구·조사 기반 교육·체험 개편을 통해 '박물관 운영을 통한 지역정체성 구축'이라는 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주민활동 중심의 문화도시 재구성

부천은 1990년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에서 최근 법정 문화도시 비전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를 표방해왔다. 이는 “주민, 기초지자체, 문화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직접 설계하며,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실천한다”는 법정 문화도시의 기본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법정 문화도시 부천은 “생활문화를 단순한 장르적 개념이나 특정 공간 중심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기본권에 명시된 시민의 가치와 신념,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sup>39)</sup> 이는 부천이 지향하는 생활문화도시가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프라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

39) 이종현, 「법정 문화도시, 그게 뭐예요?」 『콩나물신문』, 2022. 7. 8.

준다. 생활문화는 거주, 일, 여가 활동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바탕으로 하며, 부천은 이를 통해 '상상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법정 문화도시인 부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문화권' 증진, 둘째, 시민에 의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의적 도시 환경' 기반 구축, 셋째,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가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이다. 이 목표는 요컨대 시민이 자발적으로 문화 향유를 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3년 문화도시부천 주요사업〉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명칭을 보면 '시민', '마을', '생활문화'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며, 생활문화센터·사라이에예술마당·부천아트벙커B39 운영을 비롯하여 「도시이야기페스티벌」, 「부천스런랩」, 「도시다감: 감정사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 주도의 방식으로 기획·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기획자이자 실천자가 되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2023년 문화도시부천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20만 명을 상회하였고, 직·간접적으로 87건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시민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과 협력 기여도가 2년 만에 20% 상승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시민위원회나 시민총회가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거버넌스가 정책결정 단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2024년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마지막 해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예산(도비 15억) 없이, 부천시가 2025년 문화도시 예산을 크게 삭감(시비 3억)한 상황에서는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했던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천은 지역문화정책을 통해 산업과 환경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도시의 정체성을 전환하려 노력했다. 복사골예술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대표적인 문화사업들이 추진됐지만,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시민은 문화적 형식만 강조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복사골예술제, 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시립예술단, 부천FC 등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즐기는 모두의 행사인지 그저 매년 관성적으로 행사를 치러오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

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역별, 연령별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문화·행사를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sup>40)</sup>

특히,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집행 당시에는 주목받더라도, 사업 종료 후에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도시 사업에 직접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 많고 예산이 투입될 당시만 사람이 모여들며, 사업을 끝냈을 때 손에 잡히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예산 사업 추진체계 특성상 내실을 들여다보면 단체장이 바뀌는 상황이나 결정권자의 성향에 따라 사업의 중심이 휘둘리며 때로는 예산이 낭비되기도 한다.

그동안 부천의 문화도시 정책은 외부인의 잔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영화제,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는 대외적으로 인기 있지만 지역 문화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삶과는 괴리가 있었다. '시민참여율 저조와 같은 비판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경우 판타스틱이라는 특정한 주제로 인해 일부 마니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만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1년간 고스트 스토리를 제작하거나, 고스트 버스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화제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

40) 양정숙,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 9. 2.

부천아트벙커라는 도시재생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영화제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영화인 중심의 영화제를 넘어,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융합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산업 중심에서 시민 활동 중심의 문화 생태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문화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시민 참여의 심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시민위원회와 시민총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에 머물지 않고,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 거점 단위의 주민협의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참여 과정에서 도출된 제안이 행정 의사결정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과의 축적과 환류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단년도 중심의 사업 구조는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므로, 조사·기록·아카이브 등 문화자원의 체계적 축적을 통해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사업별 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책 수립과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로컬브랜드 기반의 지역문화경제 강화가 중요하다. 부천의 생활양식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애착을 유도하고, 문화와 경제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정 및 제도적 안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의 종료 이후에도 핵심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출연금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참여 및 성과공시 조항을 명문화하여 행정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컨대, 부천의 문화도시 정책이 단기적 이벤트 중심의 도시 마케팅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결합된 구조적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축적-지속-경제화'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부천은 급격한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거치며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쇠퇴를 문화정책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천의 문화정책 전개 과정을 공업도시의 형성과 쇠퇴, 문화산업화, 박물관 운영을 통한 지역정체성 구축, 주민활동 중심 문화도시의 재구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분석하였다.

부천의 문화도시 정책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대응 전략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문화산업 중심 전략'에서 '시민참여 기반의 생활문화도시'로 정책 방향이 확장되었다는 점은 부천의 문화정책이 구조적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사업은 여전히 단년도 사업 중심, 이벤트형 운영, 시민 참여의 형식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회성

성과를 넘어, 조사·기록·아카이브를 통한 문화자원의 축적, 시민 참여의 제도화, 재정 및 행정 기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부천의 사례는 지역문화정책이 산업적 위기나 도시 쇠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물리적 시설 확충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스며드는 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화정책이 행정의 지원을 넘어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천의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문화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활성화의 실질적 전략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연구가 부천의 정책 자료와 일부 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제한적이었던 점은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법정 문화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정책의 차별성과 지속가능성 모형을 심층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천의 문화정책은 산업도시의 유산 위에서 시민의 일상과 기억을 문화로 전환시키는 실험이자, 지역문화정책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문화도시 부천의 향후 과제는 ‘참여-축적-지속-공유’의 구조적 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이 곧 문화정책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다.

## 참고문헌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1』, 아카데미프레스, 2016.
- 리처드 플로리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경제발전-젠트리피케이션-빈부격차』, 매일경제신문사, 2023.
- 모종린, 『라이프스타일 도시』, Weekly BIZ books, 2016.
-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gasse-아카데미, 2020.
- 전영수,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라의논, 2023.
- 정태현,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2010.
- 
- 박석희·박광국, 「의사소통행위론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축제 평가-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2009.
- 박은실, 「부천 박물관밸리의 근린공원부지 활용실태와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46, 2002.
- 박환영, 「도시민속 연구의 과제와 전망-경인지역과 도시민속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60, 2011.
- 배영동,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와 연구의 방향-새로운 직종의 등장과 관련하여-」 『민속학연구』 41, 2017.
- 신자은, 「부천 박물관 클러스터의 형성과 전개-박물관밸리 계획과 클러스터의 과도적 운영(2002-2017)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3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신창희·방문식, 「지역 공립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활용-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6, 2019.
- 원도연, 「문화도시론의 발전과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13, 2008.
- 이병량, 「한국 문화도시의 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념, 전략,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한국정책연구』 23(1), 2023.
- 이준일, 「'부천활' 전승과 부천활박물관의 역할」 『실천민속학연구』 42, 2023a.
- 이준일, 「부천의 박물관 정책과 시립박물관 운영 및 전시 개선방안」 『문화정책논총』 37(2), 2023b.
-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논총』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광주, 전주, 부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이준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정책 분석-부천시, 세종시, 영주시를 사례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5.

김 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김면·노수경·정수희,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김혜인, 『지방자치단체와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부천시박물관, 『부천시 문화환경 조성과 박물관 프로젝트』, 부천문화재단, 20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6.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2023.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박물관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부천시, 2015.

이종현, 『법정 문화도시, 그게 뭐예요?』 『콩나물신문』, 2022. 7. 8.

정창교, 『100억대 헛돈 쓴 부천 골칫덩이 2곳 동춘서커스장·한옥마을 헐린다』 『국민일보』, 2016. 6. 22.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s://bucheon.grandculture.net> (검색일자: 2024년 12월 11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bucheon.go.kr> (검색일자: 2024년 12월 11일)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검색일자: 2024년 12월 11일)



## 목차

---

I. 머리말

II. 일제의 '특별조사' 속 소사 이주 일본인의 과수 재배

III. 근교 과수 산지에서 복숭아 명산지로의 특화

IV. 맺음말

# 일제강점기 소사 지역의 과수 재배와 복숭아의 특산물화

전현정<sup>1)</sup>

## 1. 머리말

부천시립박물관이 소장 및 전시 중인 196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생활(3-1)』에서는 식생활과 관련하여 과일과 채소를 소개하며 국내 주요 과일 명산지가 언급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일컬어진 ‘소사<sup>2)</sup>의 복숭아’는 수원<sup>3)</sup>의 딸기, 안양의 포도와 함께 경기삼미(京畿三味)로도 불릴 만큼, 대내외에 확고히 인식된 지역 특산물이었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 및 대규모 택지 개발을 거치며 농업이 주산업에서 밀려난 지금의 부천에서도 복숭아는 지역 상징물로서 남아있다. 이러한 복숭아 산지로서의 부천은 시 승격 이후 추진된 세 번의 시사 편찬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듯 20세기 초로부터 기원한다.

수정·보완을 거치며 시기별 향토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900년대 초 소사 지역에서 상업 작물로서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는 일

1) 부천시립박물관 소속 부천시립박물관 학예사

2) 1973년 10월 부천시로 승격한 지역은 소사읍 일대였다. 1941년 10월 읍으로 승격했던 소사는 1899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소사역(현재의 부천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고, 소사읍은 해방 당시 경기도의 행정적 도시로 들 수 있는 3개 부(경성부, 인천부, 개성부)와 8개 읍(수원읍, 안성읍, 평택읍, 이천읍, 소사읍, 장호원읍, 여주읍, 의정부읍)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부천의 중심이었다.(염복규, 『일제강점기 식민지도시화』, 동북아역사재단, 2024, 64~65쪽.)

본인 이주 농민과 그 주요 인물로서 ‘다케하라의 등장은 일관적이다.’<sup>3)</sup> 그러나 인천역장을 지낸 인물로서 농업경영자로 변모한 인물은 ‘다키하라(瀧原顯)로, 그의 약력은 1913년 조선실업신문사에서 낸 『조선내주 내지인 실업가 인명 사전』 제1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철도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1899년 도선(渡鮮)하여 경인철도회사로 이직, 남대문역과 서대문역, 그리고 인천역의 역장으로 근무했다. 6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사직한 다키하라는 1905년 운송업을 개시하였는데, 1908년 12월부터는 운영하던 사업을 축소하고 농사 경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행된 일본인 실업가 인명사전에서 확인되는 다키하라의 농사 경영 시작 시기와 달리, 『부천시사』에서 1903년으로 연도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1933년 발행된 『朝鮮の特産:どてに何があるか』에서 밝히고 있는 연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sup> 다만 해당 사료에서 역시 ‘다케하라’가 아니라 명확히 ‘다키하라(瀧原)’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순한 오타가 수정되지 않은 채 거듭 전해졌을 수도 있겠으나, 소사 복숭아의 유래를 다룰 때 자주 인용되는 1913년의 『毎日申報』 기사에 단순한 오류인지 혹은 착오인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부평군 소사의 과수재배업은 현하 비상한 형세로써 발달하여 지금은 우수한 원예업으로 저명하게 되었는데 그 경로를 소급하여 조사

3) 처음 편찬된 부천시사(1988년)는 ‘소사의 복숭아 재배의 시작은 일설에 의하면 1903년 인천역장을 지냈던 일본인 ‘다케하라’가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재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1925년 경부터는 본격적인 과수단지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서울과 인천을 넘어 한때는 평양, 신의주, 만주까지 복숭아가 출하되었다고 서술한다.(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1988, 129쪽) 이를 보완한 2002년에는 다키하라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인이 선도하여 부천이 대규모 복숭아 재배지역으로 육성되고 이를 계기로 복숭아의 고장으로서는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제2권, 2002, 539쪽) 최근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천시는 세 번째 시사 편찬(2023)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서는 1902년 소사농원을 통해 개량형 복숭아나무가 처음으로 보급되었고 그 이듬해인 1903년 ‘다케하라’가 복숭아 재배를 시작, 일본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수정·보완하였다.

4) 佐藤英枝, 『朝鮮の特産:どてに何があるか』, 朝鮮鐵道協會, 1933, 181쪽.

한즉 宋자작이 경영하기 전 즉 明治36년경(1903년)의 내지인 濱田傳兵衛, 荒木忠一, 竹原農園 등이 결합하여 과수의 재배를 개시한 것이 同地 과수원의 효시가 되었다.<sup>5)</sup>

위의 기사에서는 과수재배업을 시작하였다는 또 다른 일본인들의 이름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그간 『부천시사』에서 인천역장 출신의 재조선일본인 다키하라를 다케하라로 오기한 데에는 '竹原(다케하라)'와의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인명은 차치하고 위의 기사를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는 신문 기사에서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복숭아라는 특정 과일이 아니라 과수재배업이라는 것이다. 즉 복숭아 산지로서의 기원에 있어서는 관련 사료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사실 소사에서 복숭아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추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특정 지역의 주민이 공통된 작물을 상품으로 재배하여 대내외에 그 작물이 특산물이라는 지역의 표상으로서 거듭나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키하라라는 인물의 존재와 더불어 '이 좁은 산골짜기에 과수원이 자그마치 백집이었다는 1930년대의 소사에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과수원은 겨우 서른 집'<sup>6)</sup>이라는 첨언을 생각한다면, 이 일대에서 과수재배업에 종사한 일본인들의 이주 초기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일본인 농업 이민의 여러 형태 중 과수재배업에 초점을 맞춰 소사 지역 일대를 바라보고 농산물 가운데 복숭아가 특산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5) 「素砂果園의 奮闘」, 『每日申報』 1913. 1. 30.

6) 「京仁街道鐵筆 로케-순-口味이끄는 水蜜桃는 素砂地方의 名産」, 『朝鮮日報』, 1938. 4. 19.

## II. 일제의 '특별조사' 속 소사 이주 일본인의 과수 재배

일본 메이지 정부는 당시 인구 증가와 식량부족 등 전례 없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북미, 서구로의 이민이 1890년대 후반부터 배일 감정의 심화와 제도적 제한으로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부상한 공간은 조선과 만주였다. 그중 일제의 식민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조선은 비교적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유사하여 농민을 이주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인식되었다. 나아가 일제는 일본 농민이 조선 농촌에 일본식 농법과 경영 방식을 이식·육성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위한 사회 구조를 아래로부터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01년 일본 이민보호법 개정 이후 통감부는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였고, 일제는 조선의 농업·농촌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며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으로의 이민사업을 추진해 나간다.<sup>7)</sup>

일본인의 이주 장려와 이주자들의 적응을 위해 1905년 통감부 농상공무부에서는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증보·재판하여야 할 만큼 성공적으로 책자가 배포되었고<sup>8)</sup>, 당시에는 이러한 많은 안내서들이 이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 정부를 비롯해 지방 각 부·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조선을 새로운 이주 대상지로서 그 농업 사정과 토지, 농산물 등을 조사한 자료들이 뒷받침되었다. 예컨대 일본 농상공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간행 계획을 세우며 관료, 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 교수, 농사시험장 기사 등 농업 기술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농사조사

7) 전성현·하지영·이동훈·이가연, 『일본인 이주정책과 재조선 일본인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21, 62~68쪽.

8)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1907)은 1906년 증보판으로 기존의 서언(緒言) 다음에 「再版ニ臨ミテ」라는 제목의 증보판 서문을 덧붙여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04년부터 3개 반으로 나뉘어 한반도 전역을 실지 조사한 위원회는 각 도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농상무성은 1907년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를 발간했다.<sup>9)</sup>

조사 당시 일본 농상무성이 실지조사를 위해 협조를 구하였던 외무성에 조사 결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서<sup>10)</sup>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문서에서는 참여한 조사원들을 크게 농산조사와 토지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 조사원들의 명단 아래로 덧붙여 적혀있는 '특별조사 분담' 명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 농상무성은 수역(獸疫, 가축에게 유행하는 전염성 질병)·원예(園藝)·농업수리(水利)·잠사업(蠶絲業)에 대해 조사원 한 명씩을 지정하여 '특별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해당 조사를 진행했던 네 명의 전문가는 조사 이후 그 내용을 담은 복명서 등을 각각 작성했는데, 그 중 원예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던 농사시험장 기사 온다 데즈야(恩田鐵彌)가 작성한 『韓國=於ケル果樹蔬菜栽培調査』에는 1906년경 한반도에서의 과수 및 채소 재배 양상에 대한 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회 및 개항장과 일부 저명한 산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는 조사에서는 경성, 인천, 개성, 부산, 목포, 원산 등 주요 대상들에 대해서는 과수, 채소, 국적별 농사 양상 및 시장조사 등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기록은 지역의 위상이나 내용의 중요성에 따른 의도적인 순서 조정 없이, 실제 이동 경로를 반영한 듯 지역별 조사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특별조사를 분담했던 다른 분야의 담당자들이 각자의 복명서에서 그 경로를 밝히고, 도별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양식에 맞춰 각지의 조사 내용을 재구성

9) 이영학, 「통감부의 농업조사와 농업정책」 『역사문화연구』 49, 2014, 89~91쪽.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대사자료집성>韓日經濟關係 1>—○.韓國森林調査復命書摘要>(7)[韓國의 農産 및 土地-獸疫 등에 대한 日本 農商務省의 調査報告書 提出 件] [https://db.history.go.kr/id/hk\\_006\\_0100\\_0070](https://db.history.go.kr/id/hk_006_0100_0070) (검색일자: 2025년 6월 24일).

하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그러한 일련의 기록에서 당시 경기도 부평군에 속해있던 소사 지역의 과수 재배 양상은 경인선의 상행과 같이 가장 먼저 서술한 인천 다음으로 기록되었다. 해당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사에서 과수 재배에 종사하는 이주 일본인들의 이름과 그 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소사에서 과수 재배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들어 해당 지역에 가서 이를 조사하였다. 그곳은 인천, 경성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경인철도가 이를 종관한다. 서쪽은 산악에 가까이 접하지만 동쪽은 약간 넓은 평지이다. 인천, 경성의 발달에 동반하여 농산지로서 점차 유망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차장 부근에 경성 육관 주인 가와시마(川島) 아무개의 농장이 있다. 다소의 소채를 재배하고 과수의 묘목을 심고 있었다. 해당 농장은 지난 메이지 36년(1903년)에 개간하여 37년(1904년)에 약 3, 4단이 있는 곳에 수박을 재배하니 성적이 다소 양호하여 또 그 가격이 높아 이익률이 높다고 한다. 37년, 38년(1904~5년) 두 해는 중국 참외를 재배하였더니 이 또한 다소 양호한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중략) 과수의 묘목은 38년(1905년) 봄 도쿄 경목원(耕牧園)에서 구입하고 세관의 사정으로 2~3일 늦어져 분명히 16일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포장(圃場, 논밭과 채소밭)에 조금이나마 복숭아를 심었으나 잘 자라지 않는다. 다른 묘목은 모두 가식(假植, 임시로 심음)하여 사람이 점점 좋다. (중략)

가와시마(川島) 아무개의 밭을 지나 조금 가면 전 인천역장 다키하라(瀧原) 아무개의 포도원이다. 단별 약 1반보(反步)로 4년 전에 심었던 것이라고 한다. 토성은 자갈 섞인 점토로 평탄하여 배수가 좋고, (포도) 종류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종이다. 정지법(整枝法)

은 울타리식이며, 손질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부분 병해 없이 발육이 양호하였다.

이곳에서 선로를 넘어간 것은 십수 정(町)인 높은 원야를 개간하며 초목을 심은 것이다. 앞서 기술한 다키하라(瀧原) 아무개와 야마모토(山本) 아무개(후쿠이 현 사람)가 공동으로 심었던 것은 3정(町)이며 4년 전에 심었다고 한다. 39년도(1906년)는 다소 열매를 맺지 못한 복숭아가 있다. 이것에 이웃하여서는 이노우에(井上) 아무개의 사과원이 있다. 그것은 단별 5, 6정보(町歩)이며, 자람은 전자와 다르지 않다.<sup>11)</sup>

생략된 대목에서는 농지의 토질이나 재식한 과일별 품종 이름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처럼 온다가 남긴 사료를 통해, 1903년부터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가와시마의 농장과 인천역장 출신 다키하라가 1902년부터 포도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는 과수원, 그리고 이노우에의 사과원에 이웃한 다키하라와 야마모토의 공동경영 농지에서 자라고 있는 복숭아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외국 품종의 과수 묘목을 들여오고 공동으로 과수 재배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1913년 『毎日申報』의 기사 「素砂果園の奮闘」에서도 과수 재배에 적당치 못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굴하지 않고 개량 비료와 전지법을 이용하여 분투하였다는 하마다(濱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아라키(荒木)의 집에서 60여 명이 참석하는 소사농회 총회 개최 소식이 확인된다. 해당 총회에 대해서는 '원래 내

11) 恩田鐵彌, 『韓國ニ於ケル果樹蔬菜栽培調査』, 1906, 본문 5~6쪽. 야마모토의 부연 설명인 '후쿠이현 사람'은 원문에도 괄호로 제시된 내용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작성자의 설명 및 원문의 한자 표기이다.

지인 원예가의 집합이었는데,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인(鮮人) 농가의 입회도 환영하고 일반 권농 사상을 보급케 하기로 결의하며 금회에 석천면 농회로 개칭하였다고 한다.<sup>12)</sup>

이를 통해 20세기 초 소사 지역에서는 과수 재배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농회를 설립할 만큼 일본인의 지속적인 이주와 농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조선인에게까지 지역공동체를 확장하는 등 식민 이민자들의 과수 재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각지에서의 이주자 수 중 소사 집계 자료 발췌<sup>13)</sup>

이사청 및 同지청 명	지명	인구			호수(戶數)		
		明治39년 (1906) 3월 말	明治40년 (1907) 3월 말	증감	明治39년 (1906) 3월 말	明治40년 (1907) 3월 말	증감
仁川	素砂	41	85	44	13	24	11

### III. 근교 과수 산지에서 복숭아 명산지로의 특화

앞서 확인했듯 1913년 시점에서 소사 지역은 그저 ‘저명한 과수 재배 산지’로 일컬어졌다. 복숭아 재배를 확산시켰다고 하는 일본인 이민자들 또한 이주 초기에는 복숭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과수 재배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사토 사카에다(佐藤英枝)가 저술한 『朝鮮の特産:どてに何があるか』에서는 소사의 복숭아와 포도를 소개하며, 가장 먼저 복숭아에 대해서 ‘소사의 복숭아는 천하일품이라고 극찬

12) 「素沙農會의總會」 『每日申報』 1913. 1. 23.

13) 統監府農商工務部 編,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 統監府農商工務部, 1907.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에서 제작·배포한 《조선중요물산 검 특산물분포도》에서 역시 소사가 위치한 경인선 연선에는 열은 붉은색을 띤 복숭아가 그려져 있다. 무역항마다 1932년도 수입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 초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복숭아라는 특정 농산물이 소사의 특산물로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 1906년경 이주 일본인들이 재배하였던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앵두 등 여러 종류의 과수 작물 가운데 유달리 복숭아가 소사의 특산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



도1. 《조선중요물산 검 특산물분포도》  
인용자 일부 편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11년 발행된 『(實驗)朝鮮果樹園藝』는 입문자에게 과수 재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과일별로 구체적인 특성과 재배법, 품종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각론'에서는 가장 먼저 복숭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미 경성과 개성 등의 교외에서는 복숭아 숲이 있을 정도로 꽃놀이와 한여름의 생식용 과실로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과실 중의 으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열매의 성질'과 '수확 및 수확 상의 주의'를 안내하는 단락에서 복숭아 열매가 운반 또는 저장이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시장에 출하하거나 멀리 보낼 때에도 포장에 조심하고 수송 시간을 고려하여 수확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sup>14)</sup>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의 개최<sup>15)</sup>와 함께 발행된 책자 『朝鮮之副業』에서 또한 품종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저장과 수송이 곤란하기에, 복숭아는 재배지 부근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가지 부근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6)</sup> 그러한 의미에서 대도시인 경성과 인천 사이에 입지할 뿐더러 경인철도가 관통하는 소시는 쉽게 무르는 복숭아를 생산 및 출하하기에 적합한 근교 농업 지대였던 것이다.

덧붙여 확인할 수 있는 1922년 『東亞日報』의 기사는 「京畿道內 日本移民狀況」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조사한 동척 이민 이외의 관내 농업<sup>17)</sup> 이민 상황의 5개년 통계를 싣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물가 하락과 농

14) 高津敬三郎·押切祐作 共著, 『(實驗)朝鮮果樹園藝』, 博文館, 1911, 5쪽, 9~10쪽.

15)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경복궁 내에서 진행된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조선농회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 농가 대상 부업 장려 행사로, 1920년대부터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단작농업 형태로 조선 농업이 취약화, 곡물 반출과 농가 부채 증가로 인해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되자 이를 저지하고 농가의 현금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부업이 장려되며 이와 같은 공진회도 개최되었다. 조선 전역에서 공농 기타의 부업품과 더불어 일본에서도 부업품이 출품되었으며, 보통출품과 참고품으로 나누어 진열하고 상을 수여하였다. 이 중 '과실 및 그 제품' 또한 출품 분야였으며, 총 1,072점이 출품되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정소영, 「1923년 朝鮮副業品共進會의 개최와 영향」 『송실사학』 제38집, 2017.)

16) 朝鮮副業品共進會 編, 『朝鮮之副業』, 朝鮮副業品共進會, 1923, 74쪽.

17) 해당 기사에서는 어업을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업 수입 감소로 농업 이민의 숫자가 유의미하지 않은 다른 지방과 달리, 경성, 인천, 부천, 고양군 등에서만 영농자의 증가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도시의 수요에 응하는 소채·과수원에 영농자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sup>18)</sup> 이처럼 부천군, 그리고 그 중심 지역 소사는 1920년대 까지도 일본인들의 농업 이민이 지속되는 공간이었고, 당시의 교통·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복숭아의 재배 범위가 한정되면서 이를 주력상품으로 취할 수 있었다.

다만 특산물로 ‘공표’된 명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 같은 해에도 상반된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밀도(水蜜桃)라는 복숭아 품종을 소개하는 1929년의 『每日申報』 기사에서는 ‘경성 방면에서 소비되는 것은 대부분이 소사에서 산출된다 하며, 복숭아 특화 경성 근교 농업지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양상이 확인된다.’<sup>19)</sup> 그러나 겨우 2년 전인 192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朝鮮の物産』에서는 경기도 부천군에 대해 소금, 소, 돼지, 사과, 배, 새끼, 가마니, 대리석, 오동나무 등 갖가지 생산물을 나열하면서도 복숭아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20)</sup> 한편, 같은 해 『京城日報』의 보도는 경성역에서 판매하게 된 소사 복숭아에 대해 ‘이미 정평있는 바와 같거니와’ 하며 어느 정도 소사가 복숭아 명산지로서의 입지가 있는 듯 언급하고 있다.<sup>21)</sup>

이렇듯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서술의 차이는 조선총독부 총독 관방문서과와 같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기재하는 것에 비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문이라는 서술 주체의

18) 「京畿道內 日本移民狀況」『東亞日報』1922. 9. 5.

19) 「期節과 商品 : 水蜜桃 - 早種보다는 晩種」『每日申報』1929. 8. 1.

20)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201쪽.

21) 「京城驛ホームに水蜜桃の賣店」『京城日報』1927. 7. 21.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1920년대 후반의 시점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특산지라고 할 법한 입지를 다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유망한 근교 농업 지대로 부상한 소사의 변모가 이제 겨우 한 세대 정도 지났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산물'이라는 개념이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었던 전근대와 달리,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확산되는 현상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나타났던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병합 이전인 1906년 일한 상품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일제는 식민 지배 초기부터 군과 도 단위로 각종 품평회, 공진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제의 선진화된 문물을 선전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는데, 한편으로 일제가 조선 각지의 생태환경과 물산 정보를 축적하여 식민지 통치 자료를 확보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각지의 물산들은 선별 및 품평되었고, 전국 단위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는 각 도별로 진열장이 마련되어 전시됨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유도되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가 식민 지배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겠다.<sup>22)</sup>

일제가 수집한 각종 물산 관련 정보들은 『朝鮮の物産』와 같은 자료의 발간으로 귀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시대부터 해오던 물산 중심의 구분 방식이 아닌, 산업에 따른 근대적인 유형분류로 물산을 재편하고 있었다. 축산물이나 공산물과 같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산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개성 인삼처럼 전근대부터 주요 물산으로 인정받아 온 것이 근대에 지속되기도 하였으나, 식민자의 시각에서 이용 가치가 높거나 소비의 변화에 따라서 주목받게 된 물산에 대

22) 이재완, 「지역특산물의 전통과 문화자원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91~94쪽.

해 이전보다 상세한 정보가 축적되었다.<sup>23)</sup>

물산 자체의 소비만이 아니라 일제가 선전하는 식민지 관광에 있어서도 개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표상화하는 것은 유용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화물 운수 사정에 해박한 사토 사카에다가 『朝鮮の特産:どてに何かがあるか』를 주요 5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특산물을 기록하고, 또 이것이 철도국에서 간행한 여러 조선 관광안내서 중 하나였던 것은 이러한 흐름에서였다.<sup>24)</sup> 식민지의 성공적인 경영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도 관광사업이 도모되기도 하였지만, 철도국 차원에서도 영업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철도 연선에 위치한 여러 지역의 불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발굴해내고, 이를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여객의 철도 이용을 늘릴 만한 방책을 꾀해야 했던 것이다.

즉 일본인 이주자들에 의해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과수 산지가 된 소사 일대는 경성 근교라는 지리적 특징을 살려 복숭아 재배를 확대하게 되고, 지역마다의 특산물을 정립하여 경제적·선전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일제 식민정책의 영향 속에서 1930년대가 되면 복숭아 명산지로 완전히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 IV. 맺음말

1936년 8월 5일자 『東亞日報』 조간 7면에는 소사분국 조운호(趙雲鎬)가 기획한 '부천지방소개관(其一)'이 전면에 걸쳐 실려있다. 군세를 시작으로 주요 산물의 통계 및 특산물을 소개하고, 그 뒤를 이어 금융, 통신, 교

23) 이재완, 같은 논문, 96~98쪽.

24) 차경희, 「『朝鮮の特産』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식품 특산물 현황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6), 2019, 651~652쪽.

통, 공업, 의료, 종교, 상업, 목축, 교육, 정미, 어업 등 각 분야의 개요와 지역 인물 및 기업에 대한 기술이 빼곡하다. 부천이 고향인 조운호는 그 소회를 남김에 앞서 '부자의 재력이나 빈자의 성력(誠力)이 각자 소요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부천으로 하여금 저 요망(要望, 기사 본문에서는 평화로운 사회)에 달할 바 율동을 하는 전경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부천 출신 조선인이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수밀도(水蜜桃, 껍질이 얇고 살과 물이 많으며 맛이 단 복숭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수밀도 (연산(年産) 10만 원)

경인선 소사의 수밀도란 명성이 높은지 이미 20여 년이라,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먹는 놀이(桃食), 원근 각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거니와 경인 여객들의 차 중에서 사는 것도 펍 많다. 경인시장에는 물론 근년에는 만주 방면으로 수출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연산 30만 관(貫)으로 약 10만 원에 달한다.

이주용(李宙鎔) 씨는 별항 수밀도의 생산자 대표격이다. 수원 출생으로 10년 전에 소사에 왔으니 과수 재배를 목적함이다. 약 4정(町)의 황전(荒田)을 매입하여 수만의 투자로 복숭아, 배, 사과 등을 재배 경영하였는데, 본래 농업학교 출신으로 소양도 있거니와 진지한 역행가라 10년이나 후래자(後來者)인 그 실적은 각 선착수가를 능기할 지경이며, '이형제농원'이라는 마크가 있는 수밀도 및 배는 경성, 인천을 비롯하여 멀리는 신경, 봉천 등지까지 특상품으로 수출되어온 지 벌써 3년으로 품질도 감미도 최우량하여 소사 수밀도의 총 대표격이다. 틈이 있는 대로 동민(洞民)을 회집하여 야학을 개강하며 신문을 해설하는 등 자력자립의 정신을 가지도록 부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로 우리 농촌이 기대하는 시대적 청년이다.

이즈음 소사의 너른 복숭아밭은 경인 지역 거주자들이 차편을 이용해 오고 가며 봄여름을 즐기는 행락지였다. 1926년 경인선을 따라 경인팔경을 노래한 시<sup>25)</sup>에서도 이른바 '소사도원(素砂桃園)'이라고 칭하고 있었으니, 복숭아 재배가 한껏 왕성하던 1936년 시점 소사의 봄 풍경 역시 별천지였을 것이다. 만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복숭아는 이미 1932년 『東亞日報』에서 보도한 바 철도를 이용해 평양, 신의주, 중국 안동현으로 수송되고 있었다.<sup>26)</sup>

또한 신문 특성상 복숭아 재배 종사자로 조선인 이주용을 대표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타지에서도 과수재배업에 종사하기 위해 소사로 이주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유망한 과수 산지였음을 이주용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기사 내용과 더불어 '부천지방소개관' 하단에 실려 있는 이형제농원의 광고에서 '과수묘목·소채종자'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듯 복숭아 하나에만 집중하여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특상



도. 경인선 소사 과수원 부근의 부락 27)

25) 「京仁八景」『朝鮮日報』1926. 3. 8.

26) 「素沙名物水蜜桃 生産高三十萬貫」『東亞日報』1932. 8. 27.

27)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中篇), 1934.

품의 수밀도 재배와 판매로 이름난 모습은 인근의 다른 과수원 역시 흡사했으리라 생각된다.

너른 과수원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금의 부천에는 '복사골'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1981년 부천문화원의 『복사골』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0년대 초중반 부천 출신 문학·예술인들이 불러낸 명칭으로 추측된다.<sup>28)</sup> 현재의 인천과 김포에 이르는 지역까지 부천군이었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시 승격 시점에서 과거 소사읍이었던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이 확정되었고, 이에 1970년대까지도 지역의 주산업이었던 복숭아 재배는 당시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예로부터 정주 의식이 약한' 부천에 이주민들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토박이들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예향(藝香)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으로서 추진되었다는 '복사골종합예술제'의 취지<sup>29)</sup>는 일제강점기 소사의 풍경과 다소간 겹쳐지는 일면이 있다. 식민지로 이주해 온 자들에 의해 지역에 이식된 복숭아가 일대의 모습과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한편 또 다른 이주민을 정착시켰으며, 시간이 흘러 지역을 상징하는 표상이자 기존 주민과 이주민을 하나로 묶는 애향심의 매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풍경을 구체화하여 도시에 쌓인 시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고의 의의를 둔다.

---

28) 「"복사골 富川 되찾자" 시민운동」 『조선일보』 1987. 3. 21.

29) 「수도권 「地域문화」현주소 <下> 工業化에 문힌「郷土전통」에 관심」 『조선일보』 1986. 5. 2.

## 참고문헌

高津敬三郎·押切祐作 共著, 『(實驗)朝鮮果樹園藝』, 博文館, 1911.

恩田鐵彌, 『韓國ニ於ケル果樹蔬菜栽培調査』, 1906.

朝鮮副業品共進會 編, 『朝鮮之副業』, 朝鮮副業品共進會, 1923.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産』, 朝鮮總督府, 1927.

佐藤英枝, 『朝鮮の特産:どてに何かがあるか』, 朝鮮鐵道協會, 1933.

統監府農商工務部 編,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 統監府農商工務部, 1907.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1988.

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제2권, 2002.

부천시사편찬위원회, 『富川市史』 제1권, 2023.

염복규, 『일제강점기 식민지도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24.

이영학, 『통감부의 농업조사와 농업정책』 『역사문화연구』 49, 2014.

이재완, 『지역특산물의 전통과 문화자원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전성현·하지영·이동훈·이가연, 『일본인 이주정책과 재조선 일본인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21.

정소영, 『1923년 朝鮮副業品共進會의 개최와 영향』, 『송실사학』 제38집, 2017.

차경희, 『『朝鮮の特産』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식품 특산물 현황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6), 20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검색일자: 2025년 6월 24일)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 『부천과 박물관』 원고 규정



# 『부천과 박물관』 원고 규정

제정 : 2023. 08.

일부 개정 : 2025. 12.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 필자명에 각주로 현 소속 기관 및 직위를 명시한다.
3.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40매 내외이다.
4. 원고의 목차와 소제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원고의 부제는 ‘ 부 제 ’ 의 형식으로 한다.
  - 장, 절, 항의 번호는 “1, 1, 1” 의 순서로 한다.
  - 목차에는 장만 표시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5. 본문 작성
  -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한자와 외국어가 필요할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한다.
  - 한자와 외국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병기하되, 필요한 경우 반복 병기한다.

- 한자와 외국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병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별도의 각주에서 이를 명시한다.
- 글자 크기는 10pt, 줄간격 160%, 글씨체는 ‘바탕’으로 한다.
- 위쪽 여백 20mm, 아래쪽 여백 15mm, 좌우 여백 각각 30mm, 머리말, 꼬리말 15mm, 제본 0mm으로 한다.

## 6. 인용문

-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 주(註)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 인용문 내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시마천은 “공자만이 삼 년상을 더 하였다”고 하였다. (○)
-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위아래로 각각 한 줄씩 띄워서 본문과 구분한다. 또한, 왼쪽에 20pt 여백을 준다.
-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별도 처리한다.
-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힌다.

## 7. 주석

- 주석은 각주로 달며, 글자 크기는 9pt, 줄 간격은 130%로 한다.
-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반각) 안에, 단행본은 『』(반각) 안에 제목을 넣고, 논문과 서명 사이에 쉽표는 생략한다. 인용 논문과 각주의 끝은 마침표를 표시한다.

→ 노중국,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 한길사, 1994, 456쪽.

-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과 서명 사이에는 반드시 쉽표로 구분한다. 서명과 권수 사이도 쉽표로 구분해 준다.

→ Lee, Hai-soon, “Sijo Reviv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 모든 서명은 다음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표기한다. 편저물, 번역본, 한적본 등의 특수한 경우는 이하의 항목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예를 따른다.

·일반적인 표기 순서

→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

→ 서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

·일반 단행본

→ 한영유,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35쪽.

→ 小林 多加士, 『海のアジア史-諸文明の世界=經濟』(東京, 藤原書店, 1997), p.456.

→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pp.456~460, p.506.

·단행본 내의 논문

- 노중국,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 한길사, 1994, 456쪽.
-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정기간행물

-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부산경남사학회, 2002. 3., 49쪽.
  - 채미하,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역사학회, 2002, 45~56쪽.
  - 田村實造, 「均田法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制との關係—」 『史林』 45-6, 史學研究會, 1962, p.23.
  - Lee, Hai-soon, “Sijo Reviv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pp.89~94.
- 재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또는 Ibid.)' 등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재인용 시 구분이 필요한 사항은 표기해 주고,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 서지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필자의 편의에 따라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할 수 있다. : 『중국대학문화연구』(이하 『대학문화』)

- 편저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I, 지식산업사, 1994.
  - 배영수 편, 『서양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2.
  - Wing-Tsit Chan, ed., *Chu Hsi and Neo-Confucianism*,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 편저 속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동양서와 서양서를 구분해서 표기한다. 동양서는 편저자를 생략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만을 표기하고, 서양서는 편자를 밝혀준다.
  - 동양서
    - 이성규, 「제자의 학과 사상의 이해」 『강좌중국사』 I, 지식산업사, 1994.
    - 장동표, 「지역사학회의 발전방향과 지방사연구」 『역사와 경계』 42, 부산경남사학회, 2002. 3.
  - 서양서
    -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Fairbank, ed., *Chinese World Order*, Havard University Press, 1953, pp.210~214.
  
- 판적본(漢籍本)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 『』로 묶고, 하위는 「」를 쓰되, 다시 나뉘는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라 판본을 밝혀준다. 단, 판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할 수 있다.

· 판본을 밝혀줄 경우

- 康廣仁, 「報易一盡」 『戊戌六君子集』 X期, 近代史資料集刊, 1992, p.32.
- 魏源, 「外藩.乾隆戡定回疆記」 『聖武記』 卷4, 中華書局, 1984, pp.34~45.
-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 『論語』 卷1, 學而.
-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3日 壬申.
-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줄 수 있다.

- 蔣伯潛.蔣祖怡 共著/최석기.강정화 공역,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 鹽野七生/김석희 역, 『르네상스의 여인』, 한길사, 1996, 56~70쪽.
-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 (솔, 1997), 124쪽.

·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힐 경우, 콜론(:)을 사용한다.

- E. J. Hobsbawm/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각주 내에서 서명을 인용할 경우, 인용 대상을 제외한 부수적인 서지사항은 모두 괄호로 묶어서 처리한다.
  - 불필요한 서지사항은 괄호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 대표적인 견해로는 田村實造(「均田制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との關係」『史林』 45-6, 1962)와 王仲(「北魏初期社會性質與拓跋宏的均田」『文史哲』1955-10) 등이다.
- 각주 내에서 괄호 안에 참고문헌을 달 경우는 해당 문장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하고, 각주 전체의 내용일 경우 괄호를 묶지 않는다.
  - 13세기 몽고인들도 라시드 앓 딘의 『集史』(金浩東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252~253쪽)에서 그 祖上에 대해 鮮卑拓跋部가 森林속에서 살았던 것(『魏書』卷1, 序紀)과 유사한 回想을 하고 있다. 朱學淵, 「鮮卑民族及其語言線索」 『文史』 54, pp.101~102.
- 같은 논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때 필자가 구분을 원할 경우, 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다.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대학보』, 이대사학회, 1958. 11. : 『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新版1995, 45쪽.
-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 고병익, 「전통의 의미」 『동아시아의 전통』, 일조각, 1976. ;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미」 『한국문화사서설』, 탐구신서, 1964. ; 박종홍, 「문화의 전승.섭취.창조」 『사상계』 63, 1958. 10.

-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 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 “齊朝一士大夫 嘗謂吾曰 ‘我有一兒 年已十七 頗曉書疏 教其鮮卑語及琵琶 稍欲通解 以此伏事公卿 無不寵愛 亦要事也’ 吾時俛而不答. 異哉 此人之教子也! 若由此業 自致卿相 亦不願汝曹爲之.”  
「教子2」 『顏氏家訓』卷1, 中華書局, 1993, p.21.
-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연월일을 표기하되, 마침표(. )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 강만길, 「휴전선에 통일연구소를……」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1. 1. 21., 2면.
- 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줄고(拙稿)나 ‘필자(筆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준다.
  - 南基鶴, 「蒙古襲來以後の日本と東アジア」 『蒙古襲來と鎌倉幕府』, 臨川書店, 1996. (○)
  - 拙稿, 「蒙古襲來以後の日本と東アジア」 『蒙古襲來と鎌倉幕府』, 臨川書店, 1996. (×)
- 인터넷 자료일 경우 저작권자(있는 경우), 자료명, URL(최종확인날짜)

## 8. 도판

- 원고 내에 사용된 사진, 도면, 지도 등은 모두 ‘도’로 도표는 ‘표’로 통일한다.
- 도판 설명은 도판 번호, 작가와 제목, 제작년도, 재질, 크기, 소장처, 소장번호(있을 경우) 순으로 쓰고 마침표는 생략한다.
  - 도1. 필자미상, <미원계회도>, 1540년, 견본수목, 57.0x49.0cm, 국립중앙박물관(신13556)
- 개인이 찍은 사진일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촬영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 9. 참고문헌 작성 및 표기방식

-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인용한 저서와 논문으로 한정한다.
- 참고문헌 배열은 분류에 따라 사료, 저서 및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 각 분류 내의 배열은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한다. 일본인, 중국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서양서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며, 기타 언어는 각 언어별로 관계를 따르도록 한다.
  - 단행본과 일반논문 구분 없이 각 논저의 작성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저작과 외국어 저작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a, b 등으로 구분한다(예: 홍길동 2001a ; 홍길동 2001b).

○ 모든 서명은 다음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표기한다. 또한 발행지에 대한 지역 정보를 부기하되, 국내도서인 경우 생략한다.

·일반적인 표기순서

→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연도.

→ 서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연도.

·일반단행본

→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 小林 多加士, 『海のアジア史-諸文明の‘世界=經濟’』, 藤原書店, 1997.

→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Havard University Press, 1988

·단행본 내의 논문

→ 노중국,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 한길사, 1994.

→ 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정기간행물

→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부산경남사학회, 2002. 3.

→ 채미하,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역사학회, 2002.

→ 田村實造, 「均田法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制との關係—」 『史林』 45-6, 史學研究會, 1962.

→ Lee, Hai-soon, "Sijo Reviv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인터넷 자료

→ 홍길동, "조선의 대외관계", 2005. 3. 8.,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2008년 1월 5일).

→ 김창선, "부천문화재단, 박물관 프로그램 개설", 연합뉴스, 2005. 9.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090218?sid=103>  
(검색일: 2008년 10월 30일).





## 부천과 박물관 제3호

발행처 부천시박물관

발행인 문동수

발행일 2025년 12월

기획 김태동

교정·편집 최유리, 이종찬, 박민주, 채지원

지원 김영주, 윤지원, 김재영, 최혜리, 신지연, 양은영, 김영미

I S S N 3058-6615

편집·인쇄 알투디

\*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권과 부천시박물관의 동의를 받아서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의 견해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비매품



9

773058 661004

ISSN 3058-6615



BUCHEON &

MUSEUMS

